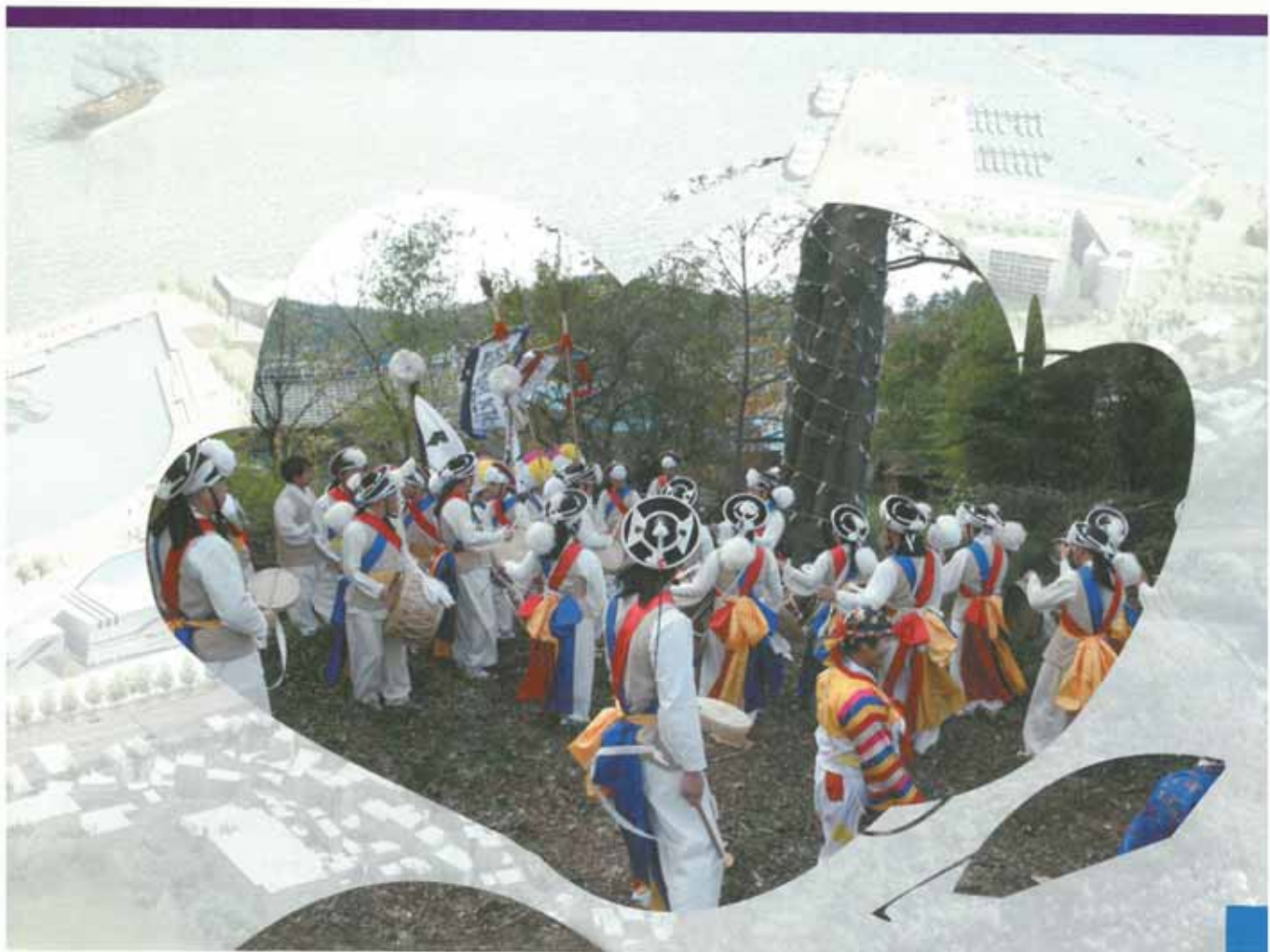


제 2 편 민 속



제 1 장

세시풍속

나 경 수 (전남대학교 교수)



제1절 1월의 세시풍속

1. 설

1) 차례와 성묘, 세배

여수지역에서는 대개 설 차례를 선달그믐에 모신다. 해가 진 뒤 종가에 모여 4대 조상에 대해 차례 상을 차려 유교식으로 모신다. 가정에 따라서 차손 이하는 큰집에서 차례를 모시고 나서 각자 집에 돌아가서 다시 차례를 모시기도 한다.

차례 상에는 형편이 허용하는 한 음식을 많이 장만하여 올린다. 일반적으로 제사와 같이 음식을 장만하지만, 갈치와 같이 끝말이 치로 끝나는 생선을

올리지 않는다. 또 승어도 올리지 않는데 흉측하게 생겼기 때문이라고 한다. 차례를 지낼 때 떡국을 쭈어 함께 올리는 집안도 있고, 새벽에 떡국을 쭈어서 조상께 올리고 나서 가족이 모여 먹기도 한다. 만약 탈상을 하지 않은 가정이 있다면, 상방에 따로 제상을 마련하여 삭망제(朔望祭)를 모신다.

설날 아침 설 옷으로 갈아입고 세배를 한다. 세배는 집안에 가장 웃어른에게 먼저 올리기 시작한다. 세배를 하면서 웃어른들이 아랫사람에게 소원성취하라는 뜻의 덕담을 하기도 하고, 또 아랫사람이 웃어른에게 건강하시라는 등 말을 올리기도 한다.

집안 어른들께 먼저 세배를 하고, 마을이나 먼 친지에게는 보름 전에 세배를 올리면 된다. 세배 돈을 주는 풍속은 오래되지 않았다. 예전에는 세배를 오면 주로 음식을 대접하는 정도였다. 마을회관에 어른들이 모여 있으면 귀성한 사람들을 비롯해서 마을 젊은 사람들이 음식을 대접하면서 단체로 세배를 올린다.

집안에서 세배가 끝나면 성묘를 한다. 차례에는 참여하지 않았던 여자들도 성묘는 간다. 집안에 따라서는 음식을 따로 장만하여 묘전에 진설하고 세배를 올리기도 한다.

2) 설 음식과 세주(歲酒)

설날 음식으로 먼저 꼽을 수 있는 것은 떡국이다. 떡국을 먹어야 나이를 한 살 더 먹는다고 한다. 본래는 꿩고기를 넣어 끓였다고 하나 지금은 닭고기나 쇠고기를 쓰는 것이 일반적이다. ‘꿩 대신 닭’이라는 속담은 여기에서 나왔다.

여수지방에서 최근에는 육류대신에 굴(석화)을 넣어서 떡국을 쭈는 예가 많다. 국물이 시원해서 좋다고 한다. 떡국은 예전 엽전의 형상이다. 엽전의 형상인 떡국을 끓여먹음으로써 한 해 재복을 얻고자 하는 주술적 심의에서 기인한 풍속이다.

설음식으로서 빠질 수 없는 것이 떡이다. 떡은 잔치나 명절을 뜻하는 대표 단수로 쓰일 만큼 중요하며, 그런 점에서 연중 가장 큰 명절인 설날에는 떡을 해서 차례 상에도 올리고 먹기도 한다. 주로 시루떡이 일반적이며, 인절미도 많이 하는 편이다.

예전에는 설에 세주라 하여 집에서 술을 담갔다. 주로 농주를 담그며, 청주



로써 차례를 지내고, 막걸리는 세배 온 사람들을 대접하기도 했다.

3) 도제(都祭)와 뱃고사

여수의 일부 마을에서는 도제라고 하여 정월 초 하루날 마을제사(洞祭)를 모신다. 바다에서 죽은 사람이 있는 가정에서 상을 한 상씩 내다가 바닷가에 놓고 무당이 주관하는 굿을 한다. 예전에는 도제가 흔했지만, 요즘은 현격히 줄어들고 있으며, 도제를 위해 상을 내오는 집의 수도 감소하고 있다고 한다.

배를 가진 사람은 선달 그림날 밤에 차례를 모신 다음에 따로 제물을 장만하여 두었다가 배에 차린 다음 가족끼리 나가서 절을 하고 제사를 모신다. 이것을 뱃고사 또는 용왕제라고 부른다.

2. 정초

1) 매구



▲ 매구

정초가 되면 예전에는 거의 모든 마을에서 매구를 쳤다. 여수지역에서는 주로 초사흘 경에 시작하는 곳이 많다. 풍물패가 갖추어지면 마을의 당산, 우물, 다리 등 공공의 장소에서 마을 굿을 먼저 치고 나서, 각 집을 돌면서 가정 굿을 친다. 마을의

원하는 집을 돌아서 모두 끝나면 판굿으로 끝을 맺는다.

가정굿을 치기 위해 굿패가 대문에 도착하면 상쇠가 장단에 맞춰 “주인, 주인, 문여소. 들어갈까 말까?” 하면 주인이 맞아들인다. 마루에 고사반을 마련한다. 고사반에는 쌀, 양초, 실 등을 얹는다. 매구가 끝나면 상위에 올렸던 쌀은 걷어간다. 이렇게 모아진 쌀은 마을자금에 보태 쓰게 된다.

2) 토정비결보기

지금은 보기 드물지만, 과거에 토정비결을 보는 것은 가장 성했던 풍속이다. 토정비결은 토정 이지함(李之函)이 만든 예언서다. 개인에 따른 점괘를 산출하여 보는데, 점괘의 산출방법은 대개 다음과 같다.

크게 태세(太歲), 월건(月建), 일진(日辰)으로 나누어 먼저 태세수에 나이를 합하고 이를 8로 나누어 남는 숫자를 첫 괘로 한다. 다음은 월건수에 태어난 월을 합하는데 큰 달이면 30을, 작은 달이면 29를 합하여 6으로 나누고, 거기에서 남는 수를 둘째 괘로 한다. 세 번째는 생일 숫자에 일진수를 합한 수를 3으로 나누어 남는 수를 마지막 괘로 한다.

이상 세 개의 괘를 차례로 합하여 책에서 같은 괘의 숫자를 찾는다. 일년 운과 월별 운이 나뉘어 있어 이를 읽고 그해의 길흉화복을 점치는 것이다.

3) 복조리와 엄나무걸기

정월 초하루에서 보름 사이에 조리 장사들이 마을을 돌면서 조리를 판다. 짝수로 구입해서 한데 묶어 부엌이나 안방에 걸어둔다. 복조리를 살 때는 값을 깎지 않는다. 값을 깎으면 복도 함께 깎는 것으로 믿기 때문이다.

역시 보름 전에 가시가 많은 엄나무(또는 병구나무)를 산에서 베어다가 방문 위에 걸거나 처마 밑에 끼운다. 귀신이 집에 들어오려 다가가도 가시에 놀라 들어오지 못한다고 믿는다.

4) 안택과 액막이

정초에 집안의 평안을 위해서 무당이나 독경을 하는 사람을 불러 제상을 갖추어 안택을 한다. 안택은 어느 집에서나 할 수 있지만, 특히 집안에 삼재가 든 사람이 있으면 “액막이(액막이의 역행동화) 또는 삼재막이를 한다.

액막이는 대개 허수아비를 만들어 그 속에 동전 몇 개를 넣어 길거리에 버리는 방식이 있고, 또 무당이나 점쟁이가 주관하여 삼거리에 짚을 깔고 그 위에 밥 3그릇, 나물 3그릇, 된장 3그릇, 소금 3그릇, 술 3잔을 놓아두고 비손이나 경문을 읽는다. 또 약식으로 명태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일곱 매듭을 묶은 명태를 대명대수(代命代數)를 한다고 삼거리에 파묻기도 한다.

또 다른 액막이 방법으로는 마루에 앉아서 바가지를 득득 긁어 소리는 크게 내는 것으로 정초에 이렇게 하면 전염병이 들어오지 못한다고도 하고, 또 예전 호랑이나 여우가 많았을 때는 무서운 동물이 침범을 하지 않았다 한다.

5) 부적붙이기

부적은 집안에 문제가 있으며 구입하여 일정한 곳에 보관하거나 벽 등에 붙인다. 정초에는 집안이 편안하기를 기대하는 뜻에서 부적을 구입하여 안방에 붙이며, 또 특별히 환자가 있거나 우환이 있으면 부적을 붙인다.

예전에는 마을에 글을 아는 사람이나 또는 점쟁이들이 써주기도 했지만, 요즘은 절에 가서 구입하는 예들이 많다.

6) 연날리기와 윷놀이



▲ 연날리기

정초에 남자아이들은 연날리기를 즐긴다. 대개 가오리연이나 방패연을 많이 만들어 날렸으며, 연싸움을 즐기기도 했다. 겨우 내 날리던 연은 대보름이 되면 멀리 띄워 보낸다.

또 남자들이 즐기는 정초의 놀이로는 윷놀이가 있다. 여수지역에서는 밤윷이라 하여 밤나무나 탕자나무 등 강한 나무줄기를 잘라 윷을 만들어 종지기에 담아서 던지는 방식이 많다. 윷놀이는 단순한 놀이로 즐기기도 하지만, 때로는 도박으로 번지기도 한다.

3. 입춘

1) 춘련(春聯, 春祝, 春帖子)

입춘날 각 가정에서는 대문과 기둥에 좋은 글귀를 써서 붙이는데, 이를 춘련이라고 한다. 이러한 풍속은 중국에서 유래된 것이다. 봄이 시작되는 날을 자연이 생동하기 시작하는 날로 여겼으며, 자연과 인생을 둘로 보지 않은 동

양적 관념에 기인하여, 각 가정에서는 입춘날에 집안의 운세를 돌을 양으로 이러한 춘련을 써 붙이는 행사를 하게 된 것이다.

글을 모르는 사람들도 글을 잘 하는 사람에게 부탁하여 춘첩을 마련해 붙이는 것이 통례다. 그러나 상중에 있는 집에서는 춘첩을 붙이지 않는다.

2) 보리뿌리 점치기

입춘날 아침에 보리밭에서 보리를 뽑아보아서 뿌리가 여럿 나있으면 그해 보리풍년이 들것이라 하고, 그렇지 않으면 흉년이 든다고 한다.

4. 대보름

1) 차례

각 가정은 설이나 추석과 마찬가지로 집안에서 차례를 모신다. 조상신은 물론이지만, 여러 가택신에 대해 따로 상을 차리며, 이날은 특히 외양간이나 곳간 등에도 상을 차린다. 또 농가뿐만 아니라, 상업이나 공업을 하는 사람들도 중히 여겨서 상점이나 창고, 또는 공장 등에 상을 차려 재복을 빈다.

대보름은 여러 가지 나물을 많이 마련하고 오곡밥을 해서 차례상을 차린다. 보름에는 가능한 한 많은 나물을 만들기 때문에 나물 명절이라는 말까지 있을 정도다.

산에서 채취한 것은 물론 밭에서 재배한 채소류에 이르기까지 나물을 할 수 있는 것이면 무엇이든 형편이 허용하는 대로 많은 종류를 풍성하게 장만한다. 보름에 나물을 먹으면 여름에 더위를 타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마을이나 집안에 따라 모시는 시간은 14일 저녁에 차례를 모시기도 하고, 15일 아침에 모시기도 한다. 도서지역에는 감실이 있으면 그 앞에 상을 차리기도 한다.

2) 밤새기

14일 밤에는 잠을 자면 눈썹이 하얗게 변한다는 말이 전한다. 아이들은 잠

을 자지 않으려고 밖에서 밤새 논다. 자는 아이가 있으면 눈썹에 밀가루를 뿌려 눌러주기도 한다.

3) 달맞이와 달 점치기

14일 밤에 달이 떠오르는 모습을 보기 위해 높은 곳에 오르기도 한다. 달을 보고 소원을 비는 사람도 있다. 달이 떠오르는 방향이나 색을 보고 풍흉을 점치기도 한다. 남보다 먼저 달이 뜨는 모습을 보면 소원이 성취된다고도 한다.

4) 논밭둑 태우기와 쥐불놀이



▲ 정월대보름 달집태우기

도 있었다고 한다.

14일 오후에 아이들이 논밭 둑을 태우면서 돌아다닌다. 해충이 없어진다고 믿으며, 아이들은 구멍을 뚫어 만든 강통에 나뭇가지를 넣어 불을 붙여 돌리면서 쥐불놀이를 즐긴다. 예전에는 이웃 마을과 햇불싸움을 했던 적

5) 더위팔기

보름날 아침에 아는 사람의 이름을 불러 대답하면 더위를 판다. 대답을 듣자마자 '내 더위' 하고 외치면 그해 여름에 탈 더위를 상대에 파는 것이라고 믿는다. 더위를 사는 사람은 더위뿐만 아니라 액운도 함께 산다고 믿는다. 아는 사람이 이름을 부르면 오히려 더위를 되팔기도 한다.

6) 뱃고사

바닷가 마을이나 섬마을에서 배가 있는 사람은 14일 밤에 차례를 모신 다음 따로 장만한 제물을 가지고 배로 가서 뱃고사를 모신다.

검은 돼지머리를 사서 쓰면 좋고, 생선 등 여러 가지 제물을 장만하지만, 송어는 쓰지 않는다. 배의 고물과 이물, 그리고 가운데에 각각 상을 차리고 절을 한다.

배가 크면 선원들도 함께 고사에 참여한다. 배서낭이 있을 경우는 고운 색깔의 옷을 장만하며 실과 미역을 바친다. 메밀범벅을 준비해 가서 바다에 뿌려주기도 한다. 도깨비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메밀범벅이라고 한다.

7) 액막이 연날리기

겨우내 가지고 놀던 연을 보름날 밤에 연실을 끊어 멀리 날려 보낸다. 액을 멀리 보내버리는 뜻이라 한다.

8) 오곡밥과 오곡밥 얻어먹기

14일 오후에는 오곡밥을 짓는다. 다섯 가지 곡식만 꼭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오곡밥은 나물과 함께 먹어야 한다고도 하고 김에 싸서 먹어야 한다고도 한다. 오곡밥을 먹을 때는 김치와 같이 매운 반찬은 함께 먹지 않는다.

아이들은 남의 집에서 오곡밥을 얻어다 먹는다. 혼자서 다니는 경우도 있고 여러 명이 어울려 다니는 경우도 있다. 얻어온 오곡밥은 절구통 위에 앉아서 먹는다. 세성반이가 있는 집에서 오곡밥을 얻어오면 좋다고 한다. 오곡밥을 얻어먹으면 부스럼도 생기지 않고 또 감기도 잘 걸리지 않는다.

9) 부럼깨기

보름날 아침에 밤이나 호두 등을 깨서 먹으면 그해 부스럼이 나지 않는다고 한다. 부드러운 대추로 대신하는 경우도 있다.

10) 소동줄놀이

아이들이 새끼줄을 가지고 집집마다 방문하며 노는 놀이로서 여수에만 남아있는 놀이이다. 소동줄 놀이가 끝나면 어른들은 이 소동줄을 모아서 대동줄을 만들어 즐다리기를 한다.



▲ 소동줄놀이

11) 줄다리기



▲ 줄다리기

요즈음은 거의 찾아볼 수 없는 풍속으로 약 30여 년 전에 없어졌다. 보름이 되면 마을에서 청년들이 각 가정의 짚을 걷어와 줄을 만든다. 마을이 작으면 외줄, 크면 암수로 쌍줄을 만든다. 보름날 낮부터 시작하여 승부가 끝날 때까지 마을사람 모두가 참여하여 즐긴다.

편을 가르는 방법은 여러 가지이며, 이긴 편이 그해 풍년이 든다고도 하고, 또 남녀로 편을 갈랐을 때는 여자 편이 이겨야 풍년이 든다고 한다.

12) 다리밟기

14일 밤에 마을 처녀들이 징검다리를 자신의 나이 수대로 건너면서 무명씨를 좌우로 뿌린다. 그러면서 자신의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다고 한다.

5. 월중

1) 됴술 마시기

보름을 쇠고 나면 20일 경에 머슴을 들일 사람은 주인과 머슴이 세경 등을 정하여 정식 계약을 맺는다. 이때 증인으로 주변 사람을 초대할 수도 있다. 계약을 하면서 주인과 머슴, 그리고 증인들이 합석하여 계약이 성립되었다는 뜻으로 술을 마시는데 이를 '됴술'이라고 한다. 머슴은 이 술을 마셔야 그해 속병이 나지 않는다는 속신도 있다.

2) 쑥국먹기

정월에 날씨가 따뜻해지면 쑥이 싹을 틔운다. 새 쑥을 뜯어다가 국을 끓여 먹으면 약이 된다고 한다. 정월에 쑥국을 세 번 끓여 먹으면 살이 찌서 문턱을 넘어서지 못한다는 말도 있다.

제2절 2월의 세시풍속

1. 하드렛날

1) 2월 함네(영등, 2월 함씨)

음력 2월 1일 날 영등할머니가 하늘에서 내려와 2월 9일, 14일, 20일에 세 번 하늘에 오른다고 한다. 영등할머니가 며느리와 함께 내려오면 그해 바람이 거칠고, 딸과 함께 내려오면 바람이 순조로워 좋다고도 하고, 며느리와 같이 오면 치마가 젖으라고 비가 오고, 딸과 함께 내려오면 치마가 펄렁거려 예쁘게 보이려고 바람이 분다고 한다.

영등할머니는 바람을 관장하는 풍신(風神)이기 때문에 바람이 생업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어촌에서 주로 모신다. 이는 서해안보다는 남해안에서 주로 크게 모셔지고 있는데 특히 여수지방에서 그 믿음이 돈독하다.

부엌이나 장독대에 황토를 쌓고 거기에 대나무를 세운다. 대나무는 대개 1m 이하의 크기며, 위쪽을 잘게 쪼개어 마치 깔대기 모양으로 엮어 만든다. 평소에 깨끗한 곳에 보관해 두었다가 영등달이 되면 내서 사용한다. 깔대기 모양 위에 정화수를 올려놓는다.

또 위쪽에는 여러 색깔의 형겅을 매달아둔다. 정성에 따라서는 매일 새벽 정화수를 갈고 비는 집도 있고, 날을 걸러 하는 집도 있다. 그러나 처음 영등할머니가 내려온다는 초하루와 올라간다는 스무날은 떡을 해놓고 정중하게 모신다. 특히 마지막 날 막손이라 하여 더 크게 모시기도 하며, 빌기가 끝나면 형겅 등을 태워버린다. 그해 바람이 순조로워야 바다 일이 잘되기 때문에 극진히 지낸다. 의성을 중심으로 초도에서는 장롱 문을 열어 놓는다.

2. 월중

1) 고로쇠물 마시기

경칩에는 약수가 된다고 해서 고로쇠 물을 마신다. 지금도 지리산이나 광



▲ 2월 함네

양에 째짤한 건어물을 가지고 백운산에 가서 고로쇠 수액을 마신다.

2) 꿩알 줍기

봄에 양지바른 곳에서 꿩알을 줍는 수가 있다. 그리 흔한 일은 아니기 때문에 꿩알을 주우면 그해 풍년이 든다는 믿음이 전한다.

3) 무덤 쓰지 않기

2월에 초상이 나면 무덤을 쓰지 못하고 초분을 해둔다. 2월을 '남의 달' 또는 '남의 땅' 이라고 해서 묘소를 쓰지 못한다.

이 달은 영등할머니가 내려오기 때문에 극히 조심을 해야 하며, 이 달에 땅을 파면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난다고 믿는다.

제3절 3월의 세시풍속

1. 삼진날

1) 제비집 보기

3월 3일을 삼진날이라고 한다. 이날에는 강남 갔던 제비가 돌아온다. 새로 제비집을 짓는 것을 보아 거칠게 지으면 바람이 많고, 영글게 지으면 바람이 적다고 한다.

2) 호박심기

삼진날에 맞춰 호박을 심는다. 강남 갔던 제비가 박씨를 물고 돌아온다고 해서 이날 호박이나 박 씨를 심으면 잘 된다고 한다.

2. 월중

1) 산일하기

한식과 청명 때는 손이 없는 날이라 하여 주로 묘소를 손보는 일을 많이 한다.

2) 풀피리 불기

주로 아이들이 새로 물이 오른 버드나무껍질을 둥글게 뽑아내서 피리를 만들어 불며 논다. 보릿대를 뽑아서 풀피리를 만들기도 한다.

3) 화전놀이

진달래가 필 무렵 마을사람들이 마당이 넓은 집에 모여 화전도 붙여먹고, 음식을 장만해서 하루를 즐겁게 논다. 근래에는 관광버스를 전세내서 놀러 다니기도 한다. 마을에 따라서는 음력 4월 들어서 하는 곳도 있다.

제4절 4월의 세시풍속

1. 초파일

1) 절에 가기

4월 8일은 초파일이다. 이날은 가까운 절에 간다. 꼭 불교신도가 아니더라도 초파일에는 절에 가서 공을 드리는 사람들이 많다. 절에 가서 연등을 달기도 하고, 쌀을 가져다가 시주를 하기도 한다. 또 탑돌이를 하면서 소원을 비는 사람도 많다. 이날은 절에 가서 꾸밈하게 장만한 절 음식을 즐기기도 한다.



▲ 4월 초파일

2. 월중

1) 쑥국 끓이고 쑥떡 해먹기

봄에는 쑥을 뜯어다 쑥국도 끓여먹고 또 쑥떡을 해먹기도 한다. 예전 춘궁기 때는 “봄 절편은 큰 애기(처녀)와도 바꾸지 않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였다.

제5절 5월의 세시풍속

1. 단오

1) 머리감기

5월 5일은 단오다. 단오 날 창포를 삶은 물에 머리를 감는다. 머리가 윤기가 있고 부드러워진다고 하여 주로 여성들이 창포물에 이날 머리를 감았다. 창포를 삶을 때는 속을 함께 넣어 끓이기도 하는데, 이렇게 하면 얼굴이 고와진다고 한다. 또는 여름에 더위를 타지 않는다고도 하며, 얼굴에 버짐이나 땀띠가 나지 않는다고도 한다. 일부러 잿물을 내서 감기도 한다.

2) 그네뛰기

여성 놀이로서 그네뛰기가 있다. 가로 뿔은 나뭇가지나 기둥을 양쪽으로 세워 그네줄을 매고 그네를 뛰게 된다. 그네는 한 사람이 뛰거나 두 사람이 한 조가 되어 탄다. 높이 치솟아 오르는 모습이 무척이나 고와서 옛날부터



▲ 그네뛰기

이에 관한 시가 많으며, 또 이에 얽힌 이야기도 적지 않다.

3) 익모초 즙 마시기

풀은 단오를 기준으로 약성이 최상이기 때문에 익모초 등을 짜서 즙을 먹으면 만병에 좋다하여 마신다.

4) 약쑥 말리기

쑥을 뜯어다가 단오 날 새벽에 이슬을 맞혀 말리면 약쑥이 된다고 한다.

제6절 6월의 세시풍속

1. 유두(流頭)

1) 차례

6월 보름은 유두다. 유두를 명절로 쇠는 마을이 있다. 이런 마을에서는 간단히 제물을 장만하고 새로 난 과일들을 준비하여 조상께 차례를 올린다.

특히 이때는 밀농사가 끝나는 때이므로 밀떡을 만들어 성주상에 놓아다 나누어 먹는다. 명절이기 때문에 일꾼들은 하루를 쉰다.

2) 논고사

이날은 논고사 또는 용왕제라 하여 간단히 떡을 장만하여 논이나 밭가에 두고 농사가 잘되기를 빈다.

이렇게 하면 농사가 잘되며 병충해가 없다고도 한다. 칠월 백중에 논고사를 모시는 마을도 있다.

2. 월중

1) 씨레씻이(씨레지침)

논매기가 끝나는 철이다. 마을의 부잣집에서 마지막 논매기를 끝내면 마을 사람들을 대접하고 또 머슴을 위로하기 위해 술과 음식을 장만하여 대접한다. 이를 '씨레씻이'라고 하는데, 만약 주인이 해주지 않으면 머슴들끼리 추렴해서 음식을 준비해 나누어 먹는다.

2) 복날

뚜렷한 명절은 아니나 6월에는 복날이 있다. 하지로부터 셋째 경일(庚日)이 지난 날이 초복이고 다시 10일이 지나면 중복, 여기에서 열흘이 다시 지나면 말복이 된다.

말복은 월복하여 중복으로부터 20일째 되는 날일 수도 있다. 초복에는 벼가 한 살, 중복에는 두 살, 말복에는 세 살을 먹어 배동을 한다고 한다.

복날에는 '복다름'이라 하여 부모님을 대접하며, 남자들은 이날 보신을 한다고 하여 개를 잡아먹는다. 속담에 복날 개 패듯 한다는 속담은 여기에서 유래했다.



제7절 7월의 세시풍속

1. 칠석

1) 까치밥주기

7월 7일은 칠석이라 하여 아침나절 대문간에 짚을 깔고 밥과 나물 몇 가지를 차려놓는다. 칠월칠석의 전설에 나오는 까치를 위한 밥이다.

2) 우물고사

이날은 마을의 공동우물을 깨끗이 품어내 청소를 하고 소독을 한다. 술과 음식을 장만해서 놀기도 한다.

3) 갯고사

칠석날 아침에 간단한 제물을 준비해서 본인이 마음에 드는 바닷가에 가서 진설하고 비손을 한다. 바다 일을 생업으로 하는 집에서만 갯고사를 모신다.

4) 진세내기와 손두둠

세 살 된 아이가 있는 집들에서 음식을 장만하여 마을사람들을 대접한다.

또 품앗이나 두레를 할 때 정식 일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손두둠'이라는 의식이 필요한데, 나이 17에서 20세쯤 되는 장정이 있는 집에서 음식을 내와서 마을사람들을 대접하고 정식 한 품삯으로 인정을 받는다. 백중 때 이러한 놀이를 하는 마을도 있다.

2. 백중

1) 차례

7월 보름은 백중이다. 온갖 곡식이 마련되는 때라서 백중(百種)으로 적기도 한다. 백중은 일 년을 반으로 나눌 때 처음 시작되는 달이 있기 때문에, 대보름을 상원이라 부르는 것에 반해서 중원이라고 한다. 농가에서는 여름농한기에 들어 하루를 쉬며 논다. 각 가정에서는 대보름과 마찬가지로 오곡밥을 하고 제물을 장만하여 조상에게 차례를 올린다.

마을에 따라서는 차례를 모시는 대신에 떡을 해서 나누어 먹는다. 백중을 '개떡명절'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많은 가정들이 백중에는 개떡을 해먹고 하루는 쉰다.

2) 품앗이 짜기

백중 때 일꾼들이 하루를 쉬는 대신 모여서 이후의 농사 일정을 논의하며, 퇴비 마련을 위한 품앗이를 짠다. 백중이 지나고 나면 풀을 베서 퇴비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품앗이를 할 때는 힘을 쓰는 정도에 따라, 대동, 중동, 소동으로 나눈다. 품앗이가 짜지면 풀베기를 시작해서 8월 초순이나 늦어도 추석 전에 끝낸다. 비료가 보급되면서 없어진 풍속이다.

3. 월중

1) 만경놀이(만들이)

전에는 백중을 전후하여 농촌에서는 만들이[장원례 : 壯元禮]를 하였다.

그해 농사가 가장 잘된 집에서 마지막 논매기가 끝나면 그집 머슴을 소에 태우고 풍물을 울리면서 주인집에 들어간다. 주인은 술과 안주를 내어 일꾼들을 대접하며 마을 사람들과 함께 밤이 짧다고 논다. 여수에서는 만경놀이라 한다.

2) 들돌 들기

마을마다 당산나무 밑에는 들돌이 있었다. 칠석이나 백중 때 당산거리에 모여 놀면서 힘자랑을 하느라 들돌을 들어보이기도 하면서 노는 풍속이 있었다.

지금은 들돌이 거의 없어져버렸으며, 그것을 들어 보일만한 장정들도 시골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3) 별초

7월 중순부터 시작하여 말까지 한다. 8월에 별초를 하면 좋지 않다고 한다. 집안에 따라서는 별초를 하기 전에 앞에 술잔을 따르고 시작하기도 한다.

제8절 8월의 세시풍속

1. 추석

1) 차례와 성묘

팔월 보름은 한가위다. '더도 덜도 말고 이날만 같아라' 라고 하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가장 풍성한 시기에 쇠어지는 명절이 추석이다. 추수감사제적인 성격이 짙다.

추석이 되면 빈부를 막론하고 송편을 빚는다. 송편은 추석의 대표적인 음식이다. 햅쌀로 송편을 빚고, 온갖 과일을 장만하여 조상께 차례를 올리는데, 어느 명절보다도 풍성하게 장만한다. 차례를 모시고 나서 성묘를 한다.



▲ 성묘

2) 달마중

달 뜨는 것을 맨 먼저 보면 재수가 있다하여 달 뜰 무렵이면 동쪽 산위를

바라보고 기다리면서 소원을 빌기도 한다.

3) 씨름

추석 때가 되면 일꾼들이 돈이나 상품을 걸고 씨름판을 벌인다. 돈이 많이 모이는 큰판에서는 송아지를 사서 상품으로 내걸기도 한다. 젊은 사람들이 마을 어른들의 허락을 받아 판을 벌이면 인근 마을에서도 선수들이 출전하여 힘겨루기를 한다.

4) 강강술래

수 십 명의 동네 아낙네들이 밝은 달밤에 손에 손을 잡고 둥글게 원을 돌아,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설소리와 받음소리가 흥을 한층 돋으며 밤 깊은 줄을 모르고 계속되는 놀이로, 강강술래는 주로 둥근 원을 그려 추는 춤으로 달의 모습을 모방해서 추는 것이라고도 하고, 곡식의 영근 모습을 의사한 것이라고도 한다.



▲ 강강술래

제9절 9월의 세시풍속

1. 월중

1) 철나무하기

추수를 거의 마무리 하고 나면 겨울을 나기 위해 철나무를 하여 집으로 옮긴다.

제10절 10월의 세시풍속

1. 시제 모시기

10월 달에는 민속적으로 특별한 명절은 없다. 하지만 이달은 상달이라 하여 중히 여기며, 다른 달에 꺼린 일을 이달에 하게 되면 탈이 붙지 않는다고 한다.

또 10월 달에는 문중 단위로 시제를 모신다.

2. 도신행사

종가 집에서는 조상단지나 철룽단지에 새로 수확한 햅쌀로 천신을 한다. 이때 대문에 금줄을 치고 황토를 깔아 잡인의 출입을 금한다. 가정에 따라서는 무당이나 점쟁이를 불러 도신을 하는 집도 있다.

제11절 11월의 세시풍속

1. 동지

1) 작은 설 쇠기

동지는 양력으로 12월 22일에 해당하는데 음력으로는 11월을 동짓날이라고 한다.

동지는 작은 설 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동지를 주나라 때 세수(歲首)로 삼았던 데서 유래된 이름이라 한다. 동지 팔죽을 먹어야 한 살을 더 먹는다고 하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도 않은 듯 싶다.



▲ 팔죽

2) 팔죽 쑈기

동지 팔죽은 찹쌀가루로 새알 모양의 경단을 만들어 팥을 삶아 거른 물에 끓인 것이다. 이는 붉은 색이기 때문에 축귀력이 있는 것으로 믿어졌다. 팔죽을 쑤어 조상께 올리고, 대문, 부엌, 벽, 마당, 담장 등에 뿌려 잡귀의 출입을 막는다.

2. 월중

1) 초가집 이기

농사가 다 마무리되고 나면 짚으로 이엉을 엮어서 초가집을 인다. 예전에는 거의 초가집이 많았기 때문에 11월이 되면 바빴다. 그리고 여수 거문도에 사는 논농사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배로 녹동, 강진, 장흥에서 짚을 사서 이엉을 엮었다.

제12절 12월의 세시풍속

1. 선달 그믐

1) 수세하기

선달 그믐날을 제석 또는 제야라 한다. 이때는 수세를 한다고 하여 날을 새며, 또 집안에 불을 밝혀 둔다.

2) 머슴 보내기

지난 1년간 고생을 한 머슴을 자기 집으로 돌려보낸다. 이때 한해의 세경을

모두 결산하고 선물을 주어 보내기도 한다.

3) 빗 갚기

그믐이 되면 혹시 빗이 있는 사람은 이날까지 갚는 것으로 했다. 원금 갚기가 어려우면 이자라도 이날 보냈다.

제13절 윤달의 세시풍속

공달이라고도 부르는 윤달에는 무슨 일을 해도 좋다고 해서 평소에 꺼리는 일을 하게 된다. 조상의 묘소를 고치는 일이나 탈이 날까 미루어 두었던 집고치기도 이달에 한다. 또 수의를 지어 마련하는 일도 윤달에 하는 경우가 많다.

참고문헌

- 나경수·서해숙 외, 『여수시 마을굿 - 호남마을굿총서(9)』, 민속원, 2008.
 나경수, 『광주·전남의 민속연구(한국민속문화총서3)』, 민속원, 1998.
 이광렬, 『우리나라 세시풍속』, 청연, 2005.
 임동권, 『한국세시풍속연구』, 집문당, 1989.
 정승모, 『한국의 세시풍속』, 학고재, 2001.

제 2 장

민간신앙

서 해 숙 (전남대학교 교수)



제1절 무속신앙

1. 무부들의 조직 신청과 세습무

여수는 전통적으로 세습무의 활동이 활발했던 곳이다. 남도의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세습무 이외에 강신무 계열의 점쟁이들도 있었지만, 점쟁이는 점을 치거나 비손을 하는 정도에 머물렀고 세습무가 정통무로 인정을 받았다.

여수는 예나 지금이나 어업활동이 왕성한 곳이므로 용왕굿과 풍어굿이 많았고 철따라 개인 단위의 뱃고사도 많이 지냈다. 또한 마을의 평안을 비는 당산굿도 당골들이 맡아 지내는 경우가 많았고, 각종 씻김굿도 많이 이루어졌다.

여수의 세습무계는 1970년대까지만 해도 10여 개의 당골판이 있었으며,

무부들의 조직체인 신청(神廳)·악공청(樂工廳)이 남아 있었다. 신청에는 100여 명의 선생안이 봉안되어 있으며 매년 주요 명절에 제사를 지내고 있다. 1980년대 이후 무부들의 대동계가 해체되고 신청의 마지막 대방이었던 방종선 웅만이 남아 옛 신청 건물을 관리했다. 지금은 그의 후손들이 선생안 제를 모시고 있다.

여수의 세습무계와 관련해 특별히 주목할 점은 신청·악공청이다. 신청은 무부들의 집합체로서 자신들의 결속을 도모하고 관청의 각종 행사에서 음악과 연희를 담당하던 기관이다. 지역에 따라, 악공청·재인청·공인청 등으로 다양하게 불렸다. 이 조직은 조선시대에 각 군·현에 있었으며, 지방 관아의 공적 활동과 관련을 맺고 있어 별도의 건물이 있고 공식 문서를 구비했다.

여수에는 악공청이 있었다.⁷³⁾ 여수 악공청은 1939년에 중수되었는데, 이는 조선시대 전라좌수영 소속 취방(吹房)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건물 중수 이전의 무진년(1928년) 선생안의 존재로 볼 때, 본래 있던 악공청이 해체되었다가 나중에 중수된 것으로 여겨진다. '악공청수혜서(樂工廳樹惠序)'(전라남도 민속자료 제45호)라는 현판을 통해 여수 악공청의 성격을 추정해 볼 수 있다.

73) 이경연, 「여수 영당, 풍어 곳, 악공청」, 민속원, 2007.

更張 이래로 지금까지 악공의 대업이 오랫동안 적요한 나머지, 비록 잔약한 무리지만 어찌 감흥이 없을 수 있겠는가. 이런 까닭에 이제 악사를 만들고 몇 칸의 작은 집을 사서 쉼하는 곳으로 삼았다.(하략)

이 기록을 보면 '경장(更張)이래로 지금까지 악공의 대업이 오랫동안 적요'했다고 적고 있다. 경장은 지방제도가 정비되는 갑오개혁을 말한다. 이 일을 계기로 악공들의 조직이 해체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1894년 이후 악공대업(樂工大業), 즉 기존의 공식적인 활동이 중단되지만, 음악인들의 활동 자체가 끊긴 것 같지는 않다. '비록 잔약한 무리지만 어찌 감흥이 없을 수 있겠는가'라는 말에서 그것을 엿볼 수 있다.

무진년(1928년)에 만들어진 선생안과 다른 현판의 존재로 볼 때 무부들의 활동이 지속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런 활동을 토대로 갑오경장(1894년) 이후 45년 만에 '악사(樂社)를 만들고 작은 집을 사서 연습하는 곳'을 만들어 여수 악공청을 재건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악공청수혜서의 방명록에는 여수의 명망가 8명의 이름이 기록돼 있는데,

지역사회의 후원을 받아 악공청이 재건되었음을 말해준다. 악공청이 기존의 공식적 활동을 승계한 조직체로서 인정받았음을 말해준다. 이것으로 볼 때 악공청은 전라좌수영의 악공 활동과 관련된 조직이라고 할 수 있고, 일제 강점기에도 그 활동이 지역사회를 지지 받으며 전승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여수 악공청에는 두 점의 선생안(先生案)이 봉안돼 있다. 간지가 없는 선생안과 무진년(戊辰年) 선생안이 그것이다. 이 자료를 통해 여수에서 활동했던 무부들의 면면을 파악할 수 있다. 두 선생안에서 중복되는 이름은 56명이다. 자료①의 22명과 자료②의 15명(3명은 삭제)은 중복되지 않는 이름이다. 이들 이름 중에는 돌림자로 짐작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친족 관계에 있는 인물들이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1) 무간지 선생안

○ 크기 : 가로 65cm, 세로 230cm, 두께 13cm

○ 형태 : 나무를 안에 가로로 세 줄의 나무 위패가 정렬돼 있다. 앞에는 위패들을 가릴 수 있도록 네 개의 미닫이가 달려 있다. 맨 윗줄에는 27개의 위패가 있고, 중간 줄에 32개, 아랫줄에 19개, 전부 합해서 78개의 위패가 있다.

〈표 19〉 악공청 선생안①의 명단

	金	金	劉	陸	朴	陸	李	申	金	鄭	金		金	朴	韓	朴	金	李	朴	金	韓	洪	金	朴	李	申				
	世	仲	勝	千	億	奉	車	金	京	福	有		三	寬	根	捌	達	昇	永	用	石	文	聖	標	應	宗	敬			
	○	○	○	○	○	○	○	○	○	○	○		○	○	○	○	○	○	○	○	○	○	○	○	○	○	○			
金	金	金	朴	金	李	徐	申	金	申	金	金	郭	吳	金	金	劉	金	洪	金	劉	李	朴	朴	金	金	金	李	朴		
東	申	必	相	必	奉	明	允	長	連	永	小	長	黃	原	學	順	明	基	萬	千	桂	權	在	在	龍	性	白	洪	正	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李	金	李	方	李	金	李	洪	吳	陸	金	郭	金	陸	郭	金	趙	趙										
			奉	萬	桂	白	輔	相	陽	基	能	永	基	學	寬	性	大	仲	達	捌	福									
			○	○	○	○	○	○	○	○	○	○	○	○	○	○	○	○	○	○										

2) 무진년(戊辰年) 선생안

○ 크기 : 가로 68cm, 세로 180cm

- 형태 : 나무 현판이다. 흰 바탕에 가로 두 줄로, 이름을 써넣었다. 테두리에는 붉은 색 물감으로 문양을 넣어 장식했다. 오른쪽에 '戊辰年十一月二十七日 先生案' 이란 제목이 써여 있다. 무진년은 현판의 상태로 볼 때 1928년인 것으로 짐작된다.
- 내용 : 윗줄에는 38명, 아랫줄에는 33명, 총 71명의 이름이 적혀 있다. 그런데 윗줄 2명과 아랫줄 1명의 이름이 지워져 있다. 해당 인물의 후손들이 선조의 무속활동을 창피하게 여겨 그 흔적을 없애기 위해 지운 것이라고 한다.

〈표 19〉 악공청 선생안①의 명단

李春	金世	金仲	劉勝	李勝	李學	李學	李輔	金性	李性	郭黃	郭鳳	鄭鳳	李柱	洪基	洪在	석재	석재	金相	李隔	李萬	李柱	金明	郭大	金平	金連	金白	李屏	金三	金有	金永	洪聖	金德	鍾石	戊辰年十一月二十七日 先生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金學	金基	吳能	金貫	陸性	林權	林永	林連	鍾根	陸春	金京	劉干	李正	全龍	李弘	李寬	林寬	林在	林在	林應	李文	李宗	趙福	趙福	金申	林德	金選	金必	金宗	○	○		

선생안에 등재된 인물들은 여수의 세습무계 무부들이다. 이 중에서 여수 신청의 마지막 대방이었던 방중선의 가계와 그의 처가 가계를 통해 여수지역 세습무의 생활사를 추정해볼 수 있다.

〈표 1〉 여수 악공청 대방 방중선의 가계(△남, ○여, ▲, ●은 무계 관련)

▲方在根 = ●吳鶴岳 (?~1921) (?~?)	
▲方百允 = ●朴太心 (1896~1944) (1898~1960)	▲方吉弘
▲方種善 = ●吳春心 (1920~1993) (1928~?)	방중선 3남 2녀중 장남
●吉順 △採珍 ○吉子△吉成 ▲吉永=盧權任 △吉石 △吉由	

방씨 가계는 여수의 대표적인 세습무계이다. 이들의 선대는 인근 남해에서 살다가 여수로 이주한 것으로 전한다. 방백윤은 국악에 종사하면서 부인과 더불어 굿을 했다. 그는 피리, 대금에 능했다고 한다. 방백윤은 악공청의 선

생안에 이름이 등재돼 있다. 부인 박태심은 여수 돌산 둔전 출신이다. 그리고 그의 동생 방길홍도 당골곳의 짬이로 활동했다.

여수 신청 마지막 대방이었던 방종선은 북과 노래에 능했으며 말년에 이발업을 하기도 했다. 부인 오춘심은 고흥 세습무계 출신인데, 세 살 때 부모를 따라 여수 동정(현 동산동)으로 이사와 살았다. 자녀들이 부르는 이름은 춘자다. 오춘심의 형제들은 모두 여수에서 무업에 종사했다.

방종선의 뒤를 이어 신청을 관리한 이는 방길영(1955~1994)이다. 그는 무업에 직접 종사하지는 않았으나 풍물패 활동을 하면서 장구를 쳤다. 부인 노권임(1961~)의 친정은 보성 벌교다. 그녀의 부모는 지금도 벌교에서 무업을 하고 있다. 노권임은 결혼 후 시부모와 함께 살면서 악공청 제사에 필요한 제물 준비를 하고 남편이 사망한 후 악공청 관리를 맡고 있다. 그녀는 무업과 상관없이 식당일을 하고 있다.

방길순(1945~)은 방종선의 장녀다. 어린 시절부터 여수국악원에서 오창영 선생에게 판소리를 배웠다. 결혼한 이후로 음악 활동을 중단했다. 그녀는 27세에 결혼하기 전까지 부모님이 악공청에서 절기마다 올리는 제사를 봤기 때문에 관련 내용을 잘 기억하고 있다. 2005년에는 추석 제사에 참여해서 율계와 함께 제사를 지냈다.

방종선의 처가 역시 무계다. 장인인 오부용은 악공청을 중수할 때 발기인으로 참여한 사람이다. '악공청수혜서'에서 그의 이름을 볼 수 있다. 오씨 가계를 보면 아래와 같다.

〈표 2〉 방종선 처가의 가계 (▲, ●은 무계)

▲오능국 = ●조이동			
▲오부용 = ●김관덕			
▲진수 = ●한씨	●시순 = ▲김달삼	●두지 = ▲김현종	●춘심 = ▲방종선
덕충동	종화동	만성리	동산동(악공청 대방)

오부용의 부친 오능국은 고흥 동강에서 1900년대 초에 여수로 이주해왔다. 오능국은 여수 이주 이후 무업을 포함해 국악 활동을 활발히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의 이름이 악공청 선생안에 등재돼 있는 것으로 보아 그런 추정이 가능하다. 본래 오씨 가계는 고흥의 대표적인 세습무계다. 유명한 고수 오성삼과 명창 오창영 등이 오씨 가계 출신들이다. 오창영은 여수 국악원 원장을

했다. 그리고 가야금병창으로 유명한 오탈석도 이들과 관련이 있다.

오부용은 1남 3녀를 두었는데 자녀들이 모두 여수에서 무업에 종사했다. 큰 아들 진수는 피리 명인으로 이름이 높았다. 세 딸은 모두 무계 출신 남자와 결혼해서 무업을 이었다. 자녀들은 덕충동, 종화동, 만성리 등의 '짜단'(당골판)을 갖고 있었다.

큰 사위인 김달삼은 여수에서 이름난 국악인이었다. 김달삼에 대해 방길순은 “김달삼 이숙이, 쇠로서는 저기 호남일대에서 일인자였어. 쇠로서는 그 당시 호남에서는 최고였어.”라고 말한다.

악공청에 참여한 사람들은 모두 세습무계 무부들이었다. 여수에 무계가 몇 집안이 있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선생안에는 100여 명의 이름이 나온다. 위에서 살펴본 방씨와 오씨 가계의 사례에서 보듯이 이들은 혈연관계로 연결되어 있었다. 그들은 대대로 무업을 전승했으며, 지역의 전통예술 전승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한편, 1950년 전국의 당골과 점복업자가 모여 '경신회'를 조직하고 1971년 '대한승공경신연합회'로 이어지기도 했다. 1980년 여수지역에는 강신무가 86명, 세습무가 21명 정도 있었고, 2009년 정확한 통계가 없으나 대략 100여명 정도가 활동하고 있다.

2. 풍어굿

여수는 바다를 끼고 있는 지역이므로 예로부터 만선과 풍어를 비는 풍어굿이 많았다. 대표적인 사례로 영당 풍어굿을 들 수 있다.⁷⁴⁾ 영당에서는 매년 춘추로 제전이 펼쳐졌고, 영당 앞을 지나는 배들은 고사미를 내고 고사를 지낸 후에 출어하는 풍속이 있었다. 바다의 수호신으로 받드는 정성이 각별했던 것이다.

또한 1962년 기록을 보면, 영당 옆 뜰에서 벌어진 성대한 '계(禊)노리'를 들으며 “그 성황은 아직도 이곳 시민들의 기억에서 사라지지 않고 있다.”고 적고 있다. 영당의 굿놀이가 여수 사람들의 성대한 축제였음을 짐작하게 해준다.

1943년에 일제에 의해, 영당에 모셔진 이순신을 비롯한 4위의 영정이 훼손되고 영당의 굿놀이가 금지됨으로써 전승이 위축되었지만 당시까지 축제적 면모를 지닌 행사로 전승되었음을 알 수 있다.

74) 이경연, 『여수 영당, 풍어굿, 악공청』, 민속원, 2007.

영당과 영당에서 벌어진 굿놀이는 해양축제의 지속적 전통을 말해준다. 해양축제의 전통은 우리가 새롭게 해석하고 수용할 문화자원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해양문화가 주목받는 추세이므로 해양축제 전통을 새롭게 회복할 필요가 있다. 특히 2012년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도, 해양문화의 지속적 전통 중의 하나인 영당과 풍어굿을 소중한 전통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

1) 영당의 유래

영당은 이순신을 모신 제당으로 유명하지만, 영당이 성립될 때에는 주민들의 민간신앙 형태의 하나였다고 전한다. 영당이 자리한 당머리(堂頭)와 봉산리(지금의 남산동), 국포리(지금의 국동) 일대는 고기잡이를 주로 하는 어촌인데, 이 지역 어민들이 어로의 안전과 풍어를 빌기 위해 당을 건립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순신 이전에 영당에 모셔진 신격은 최영 장군이라고 한다. 영당의 유래를 전하는 향토지를 보면 “고려 충신 수사 최영의 영정을 안치하여 오다가 조선조에 이르러 충무공 이순신을 주신으로 충신 정운, 이대원 양위의 영정도 같이 모시게 되었다.”고 말한다.⁷⁵⁾ 그밖에 자료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오며 주민들의 구전도 비슷하다.

이순신을 영당에 모시게 된 것은 그가 노량해전(1598년)에서 순국한 후라고 한다. 영당에 모셔진 이순신은 민간신앙의 대상으로 전승되었다. 영당의 이순신은 유교적 이념을 중시하는 사당 추존과 달리 어로의 안전과 풍어를 축원하는 신앙의 대상으로 자리 잡았다. 영당에서는 춘추로 제전이 벌어졌으며, 영당 앞을 지나는 배들은 고사미를 내고 고사를 지낸 후에 출어하는 풍속이 있었다고 한다. 바다의 수호신으로 받드는 정성이 각별했다는 것이다.

영당과 영당의 제의는 19세기 후반 이후 기록에 자주 등장한다. 여수군수 오홍묵의 ‘이충무공영당치제문(李忠武公影堂致祭文)(1897년)’과 『여수지』(1902년)의 기록으로 보아 관아의 지원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1927년 『동아일보』에는 여수 문화유적의 하나로 ‘장군영당’이 소개되기도 한다.

영당 제의는 제답이 따로 있어 지속적으로 전승될 수 있었다. 토지대장(1915년)에 ‘충무공제사단재산(忠武公祭祀團財產)’이라고 기재돼 있다.

영당은 일제강점기인 1943년에 일제에 의해 훼손되었다.⁷⁶⁾ 당시 영당에 모셔진 4위의 영정 가운데 최영, 정운 화상은 소실되고, 이대원의 화상만 남

75) 김낙원 편저, 『여수향토사』, 향토문화사, 발행, 1962.

76) 『장라남도 여수읍지』(1962)에서는 “임오년(1942)에 일제가 폐지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고 이순신의 화상은 행방을 알 수 없게 되었다고 한다. 1960년도에는 여수 신청 사람들에 의해 영당이 재건되었다. 1975년에는 일제 때 영당 대지 소유권을 획득한 이우현이 대지를 여수시에 기부했다. 그러나 1976년에 어항단지 조성 계획에 따라 영당이 철거되었다.

1979년도에 '영당풍어굿보존회'가 창설되면서 풍어굿을 재현할 수 있게 되었다. 정홍수가 중심이 돼 (사단법인)향토민속문화보존회를 만들어 정부에 영당 복원을 요청하고, 1982년도에 원양어업조합 협찬 2000만 원, 시비 1000만 원을 지원받아 현재의 영당을 복원하게 되었다. 영당 복원 이후 거북선대축제 기간에 영당풍어굿을 하고 있다.

1991년도에는 제32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1994년에는 최영, 이순신, 이대원, 정운, 산신, 용왕 등 6위의 영정을 봉안했다.

2) 영당 풍어굿

영당은 어민들이 수시로 찾아와 어로안전을 비는 곳이다. 이곳에서는 매년 성대한 풍어굿이 연행되고 있다. 2001년 5월 6일에 연행된 풍어굿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살펴 보기로 한다.



▲ 영당풍어굿

영당풍어굿은 열두거리를 중심으로 연행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실제 12개의 굿거리가 있는 것은 아니며 상황에 따라 신축적으로 진행된다.

(1) 유교풍 의례

첫 번째 풍어제의는 유풍의례로 연행된다. 의례집행자는 대개 지역의 기관장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이때는 삼현육각 반주가 곁들여진다.

(2) 무용공연

두 번째는 무용공연을 한다. 진양염불과 천근소리를 배경음악으로 삼아 무용공연이 이루어진다. 다만 이것은 본래의 해신제나 갯제의 형식에서 우러나 온 것이 아니라, 공연 중심의 풍어굿이 자리를 잡게 되면서 끼어든 절차로 보인다.

남도지역의 무굿이나 당제의 연행에서는 대개 무용이나 장기자랑이 제석굿 중에 포함되거나 후반부로 배치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는 초반부에 연행되는 셈이다. 이것은 유품의례인 제의를 끝내고 자리를 정돈하거나 굿판을 정열하기 위한 방편이라고 생각한다.

2001년에는 무용수 5명이 영당 마당의 한가운데서 모형배와 지전을 들고 춤을 추었다.

(3) 선부리

본격적으로 당골들에 의해 굿이 시작되는 절차다. 당골은 순천의 박경자 무녀 일행들이다. 당골은 고깔을 쓰고 홍색 쾌자 복식을 갖추고 손에는 지전을 들고 연행에 나선다. 주무는 정쇠를 들고 오른편에 서고 나머지는 그 옆에서 신칼과 정쇠를 들고 굿을 연행하였다. 조무들은 곁에서 신칼을 들고 춤을 추거나 정쇠를 두드리면서 가창을 보조하거나 바라지하는 역할을 한다.

(4) 제석굿

제석굿은 제석신에게 복과 제물을 축원하는 굿거리다. 제석맞이, 중타령을 통해 제석신의 모습을 묘사하고, 제석풀이를 통해 신의 내력을 풀어낸다. 그리고 복덕과 재수를 관장하는 제석신을 청배해서 떠들썩한 잔치판의 분위기를 펼쳐간다. 무녀는 굿판에 참여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풍어와 어로안전을 빌고 명과 재수를 받아가라고 축원한다.

(5) 풍물 및 거문도 뱃노래 공연

여수농악과 거문도뱃노래는 지역에서 이름난 민속예술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공연을 삽입한 것은 축제적 분위기를 돋우고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6) நீ울리기

물에서 빠져 죽은 영혼들을 위로하고 달래주기 위해 혼맛이를 하는 절차다. நீ울 모셔서 저승 천도를 축원한다.

(7) 곶풀이

영당 풍어굿에서의 곶풀이는 대개 공연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배김소리를 하는 이는 김향순(전라남도지정 무형문화재 제29-1호)이다. 영당풍어굿의 곶풀이는 대개 김향순과 그 제자들이 담당하고 있다. 이들은 성주풀이를 비롯한 전통민요와 전통춤을 공연한다. 안무는 대개 고를 가세치기로 엮기도 하고 풀기도 하면서 춤추는 자세로 짜여져 있다.

(8) 길뒹음

영당 마당 쪽으로 길게 질베를 잡고 길뒹기를 한다. 당골들은 2개의 நீ당 삭을 들고 무가를 구연하고, 악사는 장구를 둘러메고 당골들의 무가에 바라지를 한다.

(9) 연등 띄우기

풍어굿의 마지막 절차에 해당한다. 일반적인 도서지역의 당제에서는 띠배 띄우기나 헛배띄우기 등으로 마무리되는 데, 영당풍어굿에서는 연등띄우기로 마무리하고 있다.

먼저 풍물패가 풍물을 치고 앞장을 서면, 당골과 악사, 그리고 관광객들이 뒤를 따라 간다. 모두 배에 오르면 출항한다. 배에서는 풍물패가 뱃머리 쪽에 서고, 중앙에는 제물로 돼지머리가 놓였다. 제물 바로 뒤에는 무녀들이 앉고, 제물과 무녀들 주위로는 연등이 놓였다. 배 옆에는 스님이 목탁을 들고 서 있다.

배 주위로는 관광객들이 몰려들어 구경한다. 풍물패의 악기 연주는 출항하기 전부터 계속 이어진다. 항해하는 동안 풍물패는 악기를 치고, 스님은 목탁을 치고, 관광객들은 합장을 하고 기도를 한다. 이어서 스님이 목탁을 치면서 경을 외면 사람들은 연등을 바가지에 담아 바다에 띄운다. 연등을 다 띄워 보낸 후 무녀들이 돼지머리를 바다에 던진다. 이후 항구로 돌아오면서 풍물패는 악기를 연주한다.

3) 당산굿

여수의 여러 섬에서는 마을의 평안과 풍년을 비는 제의를 올릴 때 주민들과 당골이 어우러져 축제적 신명을 나누는 전통이 있다. 삼산면과 화정면, 화양면, 남면 등의 여러 섬에서 그것을 볼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화정면 개도의 마을굿을 들 수 있다. 개도에서는 음력 삼월 초하루에 천제봉에서 천제를 모시고, 이튿날 마을 뒤 당산에서 중당제를 모신다. 중당제부터는 당골이 참여하는 당골굿이 펼쳐진다.

당골굿은 노적굿, 액막이굿, 별신굿 등의 절차로 진행된다. 옛날에는 섬에 거주하는 세습무를 포함해 5~6명의 당골이 동원되었으나 지금은 여수에서 불러온 당골 한두 사람이 신선경, 용왕경, 도량경, 천수경, 칠성경, 당산경 등의 독경(讀經)을 한다.

마지막 하당제는 삼진날 아침에 당집 앞마당에서 펼쳐진다. 하당제는 남녀 노소가 참여한 가운데 축제적인 분위기에서 진행된다. 면내의 각 기관장, 마을 유지, 외지에 나가있던 인사들이 하당제에 맞춰 참석한다. 마을 주민들은 각 집집마다 헌식상을 차려온다.

당골은 당산나무 밑에 굿상을 차려놓고 마을의 액을 막고 풍요를 비는 축원을 한다. 오후가 되면 농악을 울리면서 바닷가에서 갯제를 지낸다. 당골이 풍어와 안녕을 기원하는 굿을 한다. 그리고 지명된 사람이 벗짚으로 만든 오장치 속에 각종 제찬을 담아 짚어지고 바닷가에 나가 사해 용왕신에게 소원을 기원하며 오장치를 바다에 던져 띄워 보낸다. 이렇게 한 후 주민들은 음복을 하며 놀이판을 벌이고 논다.⁷⁷⁾

화정면 월호리에서는 음력 정월 이튿날 당제를 모시고 이튿날 바닷가에서 도제를 올린다. 각 가정마다 제물을 한 상을 가지고 선착상에 도열한다. 매구꾼들이 당산에서 내려오면서 우물마다 샘굿을 하고 거리 두 군데에서 지신굿



▲ 당산제

77) 화정면지추진위원회, 『화정면지』, 2000, 287~288쪽

을 치고 선착장으로 모인다.

이 때 당골이 나와서 굿을 하면서 도제를 주관한다. 주부들은 각 가정에서 가져온 상에 술잔을 올린 후 재배를 한다. 당골은 한참 동안 굿을 하다가 각 상에서 제물을 조금씩 떼어다가 한데 모아 가지고 바다에 헌식을 하면서 마을의 평안과 풍어를 위해 축원을 한다.

마을 사람들이 고깃배를 타고 나갈 때마다 고기잡이가 잘 되도록 만선을 기원하고, 오가는 뱃길에 용왕님이 보살펴 주셔서 아무런 탈이 없게 해주고 일년이 하루같이 온 마을 사람들이 무사태평하길 기원한다.

이렇게 기원한 후 정결한 사람에게 빈 가마니를 지우고 마을의 모든 부정하고 사악한 잡귀들을 다 잡아 그 가마니 속에 넣는 시늉을 한 후에 그 가마니를 묶어 바다 속에 던져 버린다. 이렇게 해서 당골굿이 끝나면 매구꾼들이 2~3일 동안 가가호호 마당밧이를 한다. 매구꾼들은 집집마다 들러 조왕굿·마당굿·문굿 등을 하며 액막이를 하고 각 가정의 평안을 빈다.⁷⁸⁾

여수의 마을굿에서는 갯귀를 달래 먹이는 과정이 특별히 부각된다. 젊은 시절 여수의 섬에 당산굿을 하러 다닌 적이 있는 순천 박경자 무녀에 의하면 여수 사람들은 갯제를 중요시 여겼다고 한다.

화정면 어느 섬에서 정월 초에 마을굿을 할 때, 주민들이 “갯제를 잘 지내야 한다. 갯귀를 잘 먹여야 한다.”고 하면서 정성을 기울이는 것이 인상적이었다고 한다. 당시 굿은, 안당-선부리-제석-노적-업 담그기-액막이-당산들기-갯귀 먹이기 순으로 진행되었다.

마지막 절차인 갯귀 먹이는 갯제상 앞에서 펼쳐졌다. 이 때 무녀가 갯귀로 분장해서 등장하고, 그 갯귀를 대접하고 놀리는 굿을 하게 된다. 갯귀로는, 이한량·물에 빠져 죽은 혼신·약먹고 죽은 혼신·총각 혼신·처녀 혼신·목매달고 죽은 혼신·총맛고 죽은 혼신·곰사 혼신·임산부 혼신·봉사 혼신 등이 나온다. 이들 잡귀잡신을 잘 달래서 놀려줘야 마을의 액을 막고 복을 얻을 수 있다고 여겨 이들을 대접하는 굿놀이를 펼쳤다.

갯귀 먹이는 여수 도서지역 마을굿의 성대함을 잘 보여주며, 연극적인 방법으로 진행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4) 상문살굿

상문살굿은 상가에 다녀온 뒤 상문살(喪門煞)이 끼어 아프게 되었을 때, 환

78) 화정면지우친위원회, 『화정면지』, 2000, 280쪽

79) 『여수상문살굿』공연 발표
회, 2006.12.22

자를 치료하기 위해 펼치는 무굿이다. 과거에는 자주 연행되던 굿이었으나 지금은 보기 어렵게 되었다.

여수신청의 마지막 대방이었던 방종선 옹의 구술에 의하면, 상문살굿은 여수지역의 특징적인 치병굿(축귀굿)이라고 한다. 특히 연극적인 당골굿놀이로 연행되는 점이 특징이라고 한다. 그에 의하면 남무나 무녀가 귀신으로 치장하여 춤과 재담과 여러 가지 노름놀이가 어우러지면 인근 마을 사람들이 굿판에 모여 밤새워 즐겼다고 한다.⁷⁹⁾

상문살굿은 방종선의 증언을 토대로 재현되었다. 문화제 출품을 위해 다섯 마당의 민속극으로 재구성되었다. (사)향토민속문화보존회의 정홍수 회장이 발굴·고증하고, 김향순이 연출했다. 제37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 나가 민속극 부문 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상문살 물리기굿은 귀신에 의해 병든 환자를 당골들이 주술적 의례를 통해 치유하는 과정이며, 다음과 같은 다섯 마당으로 구성돼 있다.

첫째 마당은 환자를 사다리 위에 눕히고 무녀의 주술적 소리에 맞춰 마을 사람들이 환자 주위를 돌면서 절구방아 짙는 소리를 내어 귀신을 물리치고자 하는 주장 방아거리이다. 그리고 귀신을 몰아내지 못하면 환자의 옷을 입힌 허수아비와 생닭을 저승사자에게 바쳐 대신 죽음의 세계로 인도할 것을 당부하는 허장거리(사자맥이), 구천을 떠돌다 굿판을 찾아온 귀신들에게 후하게 제물을 먹인 후 돌려보내는 혼신거리, 환자를 시루 위에 앉히고 주문을 외우면서 식칼로 환자 몸에 들어 온 귀신을 내쫓기 위해 도끼날로 시루를 깨뜨리는 짚귀 물리기 등으로 구성된다.

제2절 마을신앙

마을신앙은 누대에 걸쳐 형성된 민간신앙의 한 유형으로, 자연마을 단위로 마을사람 모두가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가운데 마을을 지켜주는 수호신에게 마을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기 위해 올리는 공동제의이면서 축제이다.

마을은 동일한 문화권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현실적 공간이며, 민속 문화가 형성, 유지, 전승되는 무대라 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마을 구성원 모두를 위

한 기원행위는 특정 공간에서 집단적으로 표출되고, 개개인의 소원하는 바는 개인적으로 또 다른 공간을 빌어서 표출된다.

마을 단위로 표출되는 집단적인 신앙은 오늘날 변화된 환경 속에 새로운 형태로 대체되거나 소멸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에까지 전승되는 마을신앙은 수많은 시간과 공간 속에 축적된 전통적인 인식체계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으며, 집단적인 만큼 다양한 양상과 체계를 보인다.

1. 마을신앙 현황

여수시의 마을신앙은 자연마을 단위로 곳곳에서 전승되고 있다. 예전에 비해 그 양상은 축소되거나 변이되고 있으나 현재까지 마을사람들의 전통적인 관습에 의해 전승의 맥을 잇고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스런 일일 것이다.



▲ 경호동 외동마을 당집

현재 여수시에서 마을신앙을 모시는 마을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2007년 기준)

마을명	제의명	제일	제신	풍물	비고
경호동 내동	당산제	섣달 그믐	당산(당집)	○	
경호동 외동	당제	섣달 그믐	당산할아버지(당집), 당산할머니(당집)	○	
경호동 소경	당제	섣달 그믐	당산할아버지(당집)	○	
광림동 신흥	당산제	1. 15(음)	당산할아버지(느티나무), 당산할머니(느티나무)	없음	
만덕동 덕흥동(덕대)	그믐제	섣달 그믐	마을수호신(노인당)	○	
묘도동 온동	당산제	섣달 그믐	큰당산(상석), 당산(상석)	○	
묘도동 묘읍	당산제	1. 1(음)	원당산(입석), 당산(수호석)	○	
상암동 진남	당산제	1. 1(음)	당산(팽나무)	○	
신월동 넘러리	산제	섣달 그믐	산신(당집)	○	

주상동 주암	도제	1, 2(음)	당산할아버지(수호각)	○	진세
	칠석제	7, 7(음)	당산할아버지(수호각)	○	진세
호명동 원호명	당산제	7, 7(음)	당산(느티나무)	○	
남면 두포리 두포	당제	1, 1(음)	상당(당집), 하당(당집)	없음	
남면 유송리 송고	당산제	1, 2(음)	당산할아버지(뒷산), 여신(소나무숲)	없음	
	용왕제	1, 3(음)	용왕신(버섯가)	없음	
돌산읍 군내리 동네	당제	선달 그믐	삼신녀(당집)	없음	
돌산읍 군내리 남외	지만모산다	선달 그믐	당산(팽나무), 당산(팽나무)	없음	
돌산읍 평사리 계동	산제	선달 그믐	산신(뒷산)	○	달집태우기
	당산제	1, 1(음)	당산(팽나무)		
돌산읍 우두리 상동·하동	당제	선달 그믐	당산(당집), 당산(당산나무) 당산(돌무더기)	○	
소라면 덕양리 흑산	당산제	7, 15(음)	당산할아버지(느티나무)	없음	
소라면 죽림리 차동	당산제	1월 중경	당산할아버지(팽나무)	○	
소라면 사곡리 상사·하사·망동	당산제	1, 15(음)	당산(팽나무)	없음	
소라면 사곡리 장척	당산제	1, 15(음)	당산(느티나무)	○	달집태우기
소라면 사곡리 북촌	당산제	1, 15(음)	당산할머니·당산할아버지 (팽나무)	○	달집태우기
소라면 봉두 원봉두·백수동	당산제	선달 그믐	당산(느티나무)	○	달집태우기
소라면 봉두리 당촌	칠성제	7, 7(음)	칠성신(공터)	없음	
소라면 대포리 신기	호신제	8, 15(음)	여신(굴바위)	없음	
소라면 대포리 장천	칠성제	7, 7(음)	당산할머니(팽나무)	○	
화양면 용주리 고내	당제	1, 1(음)	당산할아버지(당집)	없음	
화양면 이천리 이천	당산제	7, 7(음)	당산할아버지(팽나무)	없음	
화양면 장수리 장척	당산제	1, 3(음)	당산할아버지(당집)	없음	
화양면 장수리 자매	당산제	1, 3(음)	당산(당집)	없음	줄다리기
화양면 세포리 세포	당제	1, 3(음)	당산할아버지·당산할머니 (야산)	○	
화정면 개도리 화산	천제	3, 1~3(음)	천신(천제봉), 당산(당집)	○	
화정면 제도리 제도	당제	3, 3(음)	당산(당집)	○	

화정면 낭도리 여산	당산제	1. 14(음)	당산할머니·당산할아버지(당집)	○	
화정면 조발리 조발	당산제	1. 14(음)	당산할아버지(당집)	○	
	용왕제	1. 15(음)	용왕(선착장)	○	
화정면 조발리 둔병	당산제	1. 14(음)	당산(당집)	○	
	용왕제	1. 15(음)	용왕(바닷가)	○	
화정면 적금리 적금	당산제	1. 1(음)	큰당산(당집), 작은당산(당집)	○	
	당산제	1. 2(음)	용왕(바닷가)	○	
화정면 백아리 백야·회백	당산제	3. 3(음)	당산(당집)	없음	

2. 마을신앙의 제의양상과 특징

오늘날 여수시 일대에 전승되는 마을신앙은 마을사람들이 주도한 가운데 특정일에 특정한 장소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거행된다. 예외적으로 화정면 개도리 화산마을의 경우 당골에 의해 제의 일부를 주재하기는 하나, 전반적으로 마을사람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서 때론 엄숙하게 때론 축제적 분위기 속에서 거행된다.

위의 정리된 도표를 토대로 제의 명칭을 살펴보면, 호남지역에서는 마을신앙을 대체로 ‘당산제’, ‘당제’라 부른다. 여수시에서도 당산제, 당제라는 비등하게 불리고 있다. 예외적으로 모시는 신격에 따라 천제, 산신제, 산제, 용왕제, 칠성제, 호신제 등의 제명을 사용하기도 한다. 그리고 실제 당제, 당산제라 불리면서도 마을사람들은 모시는 신격에 따라 세부적인 명칭에 따라 부르기도 한다.

예를 들면 경호동 외동마을에서는 당제라 부르면서 당산할아버지와 당산할머니를 각각 모심에 따라 구체적인 신격을 제명으로 더불어 부르기도 한다. 또한 남면 송고마을에서는 네 곳에 제사를 모시는데 당산할아버지와 당산할머니를 모시는 제의를 당산제라고 하고, 바닷가에서 모시는 제의는 각각 용왕제와 헌식제라는 명칭을 별도로 사용하고 있다. 또 상암동의 진남마을과 남면 두포마을은 1년에 두 번 제사를 모시는데 정월에 모시는 제사는 당산제, 칠월 칠석에 모시는 제사는 칠석제라 별도로 부르기도 한다.



▲ 개도 화산당집 전제당

고 있다. 정월 대보름보다는 설달 그림날이나 정월 1일에 집중적으로 모시고 있다.

정초에 모시는 마을신앙은 도서해안지역에서 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여수시도 이와 마찬가지로이다. 이렇게 정월 초에 압도적으로 많이 모시는 것에 반해 칠월 칠석날이나 백중날에 모시는 마을, 그리고 8월 15일에 모시는 마을들도 찾아지는데, 이는 어업보다는 주로 논농사를 주업으로 삼는 마을들이 이 경우이다.

또한 칠월에 모시는 경우는 한해의 농사를 모두 짓고 마을사람들이 마을 잔치를 겸하여 제를 모시는 것으로, 비록 제일은 다를지라도 마을수호신인 당산에 종교적 신심을 응축하여 기원하고 있다.

제사를 모시는 장소는 마을 안 또는 마을과 인접한 곳이다. 도서지역이나 해안지역에는 당집을 따로 지어 제사를 모시는 곳이 많다. 특히 여수지역은 당집에서 제를 모시는 15개 마을로, 전남 도서해안지역에서 두드러진다.

당집은 예전부터 있었던 것을 보수하거나 그 자리에 기존의 당집을 허물고 신축한 경우가 많다. 예외적으로 화양면 용주리 고내마을의 경우 마을 뒷산에 위치하던 당집이 허물어진 뒤로 제를 모시지 않다가 마을 가까운 곳에 당집을 신축하여 다시 제를 모시고 있다.

당집 주변에는 소나무 숲이 둘러져 있고, 헌식터가 따로 마련되어 있으며, 당집 안에는 위패, 제기 등이 보관되어 있다.

화정면 적금리 적금마을(적금도)은 당집 내부가 제를 모시는 곳과 제물을 장만하는 곳으로 구분되어 있어 과거 제를 어떻게 모셨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 제의가 간소화되면서 제물을 제주가 집에서 장만하여 당집에 가지고 가서 제를 모시고 있다.

이렇게 당집에서 제를 모시는 것은 당집이 갖는 신성성을 전제하면서 제를

모시는 사람들의 편의적인 발상 또한 전제한다. 대부분 마을신앙이 추운 정월에 모시기 때문에 추운 겨울날을 대비하여 사용한 것으로 이해된다.

이렇게 당집에서 제를 모시는 것 외에 가장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당산의 신체는 수목이다. 주로 수령이 오래된 팽나무나 느티나무로, 마을 입구나 마을 주변에 위치한다. 그리고 또 다른 유형으로는 입석을 당산의 신격으로 모시기도 한다.

입석은 대개 자연석을 세운 형태이다. 호남지역의 경우 마을수호신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믿어지는 입석을 만드는 방식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

하나는 가장 일반적으로 보이는 하나의 자연석을 세로로 세워 만드는 예이다. 다른 하나는 돌을 원추형으로 쌓아두고 그 위에 다소 큰 돌을 역시 세로로 세우는 형태이다.

또 다른 예로 들 수 있는 것으로는 자연석을 세우지만, 약간의 인공을 가해서 사람의 얼굴 형상을 아주 소박하게 새기는 예이다. 세 번째의 예는 장승에서 그 기법을 차용한 것으로 보이기도 하며, 또 마을에서 그런 경우 미륵이라고 부르는 예가 많은 것으로 보아 장승의 기능과도 서로 상통하는 예로 보아도 좋을 듯하다.

모도동 온동이나 모읍마을의 경우는 마을 주변에 세워진 5기의 입석에서 제사를 모시는 특이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대개 도서지역에서는 5방신을 많이 섬기는데, 이러한 오방신이 마을신으로 자리를 잡은 사례로 보인다.

이외에 소라면 대포리 신기마을의 경우 굴바위에서 '호신제'를 모시기도 하며, 마을 공터에서 간단히 제물을 차려놓고 모시기도 한다.

이렇게 여느 지역과 마찬가지로 여수 역시 마을신의 신격 구성은 매우 다양하여 일괄적으로 그 형태를 파악하기 어렵다. 당산이라는 신격은 마을에 따라 큰당산, 작은당산이거나 당산할아버지와 당산할머니, 산신과 여신으로 구분된다.

여기에 바닷가의 지리적 환경에 따라 용왕신이 덧붙여지기도 한다. 또한 마을수호신으로 당산 대신에 칠성신에 제를 올리기도 한다.

마을의 풍요와 안위를 기원하는 신앙이 마을신앙인만큼 당산이라는 추상적인 신격을 이렇게 구체화하여 표현하거나 그 직능에 따라 기원의 양상이 차별화되는 것은 인간 심성의 구체적인 발현이라는 차원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한편, 제관은 마을 제사에 직접 관여하는 사람을 뜻하는데, 여수지역에서

는 주로 '당주'라 불린다. 마을신앙은 거의 제물을 갖추어 모시며, 제물을 장만하는 과정이 매우 중시된다.

일반적으로 제사에 필요한 사람을 그 역할별로 나누면, 제수를 준비하는 사람, 절을 하는 헌관, 축문을 낭독하는 축관, 절차를 돕는 집사나 유사 등이 있다. 또 뒷심부름을 맡을 사람을 따로 뽑기도 한다.

마을제사는 전형적으로 남성 중심으로 치러진다. 제물을 만드는 일에 참여하는 일을 제외하고 여성들은 원래 마을제사에 참여하는 것이 금지되었으나 오늘날 이러한 경계는 허물어진 지 오래되었다.

제관들 중에서도 제물을 장만하는 사람을 선정할 때 가장 엄격한 자격요건을 따진다.

과거에는 제관을 마을 총회에서 결정하면 그대로 따랐다. 또 복을 받기 위해, 공을 드리기 위해 과거에는 제관을 자청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요즘은 그런 예를 찾기 어렵다.

최근에는 마을 사람 거의가 제관이 되는 일을 기피하기 때문에, 이장이나 마을의 지도자들이 제관을 겸하는 예가 많고, 또 마을 부녀회원들이 마을회관에서 제물을 준비하여 제를 모시는 마을이 대부분이다. 더 나아가 마을회의를 통해 선정된 제관에게 일정한 사례비를 지급함으로써 제관의 정성을 독려하기도 한다.

한편 과거 당산제를 올릴 때 으레 독축(讀祝)을 하였으나 오늘날 독축을 생략한 예들이 많다. 비록 독축을 하더라도 한문을 한글로 옮겨 적은 것이나 아예 한글로 작성한 것으로 한다.

일례로 화정면 백야마을과 화백마을의 경우는 현대어로 된 축문과 흥기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 전반적인 내용은 유교식 제차를 그대로 따르고 있으면서 누구나 읽고 들어 알 수 있는 현대어로 고쳐 매년 사용하고 있다.

제비(祭費)는 마을신앙을 모시는데 드는 비용으로, 이는 마을사람들이면 누구나가 의문을 갖지 않고 참여한다. 따라서 마을사람 모두가 마을신앙에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하나의 관행적 양식이다.

직접 제를 올리는데 참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제비를 낸다는 것은 마을신을 섬기는 뜻과 책임 그리고 소속감이 실리기 때문에 제비를 통해 마을민 전체와 마을신이 연결되는 것이다.

마을신앙 자체는 마을에서 선정된 제관들에 의해 수행되지만, 이러한 직접 수행이 아닌 경우라도 제비를 낸 모든 사람들은 간접적으로 마을신앙과 관련

되는 것이다.

제비를 마련하는 방식은 오늘날 마을공동 자금으로 충당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인구전이나 호구전으로 걷기도 한다. 또한 근래에는 출향인사들이 제 모시는 날 일부러 마을을 찾아와 제비를 내거나 멀리서 제의 비용을 보내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비록 마을을 떠났으나 마을사람으로서의 공동체의식을 함께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렇게 마련된 제비는 주로 제물을 장만하는 것으로 충당한다. 제물은 과일, 돼지머리, 생선, 나물 등으로, 근래에는 제물 준비가 간소화되었으나 제가 끝난 뒤에 마을사람들이 한데 어울려 음복할 수 있도록 넉넉하게 음식을 장만한다. 음복하면서 마을회의를 열어 한해에 마을의 대소사를 논의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마을신앙과 관련된 구비전승으로 제의, 신체와 관련된 영험담이다. 영험담은 제를 모시는 이유가 되기도 하지만, 역시 지금까지 지속해온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현재 여수의 경우 제를 모시는 마을들에서 여러 가지 영험담이 전해오고 있다.

당산신은 수호신적인 기능을 가진다. 사람과 재산을 보호해준다. 여수시에 서 여순사건이나 한국전쟁과 같은 전란 상황에서 제를 잘 모셔서 마을사람들이 큰 피해를 당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여러 곳에서 전한다.

이외에 화양면 장수리 장척마을, 화정면 적금리 적금마을의 경우를 보면 한동안 제를 모시지 않았더니 마을에 젊은 사람들이 죽자 당산을 모시지 않아서 그러한 것으로 알고 다시 정성스럽게 제를 모시기도 한다. 이는 당산이 마을과 마을사람들이 보호하고 지켜주기 때문에 이를 어길 때는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는 믿음에서 기인한 것이다.

그리고 그해 당산나무 잎이 피는 모양을 보고 풍년과 흉년을 짐치기도 한다. 신은 인간과 달리 과거, 현재, 미래를 넘나드는 초월적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믿음은 인간을 신 앞에 약자로 만드는 요인이기도 하다.

세상에 널리 있는 것이 나무지만, 특히 당산나무는 어떤 신적인 능력이 있어서 풍흉을 미리 예시해주는 그러한 권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믿는 것이다.

제3절 가정신앙

가정신앙은 집안 곳곳에 좌정한 신에게 가족들의 무사안일을 기원하며 올리는 일련의 신앙 행위를 말한다.

가신(家神)이 집안 곳곳에 좌정하여 가족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집을 지켜주고 가족들의 건강과 행복을 지켜준다. 그만큼 집은 사람들의 안식처라는 단순한 생활공간을 뛰어넘는다.

집은 가정신앙을 통해 신이 좌정한 신성한 의례공간으로, 우리 가족들에게 좋은 일만을 안겨다 주리라는 긍정적인 삶의 공간으로 인식된다. 따라서 가정신앙은 마을 공동 심의가 담긴 마을신앙과 구별된다.

이러한 가정신앙은 지역에 따라 가정에 따라 형태와 내용이 복잡하고 다양하다. 여수지역에서는 대체로 성주를 비롯해서 조령, 삼신, 조왕, 철룡, 칠성, 지신, 업 등을 모신다. 이러한 신들의 공통점은 집안의 정해진 공간에서 모셔진다는 점이다.

마루나 안방에는 성주, 조상을 모시고 안방이나 작은방에는 삼신을 모신다. 그리고 부엌에는 조왕과 영등, 마당이나 장독대에는 칠성과 철룡, 집 뒤 안에는 철룡, 집안 어느 곳에 있을 업을 각각 모신다.

이외에 집을 지켜주는 지신, 문에 좌정한 문신, 변소의 축신, 우물의 우물신 등도 있다.

이러한 신들에게 올리는 의례의 기본적인 목적은 가정행운, 장수복덕, 기자다남, 무병, 풍작 등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집은 이러한 신들이 거처하는 신전이기도 하다. 일차적으로 가신들은 자신이 속한 공간의 기능을 보호하는 신이다.

그러나 남녀의 역할에 따라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는 집안의 공간구성에 따라 가신도 역할과 공간이 기능적으로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문화적인 공간인식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여수지역에 전승되었거나 전승되는 가정신앙의 양상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가정신앙의 양상

1) 성주

가정신앙의 대표적인 신격은 성주이다. 성주는 집을 지켜주는 신으로, 집안의 제일 큰 신이라 믿는다. 여수지역에서 성주는 명절이나 제사 때 가장 먼저 성주상을 차려놓는 것으로 모신다. 오늘날 단지나 동우와 같은 성주의 신체가 따로 있지 않고, 주로 설, 정월 보름, 추석과 같은 명절 때 성주상을 가장 먼저 차리는 것으로 모시고 있다.

성주상은 안방 윗목이며, 조상상 왼쪽에 차려놓는데, 명절을 맞이하여 준비한 여러 가지 음식과 물 한 그릇을 받쳐놓는다. 명절 외에 자식들이 시집가거나 장가갈 때 성주상을 차리기도 한다. 또한 자식들 생일 때 성주상을 차려놓는데, 지금은 자식들이 장성하여 모두 일가를 이루고 있어서 거의 차리지 않는다. 그리고 집안 어른들 생일 때 생일상을 곁에 차리는데, 제일 먼저 성주에 바친 뒤에 가족과 함께 그 음식을 나누어 먹는다.

이외에 외부에서 이바지가 들어오거나 떡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성주에 바쳐놓는다. 또한 아이들이 아프거나 집안에 좋지 않은 일들이 생기면 성주 앞에 물 한 그릇을 떠놓고 비손하기도 한다.

2) 조상

조상은 자신의 선영을 말하는 것으로, 집안에서 남자들이 모시는 기제사와 다르다. 부녀자들에 의해 모시는 조상은 단지를 신체로 삼아 모시는데, 주로 '구신단지', '성주독아지'라 부른다. 이 단지는 보통 안방의 가장 깊숙한 곳에 모시는데, 단지를 모신 위쪽으로는 아무것도 올리지 못하게 한다. 단지 안의 쌀은 보통 1년에 한번 정도 갈게 되는데, 그해 수확한 첫 쌀을 제일 먼저 갈아놓는다. 쌀을 갈기 전에 목욕재계하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는다.

이렇게 조상단지는 쌀만 담아두고서 모시는 것으로, 명절 때 딱히 음식을 차려 올리지는 않는다. 단지 속에 있던 그 전의 쌀은 버리거나 함부로 다루지 않다가 밥을 해서 가족들만 먹는데, 밥이 남더라도 동냥치나 개에게 주지 않고 오직 가족들끼리만 나눠먹는다.

3) 조왕

조왕은 부엌에서 모시는 신이다. 오늘날 전승된 조왕은 집안 살림살이를 도맡아 하는 여성들에 의해 모셔지며, 부엌 가운데에서도 솥이 걸린 부뚜막 위에 작은 단을 만들어 그 위에 물 한 그릇을 받쳐놓는다.

조왕은 매일 물을 떠놓는데, 마을에 초상이 나면 굶은일이라 하여 물을 떠놓지 않다가 출상한 뒤에 물을 다시 떠놓는다. 예전에 물을 떠놓을 때는 새벽에 일어나면 머리목욕을 한 뒤에 샘에 가서 물을 길어와 제일 먼저 조왕에 바치고서 가족들의 안위를 기원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수돗물을 받아서 물을 떠놓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 훨씬 편해졌다고 한다. 명절이면 조왕 앞에 음식을 따로 차려놓지는 않는다.

4) 삼신

삼신은 자손을 점지해 주며 아이와 산모의 건강까지를 관장하는 신으로, 산속과 밀접한 관련을 보인다. 삼신은 성주와 함께 명절 때 그리고 집안 식구들 생일 때 모신다. 간혹 집안에 따라 제사 때에 삼신을 모시기도 한다. 그리고 생일 때 모시는 삼신은 자식들이 모두 장성하여 결혼하여 살게 되면 자연 모시지 않고 있다.

삼신은 성주상을 차리면서 성주상 밑에 장만한 밥, 국, 물 등을 차려놓는다. 이를 '삼신상'이라 한다. 제보자에 따라 물 한 그릇, 쌀 한 그릇을 바치는데, 이 때 쌀 속에 수저를 꽂고 실을 감아놓는다. 그러면 자식의 명이 길어진다고 한다.

이렇게 삼신을 정기적으로 모시는 것 외에 산모가 아이를 낳을 때면 한시적으로 모시기도 한다. 산모가 아이를 낳을 무렵 성주상을 차린 안방에 쌀, 미역, 물을 차려놓고 산모가 순산하기를 기원한다.

이 상은 아이 낳은 삼일 만에 치운 뒤에 이레마다 미역국, 밥, 떡 등을 차려놓는데, 대개 일곱이레를 씀다. 그리고 일곱이레 동안 매일 배석 깔고 그 위에 지푸라기 놓은 뒤에 거기에 물 한 그릇을 올려놓는다. 일곱이레 동안 매일 물 한 그릇을 받쳐놓으며, 이레마다 지양상을 차려놓고 산모와 아이의 건강을 기원한다.

5) 철룽

집 뒤안을 철룽이라 이르는데, 보통 장독대에 물을 떠놓는 것으로 모신다. 예전에는 명절이나 제사 때 철룽에 상을 차려놓았으나 근래에는 상을 차리지 않고 물 한 그릇을 받쳐놓는다. 이렇게 명절이면 간소하게나마 자식들의 무사안일을 기원하며 장독대에 철룽상을 차리고 비손하는 행위는 가정신앙의 원형인 모습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철룽은 집집마다 모두 모신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 철룽을 모신 제보자를 찾기가 쉽지 않다.

6) 칠성

칠성은 복두칠성을 신격화한 것으로, 가족들의 수명장수와 무병을 관장하는 신이다. 여수에서도 칠성을 모시는 곳은 주로 장독대나 마당이다. 지역에 따라 칠성을 모시는 방법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성주나 삼신에 비하면 오늘에까지 칠성을 모시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은 편이다.

칠성은 칠월 칠석에 주로 모시는데, 7개의 중발에 물을 떠서 장독대나 집안 깨끗한 곳에 놓고 비손한다. 그리고 아이를 낳지 못하는 사람들이 칠성을 모시기도 한다. 근래에는 집안에서 모시지 않고 7월 칠석에 절에 가서 촛불을 켜고 가족들을 위해 공을 들인다.

이러한 칠성 역시 성주, 삼신에 비하면 근래에 들어 약화된 신앙이라 할 수 있으나 불교와의 친연성을 보이면서 오늘에까지 그 명맥을 잇고 있다.

7) 업

업은 재복을 관장하는 신으로, 집안 어딘가에 존재하며 조심스러운 것으로 인식한다. 주로 큰구렁이를 업이라 하는데, 이 업이 보이면 함부로 잡지 않는다.

업을 잡으면 그 집이 망한다고 하며, 집을 허물면 업이 미리 알고서 먼저 나간다고 한다. 그래서 실제 업이 보이면 집안이 망할 징조라 하여 조심스러워 하고, 업이 보이지 않도록 머리카락을 태우거나 비손하는 비교적 간단한 의례를 행한다.

2. 가정신앙의 특징

가정신앙은 부녀자들의 자발적인 종교적 신심에 의지하여 모시기 때문에 그 양상은 다양하나 신앙행위에는 그들만의 질서와 공식이 발견된다. 성주, 조상, 삼신, 조왕, 철룡, 업, 영등 등을 어떻게 모시지를 앞서 자세히 살폈듯이 지켜야 할 금기사항이 있고 의례 집전의 공식이 존재한다.

특히 가정신앙은 무속적 성향이 두드러지는 가운데 명절이나 제사 때 모셔지는 방식을 보면 무속과 유교적 제의가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다. 또한 가정신앙은 집안의 어머니에 의해 모셔지는 만큼 모성애에서 그 신앙의 원천을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신앙은 시어머니에서 며느리로, 친정어머니에서 시집간 딸에게 전이되면서 답습되고 있다.

여수시의 가정신앙은 과거의 전통성을 고수하는 일부 사람들에 의해 그 신앙행위가 지속되고 있으나 과거에 비하면 어느 지역과 마찬가지로 약화되어 있다.

성주와 삼신은 명절이면 기제사와 함께 모시고 있다. 그리고 특별한 신체 없이 집이 존재하고 집안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동안에는 그 신앙적 명맥이 유지될 것으로 생각된다. 조왕은 부엌 구조의 개선이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여 그간 많이도 사라졌다.

그러나 불을 때는 부뚜막 위에 조왕중발을 올려놓고 모시는 것뿐만 아니라 입식 부엌인 싱크대 위나 가스렌즈 근처에 물 한 그릇을 받쳐놓는 변이 된 형태로 조왕을 모셨으나 이 역시 많이도 사라졌다.

이렇게 가정에서 모시는 가신들은 점차 사라져 가는 신들로 인식되고 있다. 농사를 짓고 살아가면서 하늘의 뜻을 따르고 감사할 줄 아는 동안에는 가정신앙 역시 면면히 이어져 내려왔다.

문화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게 마련이지만 우리의 경우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산업화, 도시화 등의 외적인 영향으로 인해 변화가 극심하였다.

특히 가정신앙 쇠퇴는 주택구조 개선이 그 직접적인 원인이라 할 것이다. 농경사회에서 생성, 전개되었던 이러한 가정신앙이 오늘날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쇠퇴하였을지라도 오히려 소멸보다는 새로운 신앙 행위로 대체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주부가 주도하는 가정신앙은 기독교, 불교, 원불교 등의 고등

종교 속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른 새벽 조왕에 정화수를 떠 올리며 정성을 드리는 신앙의 전통이 새벽 미사나 예배드리는 모습으로 전이되었을 뿐이다. 또한 집안에서 모시던 칠성 신앙이 사찰의 칠성각에서 기도 드리는 것으로 전이되어 이 역시 장소만 바뀌었을 뿐 부녀자들의 신앙 자체가 소멸한 것은 아니라 할 수 있다.

이처럼 가정신앙이 무수한 세월동안 어머니들에 의해 묵묵히 믿고 모셔왔으나, 20세기에 들어서면서 특히 지난 50년간의 격동의 역사 속에서 급격히 소멸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근래까지 여수 일원지역에서 가정신앙을 모시는 사례가 드물게 찾아지는 것은 그나마 다행한 일일 것이다.

참고문헌

- 김낙원, 『여수향토사』, 1962.
 나경수 외, 『여수시 마을굿』, 민속원, 2008.
 심미안, 『여수시 역사와 문화를 찾아서』, 2008.
 이순신해양문화연구소, 『한국의 가정신앙』-전남편-, 2008.
 이경엽, 『여수영당, 풍어굿, 악승청』, 민속원, 2007.
 화정면지발간추진위원회, 『화정면지』, 2000.

제 3 장

여수 매구

주 석 봉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지역사문화위원장)



제1절 마을굿의 개요

1. 마을굿의 개념

마을굿은 마을을 지켜주는 수호신에게 마을 사람들의 무병, 안녕과 풍어, 풍년을 빌기 위해 마을제의 때 드리는 연희이다.

2. 마을굿의 명칭과 기능

여수의 마을제의에는 당제(堂祭)와 당산제(堂山祭)라는 이름이 가장 많으며 산제(山祭), 풍어제(豐漁祭), 도제(都祭), 동백제(冬柏祭) 등 다른 이름을 가

지고 연례적으로 시행되어 왔다. 마을제의 때는 풍물이 동원된 마을굿이 거의 빠지지 않았다.

이 마을굿은 공동체성과 문화적 기층성, 민중적 종교성을 잘 보여주며, 주술 종교적으로 보면 신을 즐겁게 하는 측면, 즉 오신행사(娛神行事)이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마을 사람들 스스로가 흥겨운 분위기를 연행하며 즐기는 오인행사(娛人行事)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그래서 마을굿은 종합적 민속이라고 평가되기도 한다.

1930년대 일본인 학자인 무라야마(村山智順)가 말했던 것처럼, 마을신을 모시는 종교적 기능, 마을일을 협의하는 정치적 기능, 주민의 통합이 이루어지는 사회적 기능, 다양한 연희가 함께 어우러지는 예능적 기능, 그리고 청소와 목욕 등을 한다는 위생적 기능까지를 마을굿은 기능적으로 수행을 하였던 것이다.⁸⁰⁾

그러나 마을굿 자체가 아무리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시대적인 상황이 급속하게 변화하기 때문에 그 원형과 의미를 잃어가고 있다. 마을굿은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농·어촌 마을의 현실과 운명을 같이 하면서 그 속에 용해되어 있는 전통적인 민속 문화 역시 쇠잔해 가고 있는 것이다.

여수 역시 마을의 종교적, 공동체적, 연희적 기능을 담당했던 당산제와 마을굿이 겨우 명맥만을 유지하고 있다.

80) 나경수 외 『여수시 마을굿』, 민속원, 2008, 15~17쪽.

3. 풍물굿의 명칭

1) 농악

1870년대까지 풍물굿은 판소리 춘향가에서 보듯 '두레굿' 이라 쓰였다. 그러다가 일제강점기 농업 수탈정책의 하나인 농업 장려운동으로 원각사의 협률사라는 단체에서 '농악(農樂)' 이라 부르기 시작하였다. 농악이 글로 처음 나타난 것은 1936년 총독부에서 펴낸 「부락제」 라는 책에서 처음 쓰였다.

2) 사물놀이

사물놀이라는 말이 마치 우리나라의 전통예술 가운데 팽과리, 징, 장구, 북

을 가지고 뭔가 예술적인 행위를 하는 어떠한 갈래를 일컫는 보통명사로 쓰고 있다.

사실 사물놀이는 1978년에 '공간사랑'이라는 소극장에서 '제2회 공간 전통음악의 밤' 공연이 끝났을 때 민속학자 심우성 등 지기들이 한국전통타악 연주 단체(김덕수 사물놀이패)의 성공적인 공연을 축하하며 '사물(四物)놀이'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다고 한다. 처음에는 보통명사가 아닌 고유명사였던 셈이다.

3) 풍장

농사일에 많이 쓰이는 말로 김매기 할 때 이루어지는 풍물놀이를 가리킨다. 특히 만두레(벼농사는 김매기를 보통 세 번 하는데 그 가운데 마지막에 하는 것을 말함)가 끝나는 날 농사가 제일 잘 된 집 머슴을 소 등에 태워 위로하며 노는 것을 '농장원', '질꼬냉이'라고 한다.

여수에서는 '만경놀이'로 불렸다. 또 어민들은 갯 잡은 생선을 신속하게 팔기 위해 풍장을 쳤는데 이는 생선을 보관할 수 있는 냉장시설이 없었기 때문이다.

4) 두레

원래는 우리나라 고유의 마을단위 일 공동체를 가리키는 말이며, 특히 김매기를 위해서 만들어졌다. 풍물이 공동체적 놀이로서 일두레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풍물을 '두레'라는 이름으로 부르기도 한다.

5) 굿

모든 지방에 걸쳐 일반적으로 쓰이는 말로 '굿친다'라는 표현을 쓴다. 굿의 의미는 원래 '모인다'는 뜻을 갖고 있었다. 모여서 공동체 안의 모든 일을 의논하고 풀어 가며, 공동체적 바람을 집단적으로 빌며 집단적 신명으로 끌어 올려 새로운 삶의 결의를 다지는 일련의 과정을 담아내는 말이었으나, 오늘날에는 무속에서의 신앙적 뜻만을 가리키는 흐름이 있다.

6) 매구·매굿·매귀(埋鬼)

땅 밑에 있는 나쁜 귀신이 나오지 못하도록 묻고 밟는다는 뜻으로 보통 설달 그믐날 밤에 하는 풍물놀이를 '매굿'이라 한다. 요즈음 현대적인 용어로 '지신밟기', '마당밟기'라고도 하며 주로 경상도 지방에서 풍물을 일컫거나 팽과리를 가리키는 말로 쓰인다. 여수지방에서는 '매구'라고 한다.

매구는 공동의 고민과 문제를 공동의 힘과 공동의 지혜로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을 바탕으로 공동체의 의미를 무엇보다도 중요시 하였던 행위의 수단이다.



▲ 매구

제2절 여수 매구의 역사

1. 여수 매구의 역사적 변천

1) 고려시대

『고려사』악지(樂志) 속악조(俗樂條)에는 공민왕 때 왜구(倭寇)가 순천부(順天府)의 장생포(長生浦)를 침범하자 전라만호(全羅萬戶) 유탁(柳濯)이 출진했는데, 왜구들이 유탁장군의 위엄에 놀려 도망가자 군사들이 매우 기뻐하며 '장생포가'를 불렀고 물박을 치고 놀았다는 기록이 있다.

『증보문헌비고』에서는 '장생포가'와 '동동'을 같은 배경에서 창작된 노래로 보면서 이수광이 「동동」을 '송도지사(頌禱之詞)'라 평한 말까지 곁들여 놓고 있다.

고려가요 '동동'은 조선시대 궁중에서 아박(牙拍)과 함께 연주되었으며, 나례(儺禮)뒤에는 처용희(處容戲)속에 동동무(動動舞)가 포함되었다. 그러나 중종 때에 이르러 남녀상열지사(男女相悅之詞)라 하여 '정읍사'와 함께 폐지된다.

'동동'은 악학궤범(樂學軌範)에 원문이 실려 전하고, 『고려사(高麗史)』,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등에 내용이 실려 있다.

장생포는 현재 안산동 장성마을 앞 포구를 가리키는데 새로운 시가지가 조

성되면서 매립되었다. 여수시청 1청사나 흥국체육관 주위도 옛날에는 바닷물이 들락거렸다. 장생포는 고려시대부터 전략적인 요충지였으며 선소가 이곳에 있었다. 고락산(鼓樂山) 서쪽아래, 장생포 가까운 거리에 '동동골'이 있다. 옛날 사직에 이상이 있거나 마을에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때는 이곳에서 북소리가 들렸다는 전설도 가지고 있다.

고려가요 '동동'은 바로 고려시대에 이곳 장생포와 동동골을 배경으로 유행했던 노래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이익(李瀾)의 『성호사설』에 의하면 '동동'은 북의 의성어임이 드러났다. 문헌의 기록과 역사적 배경을 종합해 보면, '고락산'은 북과 놀이와 관련된 산이며, '동동'은 북소리임을 알 수 있다.⁸¹⁾

81) 김준욱, 『장생포의 동동』, 한국언어문학, 35, 한국언어문학회, 1995.

2) 조선 전기

전라도 지역에 왜구의 침범이 잦아지자, 이곳의 수군(水軍)을 강화하기 위하여, 1479년(성종 10) 정월에 내례만호진(內禮萬戶鎭)에 전라좌도수군절도사영(全羅左道水軍節度使營)이 신설되었다.

수군들이 수조(水操) 때와 전투 때에 진격할 때는 북을 치고, 퇴각할 때는 징을 쳤으며 임진년(壬辰年) 4차에 걸친 승전을 이룬 후에 장졸들의 사기를 돋우고 위로하기 위하여 전라좌수영 본영인 여수 진해루(鎭海樓) 앞뜰에서 풍물굿을 쳐서 수군(水軍)들의 사기를 진작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손자병법』〈군쟁(君爭)〉에 의하면 북은 전쟁에서 진격신호로 이용되는데,⁸²⁾ 이순신장군의 각의 장계와 난중일기에 나타난 북과 놀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⁸³⁾

82) 言不相聽故 爲之金鼓 鼓不相見故 爲之旂旗 夫金鼓旂旗者 所以一人之耳目也.

83) 이은성, 『완역 이충무공 전서』, 삼문각, 1989, 301~465쪽.

1592년(임진) 9월 초1일 (장계에서)

닭이 울자 출항했다. <중략>우부장 녹도만호 정운(鄭運), 귀선돌격장 군관 이언량(李彦良), 전부장 방담첨사 이순신(李純信), 중위장 순천부사 권준(權俊), 좌부장 낙안군수 신호(申浩) 등이 먼저 곧바로 돌진하여 선봉 왜 대선 네 척을 깨부수니, 적도들이 헤엄쳐 물으로 오르므로 뒤에 있던 여러 배들은 곧 이 때를 이용하여 깃발을 올리고 북을 치면서 '장사진(長蛇陣)'으로 돌진했다.

1596년(병신) 음력 5월 5일 (난중일기)

경상수사가 씨름을 붙여 낙안 임계형이 으뜸이다. 밤이 깊도록 이들로 하여금 즐겁게 마시고 뛰놀게 한 것은 내 스스로에게 즐겁고자 한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고생한 장수들의 노고를 풀어주고자 한 것이었다.

1597년(정유) 9월 16일 (난중일기)

〈전략〉이때 우리의 여러 배들은 적이 다시는 침범해 오지 못할 것을 알고 일제히 북을 치며 나아가면서 지자총통, 현자총통 등을 쏘고, 또 화살을 빗발처럼 쏘고, 그 소리가 바다와 산을 뒤흔들었다. 〈하략〉

1592년 3차 해전인 한산해전에서 전라좌수영 수군을 주축으로 한 조선수군이 대승을 거두던 날 전라좌수영성 위에 있는 산이 삼일 밤낮을 크게 울어 그 소리가 종소리 같기도 하고 북소리 같기도 하여 이순신장군은 이 산을 종고산(鐘鼓山)이라고 명명했다는 전설이 전하고 있다.

또한, 여수시에 거주하였던 고노(古老)들의 증언에 의하면 임진왜란(壬辰倭亂)을 겪으면서 전란(戰亂)에 시달린 전라좌수영(全羅左水營) 영민(營民)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대동놀이로 협동심과 일체감을 고취시켜 국난극복의 촉진제로 '용줄다리기'가 시작되었다고 하는데 이때에도 대단한 풍물굿이 행해졌다고 전해진다.

1895년 7월 15일 전라좌수영이 폐영되었지만, 1847년(헌종 13) 여수 충민사(忠愍祀) 도유사(都有司) 허섬(許暹)이 편찬한 『호좌수영지(湖左水營誌)』를 보면 전라좌수영 안에는 취타군청(吹打軍廳)이 있었다. 취타군청이란 군영의 악대인 취군(吹軍)과 취타수(吹打手)를 관할하던 기관이다.

『호좌수영지』는 좌수영에 취군 131명, 취타수 35명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외에도 취수를 겸한 사령(使令) 16명이 더 있었다고 한다. 따라서 전라좌수영에서 음악을 담당하던 군인의 수가 모두 182명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조선시대에 군영의 취타수 역을 맡은 사람들은 대부분 무당집안 출신의 '무부'들이었다. 조선시대에 무당집안의 남자들이 담당할 대표적인 공역(公役)은 중앙의 장악청이나 지방의 관아, 병영 및 수영에 소속되어 악공(樂工)이나 취타수, 세악수(細樂手) 4등 음악과 관련된 일을 담당하는 것이었다. 일례로 조선후기 단성현(丹城縣) 호적을 보면 이들은 호적상에 '무부'로 기재되기 이전에 대체로 취타수의 직역을 지니고 있었음이 확인 된다.⁸⁴⁾

84) 이경업 외 『여수 영당』, 용어공 · 악공청, 민속관, 2007, 244-245쪽.

3) 조선 후기

이전의 기록이 없어 확인할 수 없지만, 약 100년 전에 홍국사 주지스님이 홍국사의 불사를 위해 걸립패를 조직하여 3개월 정도 연습을 한 뒤, 삼일지역과 돌산 등지 까지 다니며 걸립굿을 했다. 원호명 매구는 홍국사의 걸립패로 참여했던 홍수의(남, 작고)가 뿌리내리게 했다고 하며, 호명동 자내리의 자내 마을은 홍국사 스님으로 계셨던 박상용 스님이 매구굿을 아주 좋아하여 매년 고향마을에 찾아와 굿을 쳤다고 하며, 스님의 뒤를 이어 박남옥이 상쇠로 활동했다가 중쇠를 맡았던 김종연이 상쇠를 맡고 있다.

위의 두 가지 사례조사만으로도 홍국사가 여수지역 매구에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⁸⁵⁾

4) 여수 악공청 및 신청⁸⁶⁾

(1) 여수 악공청

여수는 바닷가라서 무속(巫俗)이 성행하였고, 전남지역에서도 단골판의 자격이 가장 높았다고 한다. 이런 점에서 1939년 이전에 이미 이 지역에는 흔히 '무부(巫夫)'로 불리는 무속집안의 남자악사들을 중심으로 일정한 조직이 만들어져 있을 가능성이 높다.

악공청을 악공청 보다는 흔히 신청으로 불렀다는 점도 악공청이라는 공식 명칭을 사용하기 전부터 이미 신청 형태의 조직이 있었을 가능성을 방증한다.

좌수영에 소속되었던 '무부'들은 좌수영 폐영과 함께 자신들의 조직을 꾸렸을 가능성이 크고, 그것이 현재 악공청의 전신인 신청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현재 악공청의 자리가 과거 좌수영의 영내에 자리 잡고 있다는 점에서도 이런 짐작을 가능케 한다.

여수 악공청의 기능은 타 지역 신청과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악공청수혜서(樂工廳樹惠序)'의 현판에도 나오듯이 전통 음악의 교육과 전승이 우선적인 기능 가운데 하나였다.

현재 여수 악공청의 교육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을 알기가 어렵다. 이와 관련된 것으로서 여수 악공청이 한때 예기조합의 기능을 했다는 사실이

85) 『여천시의 민속과 축제』, 순천대학교민속학연구원, 여천시, 1995, 61쪽

86) 이경업 외 『여수 영당 풍어굿』, 악공청, 민속원, 2007, 225~254쪽

다.

전라좌수영이 폐영되고 여수군(麗水郡)이 신설되었을 때에도 여수군 내의 공식적인 행사에서 역시 이들은 음악관련 역할을 했을 것이다. 이는 여수군이 신설된 직후인 1899년 『여수군읍지(麗水郡邑誌)』 「공청(公廳)」조에 여전히 '취수청(吹手廳)'이 나타나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1902년에 간행된 『여수읍지』에는 공청에서 취수청이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비록 관과 연결된 더 이상의 공식적인 조직이 존재하지는 않았으나 취수청에 속했던 이들은 여전히 이 지역의 공적, 사적인 행사에서 음악관련 역할을 담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근대로 오면서 지역사회에서 이들의 역할에 대한 수요는 점점 줄어들고, 무속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팽배해지면서 이들이 음악과 굿을 통해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게 된다.

그러자 음악을 즐기고 여러 행사나 잔치에서 이들의 필요성을 알고 있었던 여수지역의 유지들이 이들을 묶어두기 위해 경찰서나 학교, 관공서 등의 급사(急使)등으로 취직을 시켜 생활을 유지하게 하였다.

현재 여수 악공청은 대단히 쇠락한 상태이나 악공청 건물이 유지되고 있으며, 현재에도 선생안(先生案)과 악공청 관련 현판이 잘 보존되어 그에 대한 제의가 행해지고 있다.

이런 점에서 조선시대에서 일제까지 존재했던 전남 지역 신청의 전형적인 모습을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사례라고 할 수 있으며, 이 악공청에서 활동하던 예인(藝人)들이 여수지역 풍물굿에 많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측된다.

(2) 여수 신청

신청(神廳)의 기능으로는 무속계의 권익보호와 무속계의 상호부조, 무속계 전체 통합기능, 교육과 전몽의 전승 등 중요한 기능을 담당했다.

여수의 신청은 악공청의 전신이 신청일 가능성이 크다. 즉 공적으로는 이들은 향교 향제의 제례악이나 충무공 이순신 관련 제사나 영당굿에서 여전히 음악을 담당했고, 사적으로는 지역 부호의 잔치나 마을의 행사, 굿에서 음악을 담당했을 것이다.

사적인 측면에서 당시에 이들은 한편으로는 부인인 무녀들과 굿이나 치성

에서 무악을 연주하거나, 부유한 집의 잔치나 마을 행사에서 음악을 연주하는 것으로 살아갔을 것으로 추정된다.

마을행사와 관련된 이들의 역할을 알려주는 것이 여수 신청농악이다. 『(사)향토민속문화보존회』 정홍수 회장에 의하면, 여수 신청에 풍물패가 있었다고 한다. 이 풍물패는 정초에 집집마다 돌면서 걸립굿을 했는데, 신청의 마지막 임원이며 상쇠였던 사람이 생존했던 4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여수 신청 농악이 유지됐다고 한다.

오늘날 정초의 집돌이는 마을주민들이 하는 것만 남아 있지만, 원래 이러한 정초 집돌이도 이들 신청집단에서 했다고 한다. 이들 신청 집단에 의한 신청농악 걸립의 전통이 전남 영광에 남아 있다. 이들 무부들에 의한 정초 집돌이는 근대 이후에도 그믐날 관청에서 시작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영광의 사례에 비추어서 여수신청에서도 역시 관청에서부터 집돌이 걸립굿을 했다는 것이 아래의 사진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5) 근·현대

여수 오동도는 일제강점기 때 군사요새지로 묶여 있어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었다. 해방 후부터는 일반인이 자유로이 출입할 수 있게 되었는데,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되자 '국민회여수지부' 주최로 그해 9월 21일부터 3일 동안 오동도에서 대한민국 최초로 '정부수립 경축 군민대회'를 가진 것이 '오동도 추석놀이'의 첫 행사가 되었다.

이 '오동도추석놀이'는 그때까지 일본의 그늘에 가려 햇볕을 못 보던 농악·궁술·씨름·명창대회·그네뛰기·널뛰기 등 우리 민족



▲ 1950년대 여수 신청농악 (여수 진남관 앞)



▲ 「오동도추석놀이」 씨름경기에 모인 군중

고유의 전통민속놀이들이 다채롭게 펼쳐져 모처럼 우리 것을 되찾은 민족적 흥분과 환희가 장내를 열광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⁸⁷⁾

그 당시 강릉 경포대, 남원 광한루, 여수 오동도가 전국 3대 난장(亂場)으로서 많은 국악인들의

등용문이며 기량을 뽐내는 곳이기도 했다. 이 놀이는 여러 단체가 돌아가면서 주최하였고 1967년도까지 개최되었다.

여수의 원로들과 1920년 화정면에서 태어난 우도굿판의 명인 임재식의 증언에⁸⁸⁾ 의하면 오동도의 농악전국대회가 참으로 크던 곳이며, 유명한 명인들도 모두 초청되었으며, 관람객은 유료로 구경하였고 주최 측은 돈을 주체하지 못해 돈을 가마니로 운반했다고 한다. 이 '오동도추석놀이'는 전국적인 명인들의 출연으로 여수의 국악발전과 매구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사료된다.

(1) 여수매구의 전승계보

1840년대의 신청(神廳) 출신 김외대(金外大)가 명인으로 꼽힌다. 김외대의 기예는 안산마을 이삼용(李三龍)과 신월동 이넙수(李넙수)에게 전승되고, 다시 화양면 세습무계인 이꽃돌(李꽃돌)과 신월동 김백원(金白元)에게 전승되었다.



▲ 1970년대 김립농악

이들의 특징은 판굿과 축원굿이었다고 전하며, 신월동 김백원의 특징은 당산굿과 매구굿이었다고 한다. 애석하게도 김백원의 기예는 단절되고 이꽃돌의 뒤에는 화양면 백초리의 김경수와 소라면 복촌 마을의 정병호가 상쇠가 되었으며, 화양면 백초리의 김경수는 박문들에게서 배운 임재식에게도 전수를 받았다.⁸⁹⁾

87) 김계유, 「여수어천발전사(麗水峽川發展史)」, 반도문화사, 1988, 727~728쪽.

88) 굿연구소·풍물굿연구소, 「굿」 제9호, 1997, 54~56쪽.

89) 여수시, 「내고장 여수」, 개척기획, 1995, 180쪽.

90) 앞의 책, 181쪽.

(2) 일반적인 여수 매구의 편성과 복색 90)

여수매구에 쓰이는 악기에는 팽과리, 징, 장고, 북, 소고, 호적, 나팔들이며 기구로는 영기와 농기가 있다. 매구굿, 걸립굿, 판굿과 같은 굿을 칠 때는 영기 2, 나팔 1, 대포수 1, 창부 1, 조리중 1, 양반 1, 쫄쫄이 1, 화동 1, 각시 1, 팽과리수 3, 징수 2, 징고수 3, 북수 4, 소고수 11등 총 33명의 편성이다.

여수 매구의 편성과 복색

편 성	복 색
영기수	백색한복에 검은 쾌자를 입고 머리에는 패랭이를 쓴다.
대포수	포수관은 토끼껍질로 만들어 여기에 가는 나무를 가로로 연결한다. 꽃송이를 드문드문 달고 양 끝에 고리를 3개씩 사슬로 꿰어 백색도포를 입고 손에는 나무총을 든다.
창부	푸른 창옷을 입고 초립을 쓴다.
조리중	장삼에 송낙을 쓰고 허리에는 바랑을 진다
양반	도포에 정자관을 쓴다.
각시	붉은 치마에 노란 저고리를 입고 머리에 흰 수건을 쓴다.
화동	초립에 팽과리 2개를 꼽고 붉은 창옷을 입는다.
상쇠	쇠옷에 부모 상모를 쓴다. 쇠옷은 매구복이란 뜻이다. 붉은 반소매 통고리 소매 끝에 5색 간지통을 단다. 등에는 3색 드림을 드린다. 부모상모는 전립 꼭대기에 낫쇠나 나무를 깎아 징자를 달고 꼭대기에 여러 개의 구슬을 꿰어 꼭두머리와 같은 모양으로 달고 그 끝에 부드러운 노끈으로 한 뿔뿔 단다. 그 끝에 백지로 만든 부모를 단다.
중쇠·끝쇠	상쇠와 같으나 드림 대신 색띠를 맨다.
징수	고깔에 쇠옷을 입는다.
장고수	고깔에 쇠옷을 입고 색띠를 띤다.
북수	장고수와 같다.
소고수	북수와 같다.

91) 앞의 책, 182 ~ 183쪽.

(3) 일반적인 여수매구의 종류 91)

여수지역에서 치는 매구에는 정초에 치는 매구굿, 당산굿, 고사굿, 판굿 등이 있다.

① 매구굿

음력정월 초하루부터 초3일까지는 매구를 치지 않는다. 4일부터 매구를 시작한다. 쇠꾼들은 쇠옷을 입고 풍물을 들고 동청마당으로 나온다. 영기를 세우고 상쇠가 어림굿으로 굿을 이루고 길굿을 치면서 일열 종대로 열을 이어 당산으로 간다.

열을 짓는 순서는 영기 2, 나팔수, 대포수, 창부, 조리중, 양반, 각시, 상쇠, 중쇠, 종쇠, 장고수, 북수, 소고수 순으로 간다. 당산나무 앞에 이르러 당산굿을 친다.

당산굿은 매굿의 경우와 같이 친다. 당산굿을 마치면 다시 길굿을 치면서 마을에 들어와서 샘굿을 치고 지정된 집 앞에 이르러 문굿을 치는데 상쇠가 “쨌쨌, 문여소” 하는 쇠가락을 친다.

문굿을 치고 집에 들어가 샘굿을 치고 마당굿을 치는 동안 대청 앞에 고사상을 차린다. 고사상은 소반에 쌀을 가득 담은 그릇을 올려놓고 그 위에 양초에 불을 밝혀 쬐는다. 그리고 술상을 차려 마당에 놓으면 둘러서서 술굿을 치고 부엌에 들어가 정지굿을 친다.

대포수나 창부가 솔뚜껑은 거꾸로 세워두고 그 위에 대주양반 밥식기에 쌀을 담아 촛불을 쬐고 이것을 솔 위에 놓는다. 상쇠는 성주상 앞에서 성주풀이를 한다.

쇠꾼들은 장독으로 가서 철룽굿을 치고 상쇠는 “철룽철룽 우철룽 좌철룽 우철룽”하는 소리를 쇠가락으로 친다. 철룽굿을 마치고 노적가리에서 노적굿을 치며 마당을 돌고 나간다.

② 당산굿

당산굿은 마을의 수호신인 당산나무 앞에서 연주하는 매구를 당산굿이라 한다. 당산에 진입하기 전에 “쨌쨌, 문열소”하는 소리를 쇠가락으로 친다.

입장하여 당산나무 앞에 들어서면 영산다드레기를 치고 당산을 두 바퀴 돌고 당을 향하여 일렬로 정렬한다.

쇠맛침 가락 “채이, 채이, 지채이, 채이, 제제이, 채이, 채이” ----- 계속 연주하고 상쇠와 부쇠가 짝드름 가락을 친다. 북놀음 구정놀이로 상쇠의 상모놀이가 계속되고 쇠를 맺고 다시 느린 삼채가락으로 연주하면 상쇠는 쇠

춤을 춘다. 다시 영산 다드레기를 연주하면 영초(나팔)삼장을 불고 퇴장한다.

③ 판굿

상쇠는 정문3채와 느린 3채 순으로 치면서 마당으로 입장한 다음, 일채에서 칠채굿까지는 시계 반대방향으로 돈다. 쇠가락을 “갱갱갱”하고 한 박에 일점식 치면서 들고 장고, 소고잡이는 그대로 들고 쇠잡이, 징잡이, 잡색들은 안으로 들어가 이리저리 돈다. 이렇게 안팎으로 두 개의 원을 그리고 돌며 허허굿 가락을 낸다. 혼합박자인 허허굿가락을 치면서 사이사이 “허허”를 외친다.

본래의 기본 진을 유지하며 짝드름으로 쇠가락을 주고받은 후, 쇠가락을 맺고 풀 때마다 방향을 바꾸어 간다. 상쇠가 풍류가락을 내면 느린 풍류굿으로 들어간다. 쇠잡이 잡색이 가운데서 놀면 빨랐던 분위기가 늦춰진다. 굿거리 한배인 느린 풍류가락을 치며 오른쪽으로 겹 원을 쌓아 돈다.

반풍류, 미지기영산, 수박치기, 등지기, 탈머리굿의 순서로 계속 유희하다가 원진을 돌며 상쇠가 “별따자 별따자 하늘잡고 별따자”, “콩꺾자 콩꺾자 느림나무 콩꺾자”, “갈리세 갈리세 구경꾼도 갈리세”를 외치면서 각각 다른 가락을 치고 난 후 구경꾼과 합세하여 뒤풀이를 한다.

(4) 최근의 여수 매구굿 ⁹²⁾

① 삼암동 읍동 매구

가) 매구패의 구성

매구치기는 정월 초에 이루어졌고, 매구패는 22~23명 가량이다. 팽과리를 깡쇠라고 하며 상쇠 이외는 종쇠라 부른다. 징이나 장구의 경우는 각각의 호칭이 없고 북은 고수와 부고수로 나누어 있다.

잡색 중에서 광대는 탈을 썼다고 하는데 어떤 이름인지는 모른다고 한다. 매구는 깡쇠 3명(상쇠, 종쇠 2명), 징 2명, 장고 2명, 북 2명(고수, 부고수), 소고 12~13명, 잡색(농기 1명, 영기 2명, 쫄쫄이(남녀) 2명, 대포수, 광대)으로 구성 되었다.

92) 여천시문화원, 『여천시지 (麗川市誌)』, 호신나인쇄소, 1998, 580 ~ 583 쪽

(사)한국국악협회, 『여천시 향토놀이 자료집』, 도서출판 문화기획, 1994, 172 ~ 173쪽

나) 매구치기

매구치기는 정월 3일경에 치게 된다. 먼저 마을 앞 냇가에 있는 정자나무에 당산굿을 친다. 당산굿에서는 제관이 따로 없고 제를 모시거나 음식을 차리지 않고 굿만 친다. 이어서 마을 공동 샘에 가서 샘굿을 친다. 샘굿을 친 다음부터 각 가정을 돌면서 문굿, 마당굿, 술굿, 정지굿(부엌굿), 샘굿 순으로 매구를 쳤다고 한다.

다) 만경매구

논매기는 초별, 중별, 맏논 세 번 한다. 이때마다 매구를 치고 들노래를 부르면서 일을 했다. 이 중에서 특히 맏논을 '만경'이라 했는데 만경을 할 때는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 일을 했다. 만경은 각 집에서 장정들이 한 사람씩 나와 논매는 것을 말한다. 만경 때 논매는 것은 초별, 중별보다 집단적이고 광범위한 것이었으니 매구 역시 큰 규모로 이루어졌다.

아침 일찍 사람들이 마을 앞에 모이면 매구를 치면서 논으로 이동한다. 이때 농기와 영기를 앞세우고 팽과리, 징, 장고, 북 순으로 따라 간다.

길곳을 흥청거리게 치고 가다 논에 도착하면 사람들은 논에 일하러 들어가고 매구패들은 팽과리, 징, 장고 등 2~3명이 남아 풍물을 치게 된다. 이때는 놀이굿이라 하여 흥겨운 가락을 치는데 놀이굿은 주로 삼채굿을 친다.

② 여천 백초농악

가) 유래

백초마을은 동물가면을 이용한 가장을 포함한 전라좌수영 수군들의 진중농악의 형태가 전해지는 '신추농악'이 유명한 마을이었다. 조선시대 군마를 기르던 곳으로 이 마을의 선인들은 대부분



▲ 백초농악

목동 생활을 하고 살았다고 한다.

이곳은 오지이기 때문에 타지와 교류가 없어서 나름대로의 특징을 가진 풍물굿을 가지게 된 것으로 추측된다.

그동안 백초농악을 지도했던 김경수(남)가 2004년 작고하여 전승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주변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나) 특징

백초마을의 풍물은 다른 지방처럼 쇠꾼과 징수, 장고수, 북수, 무동 그리고 잡색으로는 도포수(대포수)나 각시 등이 있다. 이 밖에 특이한 점은 말(장군을 포함)을 비롯하여 소, 호랑이, 곰, 사자, 원숭이 등의 동물 가장꾼과 줄 인형을 조작하면서 노는 무동 가장놀이가 있다.

이 마을의 풍물은 사물보다 오히려 가장놀이가 중심이 되어 있어 꿩과리나 징, 장고 북수 등의 사물잡이들은 주로 가장놀이꾼들의 연주를 도와주는 반주 역할을 한다는 것이 특징이며, 이 마을의 풍물은 호남 좌도풍물 계열이나 현재는 우도풍물 가락을 많이 쓰고 있으며, 잡색들의 놀이인 1인 2역의 인형극 형식의 가장놀이와 압늬 수늬의 동물 가장놀이는 다른 지역에서 볼 수 없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다) 구성 및 복장

백초농악의 구성은 상쇠, 종쇠, 징, 장고, 북 그리고 잡색으로는 거사, 각시, 무동, 소, 호랑이, 사자, 말과 장군 등으로 구성되어 지며 복장은 다음과 같다.

라) 놀이방법

풍물패는 길곳을 치면서 가까운 집에서부터 집 고사를 지낸다. 상쇠는 쇠가락으로 “권권 문열소 들어갈까 말까” 하면서 문곳을 치면 주인이 나와서 마당으로 안내한다. 마당을 들면서 몇 차례 흥을 돋우고, 주인은 상에 정화수한 그릇과 쌀을 담은 그릇에 초를 꽂아 불을 밝혀 내놓는다.

풍물패들은 대청 앞에 나란히 서고 상쇠가 쇠가락으로 “구석구석 네구석”

“방구석도 네구석”하고 성주풀이를 한다. 이어서 샘굿을 치고 부엌에 들어가 조왕굿을 한다. 그리고 장독대에 가서 철룽굿을 친다. 상쇠가 쇠가락으로 “마당 마당 마당아” “철룽마당 밭아라”하고 마당으로 돌아와 술굿을 친다 “어서 치고 술 먹세”한다.

이렇게 마당을 몇 차례 돌면서 흥겹게 놀다가 다음 집으로 떠난다. 판굿은 공동진(명석말이)부터 시작된다. 십자진, 오방진, 일자진 그리고 가장놀이로서 소놀이와 곰놀이, 사자놀이, 거사와 각시놀이 등의 순서로 진행되고 마지막 뒤풀이를 한다.

표 25. 여천 백초농악 구성 및 복장

구 성	복 장 및 역 할
상쇠, 종쇠	신라복에 전립을 쓰고 부모를 달아맨다.
장수, 북수	신라복에 고깔을 쓴다.
장고	신라복을 입고 머리에는 리본을 단다.
대포수	대포수 복장을 입고 망태를 어깨에 둘러 메고 팽과 토끼를 달아매고 손에 목총을 든다.
각시	노란저고리에 빨간색 치마를 입는다.
양반	흰 두루마기를 입고 담뱃대를 든다.
소	얼굴에 탈을 쓰고 웃은 소의 가장물을 입는다. (암놀이와 수놀이 있다)
곰	얼굴에 곰 머리 탈을 쓰고 곰 의상을 입는다.
호랑이	호랑이 탈을 쓰고 가장물을 입는다.
말과 장군	1인 2역으로 분장하는데 상의는 장군복을 입고 발은 말발처럼 검은 색의 옷을 입고 옷감과 나무 조각으로 말 머리를 만들고 꼬리를 만들어 허리에 고정시켜 마치 장군이 말을 타고 있는 것처럼 가정한다.

③ 기타

위 외에도 주삼동 봉계, 중흥동 두암, 호명동 원호명, 안산, 봉강마을, 해산마을, 호명마을, 자내마을, 용성마을, 묘읍마을, 온동마을, 적량매구굿이 있었다.

(5) 현재의 여수 매구

① 돌산 군내리 방답진 농악

돌산 군내리 방답진 농악은 조선시대 전라좌수영 관하에 최전초 기지로 1522년 방답진 설치(防踏鎭設鎭)에 따라 군악의 영향을 받은 진중농악 진 놀이 삼방진과 벽꾸놀이 공연이 주를 이루며 전라좌수영의 호국문화의 장을 되찾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돌산을 방답농악회(회장 : 이주안)는 군내리 군내, 동내, 서외, 남외 등 4개 지역에서 전래돼 이어져 내려오던 농악을 2008년 3월에 새롭게 재구성, 현재의 방답진 진중농악으로 꾸렸다. 방답진 진중 농악놀이는 2009년 10월 “제1회 여수시 민속놀이 한마당 행사”에 25개 읍면동 대표팀이 참가해 경연한 결과,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② 석보농악⁹³⁾

가) 유래

석보라는 명칭은 조선조 때 시전리에 있었던 군수창인 “석보창”에서 유래된 것으로 추정된다. 시전마을은 옛날에 5일과 10일에 정기적으로 열리는 석보장터이다.

석보창은 지리적으로 교역의 요지였으며 순천에서 여수로 통하는 관로는 석창에서 시전을 경유하게 되었으며, 시전포구는 남해와 서해로 통하는 해로가 좋았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시장 주변에 풍물패와 각설이가 모여들기 마련이며, 마을 주민의 증언에 의하면 남사당패가 놀이마당을 펼쳤고 안산마을 세습단골 김외대가 판곳에 나타나면 남사당패 꼭두쇠가 허리를 펴지 못하고 팽과리를 말렸다고 한다.

김외수는 130여 년 전에 승주군 낙안에서 전입한 예인(藝人)으로 전국을 누비는 직업 걸립패 상쇠였으며, 여수 이넙수에게 기능을 전수 시켰으나 일제 수난기를 거치면서 풍물은 변이 되고 화양면 백초마을의 김경수에 의해 그 기능이 체계화 되어 현재의 석보농악단 편열우(남)에 의해 그 맥이 이어져

93) (사)한국국악협회, 『여천시 향토농악자료집』, 도서출판 문화기획, 1994, 100~121쪽

왔다.

지역적 위치로 보아서는 석보농악이 호남 좌도농악에 속하기는 하나 두 갈래의 전승계보로 인해 호남좌도의 장기와 호남우도의 장기를 수용하여 독창적인 농악 유형을 정립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나) 악기 편성

석보농악은 팽과리(팽매기-상쇠, 종쇠, 삼쇠, 끝쇠) 4명, 징(쟁-수쟁, 부쟁) 2명, 장고(설장고, 부장고, 삼장고, 끝장고) 4~6명, 북(수북, 부북, 삼북...끝북) 6~8명, 소고(법구 또는 소구-수법고, 부법고, 삼법고...끝법고) 12~14명, 태평소(쇄납 또는 날나리) 1명, 나팔(취대), 농기 1명, 석보농악단기 1명, 영기 2명, 대포수, 쇠납, 조리중, 양반, 각시, 농부(모동) 쫄쫄이 등으로 편성되었으며 농악대원을 '치배'라 하며 팽과리잡이는 '쇠군'이라 하며 농악대의 복색은 '치복'이라고 하였다.

다) 쇠가락

석보농악의 쇠가락에는 외채, 이채, 삼채, 짝두름, 길굿, 정근굿, 영산다드레기굿, 원머리굿, 등미지기굿, 허허굿, 별파세굿, 일하루굿, 양산도굿 등이 있다.

③ 만흥동 평촌농악

둔덕동 용수마을 상쇠 김용민(남, 작고)의 전통을 이어 받아 최순길(남)이 현재 평촌농악 상쇠를 맡고 있으며, '여수우도풍물굿보존회' 김영(남)이 지도하고 있다.

④ 삼동마을 매구

가) 매구 유래

주삼동 삼동마을은 경상도 하동으로 가는 삼일포구와 순천으로 가는 여수반도의 중요한 길목이며 각종 물산의 이동이 활발했던 지역으로서 풍물굿이

시작된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으나, 옛날부터 '구정촌', '폰남쟁이', '건네몰' 3개 마을이 정월 보름, 칠월 칠석, 한가위 때 경쟁적으로 풍물굿을 즐겼다고 한다. 현재는 여수국가산업단지 확장공사로 인하여 마을 공동체가 해체될 예정이다.



▲ 삼동마을 매구

나) 삼동마을 매구의 상쇠 계보

1800년대 이전 마을 상쇠의 계보는 알 수가 없다. 상쇠를 하던 허○○씨의 뒤를 이어 1835년에 경주정씨가 입향했다. 그 후손인 정순조(남, 작고)가 그의 뒤를 이어 받고, 손토방(남, 작고)과 김소돌(남, 작고)로 전수되었다. 손봉원(남, 작고)의 아들인 손양래(孫良來, 남)은 여수 신월동에서 태어나 17세 때 삼동으로 이주해 온 이연수(남, 작고)와 함께 그 뒤를 이었는데, 약 16년간 단절되었다가 지금은 손양래의 아들인 손웅(孫雄, 남)이 상쇠로 활동하고 있다.

다) 삼동마을 매구의 복식

복식은 흰색바지저고리에 누런 광목의 조끼를 입고 좌청, 우적의 복색을 하고 허리에는 황색의 띠를 두른다. 기수를 제외한 모든 지배들은 머리에는 개꼬리상모를 착용한다.

라) 삼동마을 매구의 악기 편성 및 행렬 순서

삼동마을 매구의 악기 편성에 따른 행렬순서는 영기2→기2→농기→단기(마을기)→상쇠→부쇠→삼쇠→끝쇠→수징→부징→설장고→부장고→삼장고→사장고→끝장고→수벽구→이벽구→삼벽구→사벽구→끝벽구→상소고→부소고→삼소고→사소고→오소고→육소고→끝소고→잡색(대포수, 양반, 각시, 초랭이, 목중)으로 구성되어 있다.

마) 열두마당

(가) 당산제 및 당산굿

당산제는 우리나라 민간 신앙에서도 오랜 역사를 가진 것으로, 마을공동체의 성원들이 그들 모두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갖는 집단 제의다. 따라서 마을사람들은 당산제를 통하여 서로가 자기 마을인임을 확인하고, 단일공동체로 인식함으로써 단결을 꾀하여 마을을 유지 강화시켜 나가고 있다. 그러므로 당산제는 지역 공동체적인 성격을 띠어 마을마다 그 특유한 당산제형식을 낳기도 하였다.



▲ 당산제

매년 정초에 마을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하는 의식굿으로 마을 보리마당에 모여 굿의 시작을 알리는 어울림굿을 시작으로 수리길굿을 치면서 당산나무로 향한다.

“앞도 당산 뒤도 당산, 당산도 삼천리”의 사설을 한 후 가락을 치고, 당산제를 지내고 나서 삼채굿으로 내두름을 하고 이채굿으로 맺는다.

(나) 길굿

보통 길을 지날 때 치는 가락으로 우도 풍물굿의 (우길굿, 좌길굿)과 일백상통하는 가락으로 전라좌도지역 순천, 광양, 보성, 고흥, 여수 등지에서 사용되는 가락이다. 삼동마을에서는 ‘12채 길굿’이라고도 하며, 여수 전역에서 사용되고 있으나 점차 잊혀져가는 가락이다.

수리길굿은 발에 맞추어 가락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허튼 몸짓에 가락을 연주하는 형태로 매우 여유롭고 풍요롭다.

풍년길굿은 넓은 길을 가거나, 들판을 지날 때 또는 풍물굿을 치기 위해 입장할 때 주로 사용되는 가락으로 굿거리 풍의 12/8박의 리듬으로 매우 느리고 풍요로우며 멋스러운 가락이다.

(다) 문굿

대문은 조선시대 민택삼요(民宅三要 : 살림채, 부엌, 대문)의 하나로서 특별히 중요한 곳으로 여겨졌다. 대문은 사람이나 물건이 출입할 뿐 아니라 초자연적인 외부의 영향들로부터 집을 보존하는 역할을 한다.

문굿은 안택으로 들어가기 전에, 주인에게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을 구하는 곳으로 삼채가락과 이채(휘모리) 가락으로 이어지며, 전형적인 좌도음악의 단조롭고 힘이 넘치며 남성스러운 멋을 지니고 있다.

가락을 맺고 난 후 상쇠가 “매구여~”하고 부르면 치배들이 “어~이”하고 대답하고 이어 상쇠가 “문여소 문여소 쥘 쥘 문여소”하면 사설에 맞춰 가락을 연주한 후 상쇠의 신호에 따라 응마깡깡가락으로 넘겨서 휘모리 가락으로 맺는다.

(라) 입장굿

주인이 문을 열어주면, 영기와 농기를 앞세워 모든 치배들이 순서대로 입장을 하는데, 이때는 징의 선소리로 모든 치배들이 7분박의 가락을 치며 입장한 후 우물 앞에 모여 상쇠의 신호에 따라 빠른 입장굿으로 연결한다.

(마) 샘굿

샘은 마을 생명의 근원적인 장소가 되며, 샘을 통하여 사람들은 비로소 생기를 지닌다. 당산은 범하지 못하는 금지된 장소로서 신성함이지만, 샘의 신성함은 늘 일상의 한 가운데 있다. 샘에는 정신(井神)이 있어 물이 마르지 않게 한다고 믿어 왔다. 항상 열려있는 일상의 공간으로서 샘의 신성함은 바로 모든 생명을 잉태하고 번성케 하여 마을의 생존과 번영에 항상 영향을 미친다.

제일 먼저 입장하여 찾아가는 곳이 샘으로서, 샘을 빙 둘러서서 빠른 삼채가락과 이채(휘모리) 가락으로 맺고, 사설과 같이 가락을 친후, 응마깡깡 가락으로 맺는다.

(바) 조왕굿(부뚜막신)

부엌은 집안의 모든 음식이 조리되고 난방을 하는 곳으로서 불을 다루는 곳이다. 원시주거에서는 불이 주거공간의 중심을 이루었으며, 불은 점화력을 갖는 종교적인 상징체로서 숭배의 대상이 되어왔다.

집을 새로 짓거나 이사를 하면서 집들이(入宅)고사를 할 때도 불씨를 먼저 가지고 들어가거나 남이 먼저 들어가 불을 붙이는 행위는 바로 조왕신에게 왕성한 화력, 풍부한 식량공급, 좋은 취사도구를 기원하는 것이다.⁹⁴⁾

조왕이란 부엌을 일컫는 말인데 엄밀히 말하면 아궁이 위에 떠놓은 정안수를 일컫는 말로, 이때는 잠귀 잠신을 몰아내고 명과 복을 비는 뜻으로, “입담 해담 관제구설 삼재팔난을 물알로 제수하시고 명과 복만 쳐드리세”의 사설과 삼채 가락과 빠른 이채 가락인 휘모리 가락으로 맺고 절을 동남, 남서, 서북 방향으로 세 번한다.

(사) 철룽굿

철룽굿은 집 뒤편에 집을 지켜주는 철룽신을 부르는 굿으로, 엄밀히 말하면 철룽은 뒤편의 굴뚝을 일컫는다. 사설을 보면 “앞철룽 뒤철룽 철룽철룽 올리세”, “앞철룽도 올리고 뒤철룽도 올리고 철룽철룽 올리세”와 삼채가락, 빠른 휘모리 가락으로 맺으며 절을 세 번 올린다.

(아) 노적굿

마당은 생산 공간이자 생활공간으로서 다목적으로 쓰여야 하기 때문에 마땅히 비워져 있어야 했다. 더구나 주 건물 자리가 풍수상의 혈(穴)이라면 마당은 양기를 받아들이는 곳으로서 수목으로 마당을 채우는 것을 금하였다.

노적굿은 곡간의 풍요를 기원하는 굿으로 “노적이야 노적이야 남한산성 노적이야, 콩격세 콩격세 두럭 넘어 콩격세” 사설과 같이 굿을 치며 빠른 삼채 가락과 휘모리 가락으로 맺고 절을 세 번 올린다.

94) 국연구소·공물국연구소, 「굿·제약호」 1997, 100쪽.

(자) 안택굿

안택굿은 마루 위 향아리에 가득 담긴 쌀 위에 초를 꼽고 비손을 하며, 액땀이 소리와 함께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의식굿으로, 상쇠가 앞소리를 하면 지배들이 뒷소리를 따라 부르는 소리굿으로, 느린 삼채가락에 맞춰 노래를 부른다. 소리가 끝나면 느린 삼채가락과 빠른 삼채가락 웅마깡깡 가락인 이채(휘모리) 가락으로 맺는다.

(차) 술굿

풍물굿 뿐만 아니라 모든 굿판에서 음식과 술이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은 결코 간과 할 수 없다. 배부름과 춤과 노래와 악과 놀이가 함께 했을 때 굿판은 풍성해지고 신명은 보다 배가 된다. 술은 이성의 굴레를 벗어나는데 촉매제 역할을 해낸다.⁹⁵⁾

집 주인이 지배들에게 내어 놓은 술과 음식을 음복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사설은 “어서치고 술먹세 조포국(두부국)에 김 나가네”이다. 가락은 빠른 삼채가락과 빠른 휘모리 가락으로 맺고 웅마깡깡가락으로 마무리 한다. 가락은 빠른 삼채가락과 이채(휘모리) 가락으로 맺는다.

(카) 놀이굿

술굿이 끝나고 뒤풀이를 하는 굿으로 놀이굿에는 풍년길굿을 시작으로 영산다드래기와 삼채가락, 허허굿, 자진허허굿, 유산굿, 자진유산굿, 병어리삼채로 구성되며 각 잽이들의 기량을 자랑하는 마당이다. 특히 북잽이, 장고잽이, 소고잽이들의 개인놀이를 하는 마당이며, 가락은 풍년길굿 가락인 12/8 박의 굿거리 풍과 삼채가락, 이채(휘모리) 가락으로 맺는다.

(타) 기잽이놀이

기잽이놀이는 개인놀이 마당의 끝 순서에 나오는 놀이로 삼채가락에 맞춰 용기를 들고 춤을 추며 용기를 가지고 논다.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춤을 추다가 한손으로 노는 놀이와 어깨와 머리위에 기를 올려놓고 재주를 부리는 놀이

를 진행한다. 큰 원으로 용기가 돌아갈 때는 모든 치배들이 함성을 지르며 이채(휘모리)가락과 흘림가락에 맞춰 흥겹게 놀이마당을 끝낸다.

특히 원을 그리며 돌리는 용기놀이는 숙달된 기법이 아니면 돌릴 수 없는 놀이다. 가락은 삼채가락과 이채(휘모리) 가락으로 이어진다.



▲ 삼동매구 기괘이놀이

※ 인사굿

인사굿은 전체마당이 모두 끝났음을 알리는 굿으로 가락에 맞춰 뒤로 돌아서서 관객에게 인사를 하고 퇴장한다.

⑤ 매구의 전승교육과 여수시립국악단

2009년 12월 현재, 여수는 호남좌도매구와 호남우도매구가 혼재되어 있는 상태로서, 호남좌도는 '여수좌도농악진흥회'를 중심으로 전승되고 있으며 '놀이패벽수골'에서도 꾸준히 전수모임을 갖고 있다. 호남우도는



▲ 시립국악단

'여수우도풍물굿보존회'를 중심으로 각종공연과 시민교육 활동을 하고 있다.

전승교육은 각 동 주민자치센터 풍물반, 평생교육 강좌, 마을과 직장내 풍물반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호남좌도는 주삼동, 시전동, 한려동, 문수동은 손웅(남), 대교동 전남숙(여), 동문동 황재중(남), 호명동과 여도초등학교 풍물반은 홍진기(남)가 지도하고 있다. 호남우도는 김영(남)이 여서동, 울촌면, 화양면 화동리, 만흥동 평촌마을 등에서 지도하고 있으며, '여수진세보존회'는 김영운(남)이 지도하고 있다.

새마을사업이 시작되던 1970년대 초반까지 여수시의 모든 마을에는 매구

가 걸립굿을 했지만, 급격한 도시화와 농어촌의 고령화로 인하여 마을단위의 매구는 소수만 남았으나, 2009년 10월에 여수시가 25개 읍면동 대표들이 참여한 '제1회 여수시 민속놀이 한마당'을 개최하여 사라져 가는 여수 매구를 살리는데 큰 기폭제 역할을 하여 주었다.

그리고 그동안 원로국악인들의 노력으로 2000년 7월 '여수시립국악단'을 창단하여 그동안 19회의 정기공연과 매년 30회의 연주활동을 하고 있다. 50여명의 단원 중에서 매구와 관련된 악기는 팽과리, 북, 징, 장고, 태평소가 있다.



▲ 사물놀이

참고문헌

『손자병법(孫子兵法)』

김계유, 『여수여천 발전사』, 반도문화사, 1988.

김봉균, 『여천시 향토농악자료집』, 문화기획, 1994.

김준옥 외, 『지역축제 발전 방안 연구』, 여수시, 2009.

김준옥, 『여수, 아으 동동다리』, 민속원, 2004.

김준옥, 『장생포와 동동』, 『한국언어문학』35, 한국언어문학회, 1995.

나경수 외, 『여수시 마을굿』, 민속원, 2008.

양진성 외, 『호남좌도풍물굿』, 1990.

여수시, 『내 고장 여수』, 까치기획, 1995.

여수시문화원, 『난중일기(亂中日記)』, 서울기획, 1996.

여천시마을유래지편집위원회, 『여천시 마을 유래지』, 여천시, 1986.

여천시문화원, 『여천시지』, 호산나인쇄사, 1998.

이경엽 외, 『여수영당 · 풍어굿 · 악공청』, 민속원, 2007.

전라남도영산호관광농업박물관, 『농악복식 및 기구특별전』, 도서출판 무
돌, 1997.

(사)진남제전보존회, 『진남제 30년사』, 동성인쇄사, 1997.

지춘상 외, 『남도민속학 개설』, 태학사, 1998.

진 옥, 『호국의 성지 흥국사』, 흥국사, 1989.

최덕원 외, 『여천시의 민속과 축제』, 여천시, 1995.

풍물굿연구소, 『굿』제9호, 1997.

풍물굿연구소, 『굿』제10호, 1998.

허 섬, 『호좌수영지』, 충민사, 1847.

제 4 장

역사가 살아 숨 쉬는 설화

허 승 호 (여도중학교 교사)



설화는 이야기판에서 생성, 전달, 전승 되는 언어 예술이다. 설화의 특징은 일정한 구조를 가진 꾸며낸 이야기로, 전승과정에서 개변(改變)이 불가피하게 발생한다. 설화가 지향하는 형태는 대체로 신화, 전설, 민담의 세 갈래가 있다. 이 세 갈래들은 주인공의 성격과 행위, 시간과 공간, 전승자의 태도, 전승 범위, 증거물 등에서 뚜렷이 구분되는 특징을 보인다.

여수지역의 구비문학은 신화, 전설, 민담 가운데 전설이 많이 채록 되어 남아 있다. 대부분 전설은 보편적인 이야기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백도, 마을 당제 등에서는 신화적인 면도 엿볼 수 있다. 민담은 무당굿과 관련한 바리데기, 소금장사, 방귀쟁이 며느리 등이 구전되어 전한다.

그동안 여수 지역의 설화는 단편적으로 읍·면 기관에서 발간한 읍·면지, 향토지의 권말에서 찾아 볼 수 있었다. 그런데 순천대학교 남도문화연구소(1996)의 구비문학 용역결과 보고서는 구비문학을 다양한 방면까지 채록하여 놓았다. 또, 김준옥(1998, 2004)의 논문과 책은 여수지역의 설화를 총체적인

입장에서 분석하고 현대적인 감각에 맞게 살려 놓은 귀중한 자료이다.⁹⁶⁾

필자는 위의 두 자료를 토대로 여수 지역의 구비문학을 정리해 나가되, 전설의 분류와 체계는 김준옥의 기준과 방법을 참고하였음을 밝혀둔다.

제1절 전설

전설은 증거물을 근거로 진실성을 드러내고자 하는 이야기다. 전설에는 실제 사건과 관련된 것도 있다. 그러나 믿기 힘든 기이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진실성에 대한 의심이 제기되곤 한다. 이때 증거물은 이들이 실제 있었던 일인 것처럼 뒷받침해 주는 장치로 작용한다.

여수지역의 전설은 역사의 질곡 속에서도 면면히 이어온 기층민들의 삶의 애환과 정신세계를 엿볼 수 있는 귀중한 자산이다. 여수지역도 다른 지역의 전설과 같이 광포 전설의 특성이 드러난 반면에 여수지역의 색채를 띤 특수성도 지니고 있다.

우리 지역에 널리 알려진 <용바위>, <마녀목>, <쌀굴 이야기>, <효자 이현두>, <조산>, <석창성 축성 유래>, <노적봉> 등은 어느 지역에서나 보편적으로 전해 내려오는 전설이다. 특수성은 임란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임란 전설이 부각된 반면에 상대적으로 고승, 열녀 전설이 빈약하다. 이런 이유는 지정학적 위치와 역사적인 사건과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1. 신화적 모티브와 신이(神異) 전설

전설의 문학적 구조는 증거물로 뒷받침되는 사실적 근거와 실제로 일어난 것으로 믿기 어려운 허구적 내용이라는 상반된 현상이 하나의 이야기 안에 공존하고 있는 기묘한 긴장관계를 보여준다.⁹⁷⁾ 기묘한 긴장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신화적 모티브가 나타나기도 한다.

이러한 신화적 모티브를 보이는 전설로는 백도 유래, 당 신화, 경도, 신지계, 글성바위와 같은 이야기는 일반 전설과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당제에서

96) 순천대학교 남도문화연구소(1996)의 『여수구비문학 발간 및 우정문화재 발간에 따른 자료조사 학술원력 결과 보고서』는 여수 지역의 구비문학을 전설·민요·민요, 무가, 속담·수수께끼·속신어·금지어, 방언 등을 채록하여 정리한 자료다. 김준옥(1998)은 『여수지방의 구비전승에 관한 연구』에서 여수 지역의 전설과 민요를 총체적인 측면에서 분석한 연구 논문으로 여수지방의 구비전승의 연구 방향을 제시하고 있어, 여수지역의 전설 양상을 현논에 알 수 있다. 또 김준옥(2004) 『여수 아도 동등다리는 여수의 전설을 현대적 감각으로 서술한 책이다』

97) 강동학 외 『한국 구비문학의 이해』, 월인, (2000), 123쪽.

당골이 곶판을 여행하는 내용을 분석해 보면 신화적 모티브를 많이 찾아 볼 수 있다. 당제는 다른 장에서 논의가 되기 때문에 당신화는 논외로 한다. 신화적 구조의 핵심은 천상적 존재의 하강과 지상적 존재의 만남인 천부지모(天父地母)구조가 보편적이다.



▲ 백도

백도는 옥황상제라는 천상적 존재와 용왕님이라는 지상적 존재의 만남으로 이루어졌다. 신화에 나타나는 지상적 존재는 그 상징이나 방법이 다양하다. 「단군신화」(웅녀)에서는 '곰'의 변신으로, 「혁거세신화」(알영)에는 계룡의 현신으로, 「수로왕신화」(히왕옥)에는 바다를 건너 도래한 존재로 나타나는 등, 지상적 존재는 동물계, 인간계, 산신 및 수신계에 걸쳐 다양하다.

백도의 탄생 유래에서도 지상적 존재가 기존의 상징에서 변이된 용으로 치환된다. 이러한 용의 지상적 존재는 백제 무왕의 신화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어머니가 연못가에서 용을 만나 서동을 잉태한다.

백도(白島)는 태초 옥황상제의 아들이 아버지의 노여움을 받아 유배되어 왔다는 전설이 있다. 그는 용왕님의 딸과 눈이 맞아 바다에서 풍류를 즐기며 세월을 보냈다. 옥황상제는 아들을 뉘우치게 하기 위해 멀리 인간 세상에 귀양 보내기는 했으나 세월이 흐르면서 아들이 몹시 보고 싶어졌다. 신하들을 내려 보내어 데려 오게 했지만 아들을 데리러 간 신하들마저 돌아오지 않았다. 이윽고 돌아오지 않는 수가 100명에 이르렀다. 옥황상제는 화가 나서 아들과 신하들에게 벌(罰)주었더니 모두 크고 작은 섬이 되어 백도가 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플롯 전개는 천부지모의 구조로 해석할 수 있겠다.

경도(鏡島)는 서너 개의 비슷한 이름을 가지고 있다. 서울 '경(京)자' '경도(京島)라 부르기도 하고, 섬 전체가 고래처럼 생겼다해서 고래 '경(鯨)자' '경도(鯨島)라 부르기도 한다. 또, 일제강점기 때는 섬 주위의 바다가 거울처럼 맑다 해서 거울 '경(鏡)자' '경도(鏡島)라 했다.

경도(京島) 내동마을 앞에는 '성산'(약 100m)이 있다. 이 성산에 전해 내려온 이야기는 고려 후기, 왕비가 어전에서 실수를 범함으로써 유배되어 왔다.

유배된 왕비는 시종들과 성을 쌓고 살다가 어전에 나가 관용의 은혜를 간곡히 진언했으나 거절당했다. 다시 경도로 돌아온 왕비는 옥동자를 낳았고, 그 옥동자에게 함양여씨(咸陽呂氏)의 성을 주었다.

삼산면 거문리에 인어 이야기가 전해내려 온다. 녹사이[鹿山] 해안가에 아주 작은 여(섬)인 신지곶에 여가 있다. 삼치미기리(삼치줄납시)를 하기 위해 바다로 나갈 때마다 같은 곳에서 만나는 하얀 물체를 보았다. 날이 밝은 날이면 머리카락을 풀어 헤친 여실한 여인이 틀림없었지만 하체는 인어였던 것이다.

이 신지곶에는 흐린 날 특히 자주 나타났는데, 그런 날은 바람이 세차게 불거나 물결이 세차게 일어 물질을 할 수 없었다. 신지곶을 혼지곶으로 부르기도 하나, 이는 그 형상이 하얗기 때문으로 “희다”에서 생겨난 말이다.

화정면 월호리 글성바위와 연도 까랑포해안에는 서불과차(徐佛過此: 서불 일행이 이곳을 지나가다)라는 글귀가 남아 있다. 이것은 진시황의 시종인 서불(徐佛)이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 이곳까지 왔다고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다. 이로 인하여 후세 사람들은 이 마을을 ‘글을 잘하는 동네’라 하여 글성마을 또는 글썸이마을이라 하고, 글씨가 새겨진 바위를 글성바위라 불렀다고 한다.

2. 전란에 관한 전설

여수지역은 지리적 여건 때문에 여말에서 조선시대까지 왜구의 침략을 자주 받았다. 그래서 여수지역은 전란으로 인한 전설이 수적으로 많다. 그 중에서도 임란 당시 여수지역은 전라좌수영과 삼도수군통제영이 있었던 곳이었기 때문에 충무공과 관련된 전설이 많다.

정상훈(2000)⁹⁸⁾은 논문에서 여수지역의 임란 전설 양상을 인물, 전투, 이름·지명 전설로 구분하고 이에 따른 임란 전설의 특징과 전승양상, 임란에 반영된 민중의식을 고찰했다. 필자는 정상훈의 분류체계를 통합하는 견지에서 전란에 관한 전설을 인물 전설과 전투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인물 전설과 전투

인물 전설은 객관성을 담보로 역사적 사실과 관련이 있지만 민간에 의해 전승되는 과정에서 전기적(傳奇的)인 성격을 띤다. 여수지역에 전해 내려온

98) 정상훈(2000), 『임란전설 연구』,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정상훈은 이 논문에서 1999. 11. 1~2000. 2. 15일까지 재보자를 중심으로 채록하여 분석하고 있다.

인물 전설은 이량 장군과 장군도, 이대원 장군과 손죽도, 의승수군과 옥형·자운, 충무공 이순신 등의 이야기가 전해 내려온다. 인물전설은 전쟁 속에서 민중들이 생사의 갈림길에서 얼마나 지혜롭게 맞서 싸웠는가를 엿볼 수 있다.

장군도는 조선 1497년(연산군 3)에 수군절도사 이량 장군이 왜구의 침입을 막기 위하여 쌓은 수중성으로, 우리나라에는 하나밖에 없는 해저석성으로 평가 되고 있다. 이 석축은 이량 장군이 전라좌수사로 부임하여 해안가에 자주 출몰하는 왜구선을 쫓고, 수영을 보다 튼튼하게 하기 위하여 수중성을 쌓았다고 전해온다.



▲ 이대원 장군 동상

이대원(李大淵) 장군은 손죽도 지명 유래와 관계가 있다. 이대원 장군은 1587년(선조 20) 2월 손죽도 해역에 침입한 왜구와 싸워 1차 해전에서 대승을 하였다. 그러나 10여일 후 또다시 왜구가 침입했다. 2차 해전 때 이대원 장군은 전라좌수사에게 지원군을 요청하고 손죽도 해역으로 출동하여 맞서 싸웠다. 그러나 1차 해전의 대승을 시기한 전라좌수사 심암은 전승의 공과로 인한 불편한 심기로 지원군을 보내지 않아 패전하고 장군은 끝내 전사하고 말았다.

전사 후 손죽도에는 그 많던 대나무가 말라 죽었으며, 오늘날까지도 대나무가 자라지 않고 있다. 이 충무공은 손죽도 해전에서 이대원 장군을 잃은 것은 국가에 큰 손(損)이라 하였으며, 이 섬을 손대도라고 명명하였다고 전해 온다.

충무공 이순신 휘하에는 관군과 더불어 많은 의승수군이 있었다. 이 중에 주목할 만한 활동을 한 의승장으로 삼혜(三惠), 의능(義能), 성휘(性輝), 신해(信海), 지원(智元), 수인(守仁), 혜희(惠熙), 자운(慈雲), 옥형(玉洞) 등이 알려져 있다. 이순신이 “근일에 와서 용감한 승려에게 힘입어 위세를 올린다.”고 할 정도로 의승수군은 해전 승리에서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

의승수군은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이순신 휘하에 전라좌수영의 5개 대로

편성되었다. 이들은 이순신이 관내 여러 사찰에 요청하자 이에 호응하여 자원한 승려들로 구성되었다. 승장들은 크게 별도장과 돌격장으로 나누어졌다. 본영에 머문 의능은 전라좌수영에 가까운 흥국사에 주진하여 이순신의 지휘를 받으면서 수륙양전을 도모하였다.⁹⁹⁾

해상 의병의 활약은 임란초에 많은 전과를 거둬으로써 조선 수군의 제해권 장악을 가능케 했다. 제해권 장악에는 의승수군의 역할도 컸다. 옥형과 자운은 임란 당시 300여 명의 의승수군 대장역을 맡아 전투에 참여했고, 심지어 거북선 도면을 제작하는데도 관여했던 것으로 구술되고 있다.¹⁰⁰⁾

의승수군이 조직되었던 사실은『충무공전서』중의 장계(狀啓)(1593. 1. 26, 1594. 1.)에서도 확인된다. 『승평지』에서는 '충민사에 옥형이라는 승려의 일화가 있다. 그는 본시 충무공 이순신의 배를 타고 전투를 하던 이로서 언제나 공의 곁을 떠나지 않더니, 공이 전몰한 뒤에는 그 인품과 충절을 잊지 못해 충민사 사당 곁에 작은 정사를 짓고 이곳에서 수직하면서' 라고 전한다.

충무공 이순신은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1년 전인 1591년(선조 24) 2월에 전라좌수사로 부임하여 세계 해전사에 뛰어난 업적을 남긴 영웅이다. 임란 1년 전에 부임하였기 때문에 이순신 장군의 출생과 성장과정에 대한 이야기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순신 장군과 관련하여 전해 내려온 이야기는 치열한 전투 속에 일어났던 지혜와 전략, 충·효 등의 이야기가 있다.

종고산은 본래 무음산이었다. 그러나 한산대첩의 전과가 있던 전날 밤, 종고산에서 3일 밤이나 계속해 울려 승전의 전조를 보였다. 이순신은 이에 종고산이라 명명하고 정상에 보효대(報效臺)를 지어 제사를 올렸다는 전설이 있다.

또 삼일면 낙포는 충무공의 지략을 엿볼 수 있는 대나무 이야기가 전해 온다. 왜적들이 낙포 위 배무지로 들어오자 이 충무공은 노루섬(獐島)에 많은 군대가 숨어 있는 것처럼 위장하고 대나무 다발 수백 개를 만들어 불을 붙여 한꺼번에 터지게 했을 때, 순천 신성포까지 쳐들어 왔던 왜적들이 혼비백산하여 도망을 쳤다.

봉산동에는 사철소와 수십여 곳에 풀무간이 있어 이 일대를 풀무골이라 하였다. 그런데 충무공이 적의 유탄에 맞아 운명한 후에는 이 풀무골 화덕에 불이 붙지 않아 활촉의 제작이 중단되었다는 이야기가 있다.

화치의 노적산은 전망이 뛰어나 왜교성, 묘도, 장도, 송도까지 아군의 눈에 보일 뿐만 아니라 적군인 일본군의 눈에도 쉽게 보이는 산이다. 충무공이 이

99) 순천시사편찬위원회 (1997), 『순천시사-문화·예술』, 631~633쪽.

100) 정성훈(2000), 70쪽.

산을 군량미로 위장하기 위하여 산의 나무를 전부 베어내고 이영으로 감싸 두고, 바다에 햇가루를 뿌려서 군사들의 눈을 위장했다. 이에 군량미가 산더미처럼 쌓인 줄 안 왜적들이 지레 겁을 먹고 달아났다 한다.

충무공의 어머니가 기거한 송현 마을과 가까운 망마산에서 기마병을 조련 하려고 치마장(馳馬場)을 만들었다고 한다. 충무공 이순신은 임진왜란 중 기마병의 훈련을 끝내고 망마산을 떠나면서 말 채찍을 심으며 '이 말 채찍이 죽으면 나의 영혼이 죽은 줄 알라.' 라는 말을 남겼는데, 동백나무로 깎아 만든 이 말 채찍은 죽지 않고, 살아나 동백나무로 동치를 키우고 있다고 한다.

물론, 전란에 관한 전설이 충무공에 국한한 것은 아니다. 돌산 평사리와 굴전리 사이를 무술목이라 하는데, 무술년(1598년, 선조 31) 11월 19일 명량해전 당시 왜적들이 이곳으로 통과하려 하자 대미산과 소미산 기슭에 숨어 있던 수군 300여명이 왜선 60여 척과 왜군 300여명을 섬멸시켰다고 한다. 그래서 이곳 사람들은 이곳을 '무술목' 혹은 '무서운 목'이라 불렀고, 그 앞바다는 왜병들의 피로 물들었다 하여 '피내'라고 한다.

임진왜란 때, 왜군들이 지금의 순천시 해룡면에 성을 쌓고 주둔하고 있었다. 이를 두렵게 여긴 이곳 주민들은 마치 수많은 군사들이 진을 치고 있는 양 위장하기 위해서 흰옷, 붉은 옷, 검은 옷을 번갈아 가며 입고 이 바위 둘레를 돌았다. 그래서 역의암(易衣岩)이라 한다.¹⁰⁾

이밖에도 울촌 장도에는 정유재란 때, 의병들이 수박에다 벌을, 박속에다 가는 폭약을 넣어 왜군을 교란시켜 몰살했다는 '벌통 수박' 전설이 전해지고 있다.

이처럼 여수는 충무공과 관련된 이야기가 민중들 사이에 많이 전해져 내려온 이유는 역사적 현장에서 운명을 같이하며 충무공을 영웅으로 받들었기 때문일 것이다.

2) 지명과 전투

여수의 지명 가운데서도 전란과 관계가 깊은 곳이 많다. 중앙동 수장끝(水壩端), 오천동, 삼일읍의 묘도, 화양면 용주리 고진(古鎭)도 전란과 관련이 있다.

돌산읍의 둔전리(屯田里), 둔병도(屯兵島), 전봉산(戰鳳山) 등은 군사들이 주둔했던 데서 붙여진 지명이다. 공화동의 장대(將臺), 선소(船所), 망마산(望

10) 또 다른 이야기로 왜적들이 여수지역의 부녀자를 막 겁탈하려고 하자 이에 물로 뛰어들어 죽었다해서 여기암(女伎巖)이라 부르기도 한다.

馬山), 낙포리의 배무시[造船浦], 손죽도, 초도 마찬가지로다.¹⁰²⁾

전란과 관련된 지명전설이 많이 남아 있는 이유는 전란으로 인한 백성들의 피폐해진 삶과 전란으로 인한 무용담, 지략, 전술 등을 등치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한편으로는 존망의 위기 속에서 여수 지역민들의 역사의식을 엿볼 수 있다.

102) 김준욱(1998), 「여수지방의 구비전승에 관한 연구」, 1998, 184~188쪽.

3. 충·효·열에 관한 전설

전통 사회에서 충·효·열은 우리 민족의 기본적인 덕목이었다. 이러한 덕목은 조선조 유가적 윤리관 속에서 더욱 풍부하고 다양해지면서 관념화 되었다. 충과 효가 남성 중심적 지배 이데올로기라면 열은 유교적 여성윤리관이 강화됨에 따라 나타난 전설이다. 열녀 전설은 가부장적 사회를 더욱 공고하게 하기 위한 장치로써 조선후기에 전 계층에 걸쳐 양산되었다.

충·효·열의 모티브는 인간의 지극정성을 다한 효행은 감천하게 되고 불가능했던 일이 소원대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식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몸을 팔아 부자집 종살이를 하면서 눈먼 어머니를 봉양했던 효녀지은 설화나 살을 베어 병든 부모께 드렸던 향덕·성각의 행위는 후대 효자 및 열녀들의 행동양상의 한 유형으로 널리 전승되었다.

여수지역에는 충에 관한 전설은 고려 시대 때, 공은의 이야기를 통해 불사이군(不事二君)의 정신을 엿볼 수 있고, 효에 관한 전설은 효자 이현두, 박운하, 강릉 유씨의 전설이 있다.

효자 이현두는 인육 공양에 관한 이야기로 우리 나라 대부분 지역에서 전해지고 있는 이야기다. 효자 박운하 효행담은 보편적인 서사 구조에 우리 지역의 소재가 등장하고 있다. 병든 부모를 구하기 위해 업동설한에 산과 들을 헤매고 다니던 효자들은 눈 속에서 죽순이나 딸기 등을 얻는다. 효자 박운하의 효행담은 이러한 구조를 보여주되 소재에서 해안지역에서 볼 수 있는 토벌(전복)과 까마귀를 등장시켜 지극한 행위에 감천(感天)으로 보상한다.

강릉 유씨에 관한 이야기는 호랑이의 등장으로 부모에게 효행을 실천한 사례이다. 전통사회에서 이와 같은 비합리적이고 과학적인 효의 실천은 사회를 유지하고 가정의 평화를 지키는 하나의 규범이다.

‘오동도 여인의 절개’, ‘열녀재’는 열녀 설화의 전형적인 면을 보인다. 열

103) 공은(孔隱, 1348~1403)은 고려 후기의 정승, 중국 공자 53대 손으로 원나라에서 벼슬을 하다가 원나라 노국공주가 고려 공민왕과 결혼하여 고려에 올 때 수행했다가 귀화해서 평장시 벼슬을 지낸 공 소의 손이다. 공은의 형 공 무는 조선에 와서 보문각 대제학 벼슬을 지냈으나 공 은은 벼슬을 거부하고 영취산 및 해변에서 살았다고 한다.

너 설화의 대표적인 작품이 <도미(都彌)의 아내 이야기>는 왕 앞에서도 지켜야 할 인물이었고, 일부종사의 대표적인 것이었다. 그런데 우리지역은 외부의 침입자에 대한 명확한 주체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1) 공은의 총에 관한 이야기

공은¹⁰³⁾(孔隱, 1348~1403)은 고려 후기 평장사로 재직하였다. 국교인 불교의 타락상을 개탄하여 유교를 숭상해야 한다고 임금께 진언하였다가 노여움을 사서 낙포동 지역으로 귀양을 오게 되었다. 이성계가 조정에서 함께 일할 것을 요청했으나 공은은 두 임금을 섬길 수 없다고 거절하고 낙포에서 살다가 죽었다.

공은이 죽던 날, 낙향할 때 따라왔던 기러기 3마리가 공은의 죽음을 보고서 삼일 동안이나 공은의 처소 주위에서 슬피 울며 배회하다 바다에 떨어져 죽었다고 한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낙포와 삼일(三日)면 지명이 유래되었다는 설이 있다.

2) 효행

미평동 소정마을 뒷길에 이현두 효행을 기리는 비각이 있다. 이현두는 부친이 병이 들어 치병에 임했으나 효험이 없자 산신 제단을 짓고 백일 정성을 다했다. 이때 백발 노인이 나타나 아버지의 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인육이 최고라는 계시를 주었다.

이에 이현두는 자신의 허벅지 살을 도려 부인에게 전하며 소고기를 사 왔으니 육회를 만들어 아버지께 드리라고 했다. 아버지는 아들의 정성에 쾌차하였고 이러한 효성으로 때 동몽 교관에 증직되었다.

효자 박윤하는 1805년에 유촌리에서 태어났다. 병석에 누운 부친을 위해 생전복(토벌)을 구하러 갔으나 파도가 심해 바다로 들어가지 못하고 헤매고 있었는데 천우신조였는지 굵은 전복 3마리가 바닷가로 올라와 있었다. 그 전복으로 죽을 써서 올렸는데 이튿날이 되자 수십 마리의 까마귀들이 효성에 감복하여 전복 한 마리씩을 물고 와서 마당에 떨어뜨려 주고 갔다 한다.

울촌면 신흥리 신흥에는 강릉 유씨 10대 장손은 생계곤란과 부친의 병환으로 학문을 계속하지 못하게 되었다. 백방으로 약을 써보았으나 효험이 없자

수암산 바위 밑에서 기도를 올렸다.

이 때 갑자기 호랑이 한 마리가 나타나 산삼이 있는 곳을 알려줘 그 산삼으로 아버지의 병환을 간호했다.

3) 열녀

고려 유신의 한 부부가 오동도로 귀양을 왔다. 귀양 온 부부(夫婦)는 땅을 개간하고 고기잡이로 생계를 꾸렸다. 어느 날 남편이 고기잡이를 나간 틈에 도둑이 들어 몸까지 요구하므로 달아나다 붙잡히게 될 것 같자 아내는 남편이 돌아올직 한 동남쪽 낭떠러지에서 투신 했다.

날이 저물 무렵 돌아오던 어부는 단애(斷崖) 밑에서 떠오르는 아내의 시체를 발견했다. 어부는 사랑하는 아내를 이 섬의 정상에 묻었다.

세월이 흘러 여인의 묘에서는 절개를 나타내듯 시누대와 동백나무가 자라기 시작했다. 이후부터 오동도에는 오동나무 대신 동백나무가 많이 번져 눈보라 속에서도 그 꽃을 피우기 때문에 동백꽃을 일명 여심화(女心花)라고도 부르게 됐다.

초도 진막에 박수강이라는 불구의 청년이 있었다. 박수강은 성년이 되어도 신부감이 없어 결혼을 못하고 있다가 뒤늦게 이웃 마을 처녀와 결혼을 하게 되었다. 결혼식을 올린 한 달 후 청년은 고기잡이를 나가게 된지 8일 만에 죽었다는 소식을 듣는다.

부인은 1년 동안 산소에 찾아가 통곡하며 남편을 추모하였다. 그러던 어느 겨울날, 부인은 산에서 내려오다가 발을 헛디뎠다 그만 밑으로 떨어져 부인은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그 후부터 이곳을 '열녀재' 라고 했는데, 구전되는 과정에서 여러재로 바뀌게 되었다.

초도 의성리 산자락 끝에는 '상술 박엉'이라는 높은 절벽이 바다와 인접해 있다. 먼 옛날 장래를 약속한 청년이 단 처녀를 좋아했다. 처녀는 분을 참지 못한 채, 저주를 퍼부으면서 상술 박엉에서 뛰어 내려 자살하고 말았다.

죽은 처녀는 뱀으로 환생하여 총각이 가는 곳마다 나타나 괴롭혔다. 날마다 쫓아온 뱀에게 죽은 처녀 이름을 부르면서 아무리 사정하고 빌어봐도 소용이 없었다. 청년은 손끝을 깨물어 절벽에 유언을 써 놓고 뛰어 내렸고, 뱀도 바위에 부딪치면서 물에 떨어져 죽었다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다.

4. 동식물에 관한 전설

지명의 유래는 지형적 특성에서 비롯된 경우도 있고, 특정한 사건과 관련되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가장 많이 발견되는 사례는 마을 주변에 존재하고 있는 산 이름, 특정한 기운을 나타내는 지형이나 동식물과 관련되어 있다.

여수는 동식물과 관련된 전설을 가지고 있는 지명이 상당히 많이 있다. 산이나 섬 또는 곳 등의 자연 형태가 동물과 비슷하다해서 생긴 지명, 식물이나 특산물이 많이 나는 지명에는 꼭 동물의 이름이나 식물 및 그 특산물의 이름으로써 지명을 삼았다.

동물과 관련한 지명은 울촌면의 노루[獐]·이리[狼], 삼일면의 고양이[貓]·쥐[鼠峙]·소[牛唇]·물고기[方魚], 돌산읍의 꿩[內·外雉]·새[鳥], 화정면의 이리[狼]·토끼[兔]·접동새[鷓]·매[鷹]·미꾸라지[秋鮒]·닭[上·下鷄]·뱀[長蛇]·호랑이[白也(白虎)]·돼지[諸(猪)]·개[蓋(犬)], 남면의 자라[金鰲]·기러기[安(雁)]·솔개[鳶]·말[馬], 삼산면의 모기[蚊]·노루[獐]·오리·용[龍]·말[馬]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화양면의 안포리 세포(細浦)의 닭 머리[鷄頭], 화정면의 백야도(白也島)·제리도(諸里島)·개도(蓋島)·금오도(金鰲島)·안도(安島)·소리도(所里島) 등도 동물과 관련이 있는 지명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식물과 관련된 지명은 수정동 오동(梧桐)나무·대나무[竹]·소나무[松], 울촌면의 밤나무[栗]·감·모과[模開(木瓜)]·소나무[松], 삼일면의 소나무[松]·나무[木], 돌산읍의 대나무[竹]·풀의 줄기[莖]·작은 대나무[小竹]·금죽(金竹)·소나무[松]·밤나무[栗], 화양면의 배나무[梨]·나무[木]·대나무[竹]·메밀[馬勿], 화정면의 메밀[馬勿]·향기 풀[大·小汝自(荔子)]·모과[上·下瓜]·오동나무[梧]·꽃[上·下花], 남면의 오동(梧桐)·추도(楸島) 등 다양한 종류의 식물이 지명과 관련이 있다.¹⁰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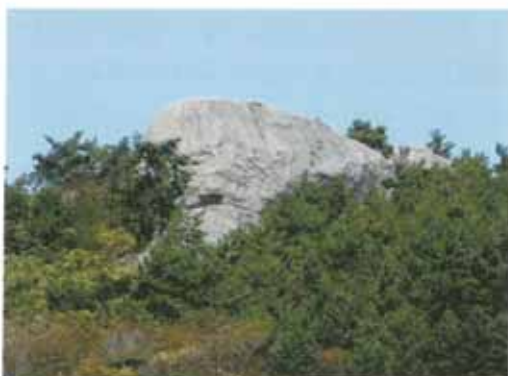
1) 바위

여수지역은 거북과 관련된 지명을 많이 볼 수 있다. 해안 지역에서 거북은 상서로운 동물로 용왕의 딸로 상징되어 어부들에게 신성한 존재다.

거북은 십장생의 하나로 장수와 재물 복을 갖게 하는 영물로 설화 속에서

는 지혜와 보은(報恩)을 나타낸다. 우리 지역에서도 신성한 거북을 훼손하여 화를 당한 경우도 있었고, 풍수에서 명당자리로 알고 묘를 쓰는 경우도 있었다.

거문도에서는 최근까지 거북제를 지냈다. 거북제를 지내게 된 이유는 옆구리를



▲ 개도 용바위

다친 거북이 파도에 떠밀려온 것을 어부들이 잡아먹었고, 그 일이 있은 후 어장은 흉년이 들고 민심이 흉흉해지자 사람들은 용왕에게 잘못을 빌고 액운을 씻기 위함이었다.

거북에 관련된 바위는 천년 묵은 거북등 위에 묘를 썼던 신평 구암과 제석산의 거북등이 있고, 죽안의 거북 바구는 담주가 경작에 장애가 되어 바위를 이동시켰다가 가정에 변고가 발생했다.

사도의 거북바위는 임란 전 이순신 장군이 명석 바위에서 휴식을 취하다가 거북이처럼 생긴 바위를 보고 거북선을 만들 계획을 세웠다는 전설이 전해지고, 금오도는 황금거북(자라)의 섬이라는 지명을 갖고 있다. 이외도 백도의 거북섬, 거북의 별칭인 용성 마을의 오빠쟁이 등이 있다.

거북과 관련된 대표적인 전설로는 향일암이다. 향일암이 있는 곳의 지형은 풍수상 바닷속으로 막 잠수해 들어가는 금거북이의 형상이라 한다. 대웅전 앞에서 왼쪽 아래로 내려다보는 야트막하게 솟아오른 봉우리가 머리, 향일암이 선 곳이 거북의 몸체에 해당한다. 그래서 산 이름은 금오산(金鰲山)이고, 암자 이름은 영구암(靈龜庵)이라 했다. 금오산 정상에서 보면 거북의 머리와 목 그리고 몸체의 형상이 완연하게 나타난다. 거대한 거북이가 넓은 대양으로 헤엄쳐 가는 자태를 취하고 있다.

오동도에 토끼와 거북이 설화가 있다. 옛날 자산(紫山)에 살던 토끼가 오동도를 구경하고 싶었다. 바닷가에 나가 거북을 만난 토끼는 “오동도를 구경시켜 주면 좋은 보물을 주겠다.”고 거북을 꾀었다. 우직한 거북은 토끼의 말을 믿고 오동도 구경을 시켜 주었으나 토끼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거북은 화가 치밀어 토끼를 오동도에 실어다 놓고 가족을 홀랑 벗겨 버렸다. 이때 이곳을 지나던 토신(土神)이 토끼꼴을 보니 측은한 생각이 들어 오동도 역새풀밭

에 가서 땡굴라고 일러 주었다. 토끼는 토신이 일러준 대로 억새풀 밭에서 땡굴었다. 껍질이 벗겨졌던 몸에 억새풀이 달라붙어 토끼는 옛날보다 더 고운 옷을 입게 됐다. 그러나 토끼는 이때부터 거짓말은커녕 참말도 할 수 없도록 방어리가 되고 말아 오늘날도 소리를 내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를 상징화해서 오동도 동편에 거북바위가 전한다.

미평동 제2 수원지 위쪽에 대성 마을이 있었다. 이곳 대성 마을 건너편 호암산에는 범바위가 있다. 대성 마을에는 예쁜 처녀가 살고 있었다. 이웃 동네 총각들은 처녀를 한번이라도 보는 것이 소원이었고, 더러는 처녀를 사모하다가 상사병으로 죽기도 했다. 그뿐만 아니라 지리산에 사는 큰 호랑이까지도 처녀를 사모하게 되었다.

호랑이가 처녀를 사모하는 어느 겨울날, 호랑이 앞에 산신령이 나타나 호랑이를 꾸짖으며, 백일 동안 먹지도 자지도 말고 기도하면 인간으로 변하여 처녀와 결혼할 수 있다고 알려 주었다. 호랑이는 신령의 말대로 눈보라가 거세게 몰아치는데도 불구하고 기도만 했다. 그러나 한 겨울 매서운 추위는 호랑이 몸을 얼어붙게 하였고, 이것을 도저히 참지 못하고 자리를 박차고 달리다가 호랑이는 범바위가 되어 버렸다.

울촌면 원촌은 성생원과 가까워 여수의 다른 지역보다 외부 소식을 빨리 접할 수 있었다. 전국적으로 괴질이 유행했을 때 마을 사람들은 괴질을 피하기 위해 범바위를 마을의 수호신으로 모셨다. 이러한 이유는 호랑이가 사는 마을은 괴질이 번지지 않는다는 속설 때문이었다.

삼산면 초도리 대동마을 상산봉에는 육지에서 건너온 호랑이 한 쌍이 살고 있었다. 암놈 호랑이는 수놈 호랑이가 죽자 슬픔으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어느 달 밝은 밤에 암컷 호랑이는 죽은 수컷 호랑이가 몹시 생각나 외로움을 달래고자 큰소리로 어흥하고 울었다. 이때, 어흥 하는 산울림 소리 때문에 암컷 호랑이는 자기보다 더 무서운 짐승이 쫓아오는 소리로 착각하여 달아나다 바다에 빠져 죽었다. 이후 대동마을 사람들은 이 바위를 호랑돌광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삼일읍의 북동단에 솟은 제석산 상층부에는 부채 같은 암석이 나열하고 있는데 동네 어른들이 사망하면 암석이 하나씩 떨어져 나가고 중층에는 호랑이 굴이 있다고 전한다. 제석산 밑에 문주역(文周易)이란 별명을 가진 사람이 살았다 그는 밤이면 호랑이로 둔갑하여 호남천지를 여행하다가 새벽이면 조용히 들어와 탈을 벗고 잠들기 일쑤였다. 매일 저녁마다 집을 비우는 남편의 소

행을 수상히 여긴 아내는 주문(呪文)을 외우고 호랑이로 변신하여 집을 나가게 된 것을 알게 되었다.

그의 아내는 주문(呪文)을 없애 버리면 다시는 이런 짓을 하지 않겠지? 하는 생각에 모든 문서(文書)를 모조리 불살라 버렸다 한다. 새벽녘에 돌아온 호랑이는 다시 주문을 읽고 사람으로 되돌아가고자 했으나 어쩔 수 없이 제석산 호랑이 굴로 들어가 한 많은 동물생활로 최후를 마쳤다 한다.

삼산면 초도는 임진왜란 당시 마초를 공급해 주던 지역이었다. 초도리 대동마을 뒷산에 있는 모자바위(수리망대)의 전설은 한 어부가 고기잡이를 나갔다가 왜구들에게 잡혔다. 그 사실을 알지 못했던 모자는 어부가 돌아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렸다. 그러나 끝내 어부가 돌아오지 않자 모자는 지친 나머지 죽어 바위로 변했다고 한다.



▲ 초도 모자바위

임진왜란 당시 이 바위에 살고 있던 독수리가 왜적의 침입을 알려주곤 했다. 사람들은 아버지를 왜구들에게 빼앗긴 아들의 영혼이 독수리가 되어 이 바위에 앉아 왜구가 쳐들어오는지 망을 봐준다고 하여 이 바위를 일명 수리망대라 부르게 되었다.

소라면 현천리 매산 중턱에는 고려 시대에 세워진 홍국암자가 있었는데 욕심 많은 상좌중이 지나치게 욕심을 부린 탓으로 암자가 폐허가 되었다는 전설이 전해 오고 있다.

중촌마을 남쪽 등성이를 넘어가면 큰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 중간지점에 두 개의 굴이 있다. 큰 굴은 임진왜란 때, 이곳으로 피난 와서 배를 찢다하여 배틀굴, 이 보다 작은 굴은 쌀 굴이라고 한다. 이 쌀 굴 주변에는 작은 굴이 30여개가 있다. 홍국암 도승이 죽장(竹杖)으로 그 구멍을 한번 찌르면 하루분의 쌀이 나왔다고 한다.

그러던 어느 날 도승은 병들어 죽으면서 상좌에게 욕심을 부리지 말 것을 부탁하며 눈을 감았다. 그러나 상좌는 매끼마다 쌀 굴로 쌀을 가지러 가는 것이 한없이 귀찮아 어느 날 커다란 자루를 가지고 가 가득히 채워가지고 암좌로 돌아오면서 도승의 어리석음을 비웃었다. 그리고 상좌는 쌀 굴만 있으면 속세에 나가더라도 부자로 살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으로 잠에 빠져들었다.

그런데 온몸이 섬섬거리면서 견딜 수 없이 간지러워 잠을 깨보니 온 방안이 빈대로 가득 차 있었고, 자기 몸도 빈대 속에 파묻혀 있었다. 상좌승은 할 수 없이 마당에서 밤을 새웠다. 날이 밝자 쌀 굴로 갔다. 가자마자 속세로 내려가 잘 살아보려고 죽장으로 쌀 굴을 쭈셔보았으나 죽장은 부러지고 쌀 굴

은 이미 막혀 있었다. 이 때 돌아가신 주지 스님이 “불심을 버리고 허욕에 눈이 어두워 파계하였느냐?”라는 호령소리가 메아리칠 때, 상좌승은 바위로 변해 버렸다.

2) 용



▲ 용

용(龍)은 봉황과 함께 상상의 동물이다. 그러나 실존하는 어떤 동물보다도 용은 최고의 권위를 지닌 최상의 동물이다. 용은 다른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최상의 무기를 모두 갖추고 동시에 무궁무진한 조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용은 우리의 생활과 의식구조 전반에 걸쳐 깊이 자리하면서 수많은 민속과 민간신앙, 설화, 사상, 미술품, 각종 지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우리 문화에서 용은 용비와 비상, 지상 최대의 권위를 상징하는 동물로 숭배되어 왔다. 용은 물의 신으로 왕권을 수호하는 호국용으로서 기능을 발휘하면서 갖가지 용신 신앙을 발생시켰고, 많은 설화의 중요한 화소(話素)가 되었다. 용이 갈구하는 최후의 목표와 희망은 구름을 박차고 승천하는 일이다.

여수 지역의 용담에서 용은 물을 지배하는 자로서 등장하기도 하나, 대부분은 아직 성숙하지 않은 인간을 빗대 전해지고 있다.

하구바구 용굴은 진남 초등학교 건너편 연등천에 있었다. 하구바구는 네 줄기 개천물이 합쳐서 바다로 흐르는 지점으로 수심이 깊었다. 바위 밑에는 오동도 바다와 통하는 지하 용굴이 있어 비가 오면 오동도 용이 지하통로를 이용하여 연등천 하구바구 용굴로 와서 빗물을 먹고 간다는 이야기가 전해왔다. 그런데 이곳에서 한 어린아이가 먹을 감다가 실종되었는데 10여일 후 오동도 앞바다에서 어부에 의해 시신이 발견되어 인양 되었다. 그 후부터 하구바구는 매립되었고, 오동도 용은 이곳으로 오지 못하고 자산 공원 등대 밑 찬샘물통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약 100여년 전 김용구라는 사람이 살았다. 그의 집에서는 단밥을 만들어 팔았는데 그 맛이 일품이어서 찾는 손님이 많았다. 용구는 이목구비가 준수하고 기골이 장대했지만 그의 언동은 풍채와는 달리 어리석고 바보스럽기만 했다.

그의 어머니는 종고산이 통째 거꾸로 입에 들어오는 태몽을 꾸었고, 산모가 되어서는 용구의 겨드랑이에 날갯죽지가 달려 아들이 하늘을 날아다니는

꿈을 꾸다가 깜짝 놀라기도 하였다. 그런데 응구 어머니는 입 밖에 내지 말라는 산신령의 금기를 그만 발설하고 말아 응구는 병어리가 되고 바보가 되었다. 응구는 이 지방에 독특한 방언과 잡요를 탄생시킨 장본인으로서 한 시대의 기인이기도 했다.

개도 용바위 전설은 광포전설의 하나인 아기장수의 변이형이다. 서사 단락은 비범한 아기의 출생, 부모에 의한 살해, 용마의 죽음으로 이루어져 있다.

어느 날, 부인의 꿈에 둥근 해가 입안으로 들어오는 태몽을 꾸었다. 아들이 태어난 후 집안에 이상한 일들이 일어났다. 하루는 비가 올 것 같은 날씨에 일부터 곡식을 마당에 널어놓고 숨어 지켜보았다. 마침 비가 내리자 한 살밖에 되지 않은 아이가 마당으로 나와서 곡식과 명석 등을 말끔히 치워놓고 방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이 광경을 지켜보던 김 씨 부부는 놀라움과 두려움에 어찌할 바를 몰랐다.

생각건대 이 아이는 틀림없이 하늘에서 점쳐 내려주신 장수가 될 아이가 틀림없다고 생각하였다. 이 사실이 세간에 알려지면 역적으로 몰려 죽음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했다. 부부는 여러 날을 궁리한 끝에 결국은 아이를 죽이기로 작정하였다. 바다로 나가 아이의 발목에다 큰 돌을 묶어 바닷속에 던져버렸다.

그러나 어찌된 영문인지 아이는 죽지 않고 바다위로 솟아올라 오른손으로 뱃전을 붙잡기에 도끼로 오른손목을 잘라 버렸다. 다시 왼손으로 뱃전을 붙잡으면서 “오른손 없는 장수가 무슨 뜻을 이룰 수 있겠는가” 하면서 물속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천둥번개가 치면서 폭우와 함께 거센 파도가 일어나 마을 산쪽으로 청룡 한 마리가 남면 함구미(含九味)쪽으로 향하여 날아갔다.

지금도 산위 큰 바위에는 죽은 아이의 영혼이 남아 놀았다는 담벃대, 숟가락, 젓가락 놓은 자국이 남아 있고 마을 사람들은 이 바위를 용바위라 부르고 있다.

삼산면 초도리 의성마을에서 잠등을 넘어 멀치무를 지나 여마지미 끝에 가면 붉은색을 띤 절벽이 있다. 그 절벽에서 약 20m 떨어진 곳에 50~60m 높이의 하늘을 향해 우뚝 솟은 돌기둥이 있는데, 이곳은 예로부터 벼락을 맞은 곳이라는 전설이 전한다. 거문도의 용물랑에는 천년 묵은 용이 이 마을 머슴차돌이의 도움으로 등천하였다고 전해지고 있는 용연이 있으며 한라산 백록담과 통해 있다고 한다.



▲ 개도 용바위

연도리 구포마을에는 승천하던 용이 천둥을 맞아 바위가 갈라지면서 깎아 지른 절벽이 형성되었고, 함구미에서는 용두를 훼손하여 죄값을 치르는 일이 발생하였다. 덕충동 마래산 석천사 용안수, 둔덕동 용진마을, 돌산을 평사리 천마산 뒤의 용구래미, 율촌면 구사봉 아래 용미암 바위 전설 등이 있다.

3) 봉황

봉황은 상서로운 새로서 그 징조는 길하다. 여수지역은 봉황과 관련된 이름이 많다. 봉산, 봉계, 쌍봉, 비봉, 금봉산, 봉오, 아홉 마리의 봉황이 여수 앞바다를 지키고 있다고 붙여진 구봉산, 오동도의 오동나무도 재미난 전설을 간직하고 있다.

전설에 따르면 오동도에는 오동나무 열매를 따먹으려 많은 봉황새가 찾아 오곤 했으나 오늘날에는 오동나무를 찾아 볼 수 없다. 고려 후기 창녕 옥천사에서 심부름하던 노비의 아들로 태어난 신돈(辛旽, ?~1371)은 공민왕의 사부가 된다. 왕의 신임을 등에 업은 신돈은 진평후라는 봉작까지 받으며 기울어 가는 고려 왕조를 재건하는데 심혈을 기울였다. 더욱이, 왕권에 도전하는 일에는 가만있지 않았다.



▲ 여수 오동도

신돈은 오동나무가 무성한 오동도에 여수의 봉산, 봉계, 구봉산, 쌍봉, 비봉, 금봉산 등에서 사는 봉황새가 자주 드나든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 불길한 징조였다. 그 이유는 임금을 상징하는 새로 봉황이 오동도에 드나드는 것은 새로운 임금이 나올지

도 모르기 때문이었다. 그는 전라도라는 '畵' 자가 사람 '人' 자 밑에 임금 '王' 자를 쓰고 있는데다 그 땅의 남쪽 여수라는 곳에 절경의 오동도가 있어 서조인 봉황새가 드나드는 것을 알고는 불길한 예감을 했다. 필시 기울어 가는 고려 왕조를 말할 인물이 전라도에서 나올 징조만 같았다.

그는 공민왕에게 이 같은 사실을 귀띔하여 사람 '人' 자 밑에 쓴 전라도(全羅道)는 들입 '入' 자 밑에 임금왕 '王' 자를 쓰도록 하고 봉황새의 출입을 막기

위해 오동도의 오동나무를 모조리 베어 버리도록 했다 한다.

봉두 마을 지명과 관련하여 위효징의 집터 이야기가 전한다.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 막하에서 참전하다 순절한 위대경(魏大經)은 원래 전라남도 장흥 사람이었다. 그의 부인 전주 최씨(全州崔氏)는 아들 위효징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봉황이 날아간 자리에 집을 짓게 되는데 지금도 집 후원한 복판에 반경 1m 정도의 원 안에는 아무리 눈이 와도 쌓이지 않고 그냥 녹아버린다고 한다.

화양면 이목리와 장수리 사이에 할미당이 있다. 신부가 하마등을 지날 때 오동나무가지에 봉황이 앉아 있으면 가마에서 내려 걸으라는 금기를 지키지 않아 즉사한 사건으로 하마등은 할미당이 되었고, 그 이후로는 혼인 행렬이 고개를 넘지 않았다고 전한다.

4) 말

여수는 조선시대 때 감목관을 파견할 정도로 목마장이 많았던 지역이다. 따라서 우리 고장에도 말에 관한 이야기가 다른 지역보다 많이 전해 내려온다. 우리 고장에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는 영매체로써의 상징적 의미보다는 말과 인간의 따뜻한 휴머니티가 살아 있다. 말과 관련된 우리지역 이야기들을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 개도 화산 마녀목

말과 관련된 대표적인 전설로 개도 화산 마녀목이다. 마녀목은 광포전설인 '말무덤'과 비슷한 내용을 지니고 있으나 내용적인 면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말무덤'은 대부분 말과 불가분의 관계를 갖는 장군이 더 이상 전장에서 쓸모가 없다고 판단하여 말을 폐마시키고 후회하면서 말무덤을 마련해준다.

그러나 우리지역 마녀목은 백마의 쇠진과 함께 복녀의 애뜻한 사랑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말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는 소녀를 등장시킨 사실이 아주 이채롭다. 말은 남성성의 대표적인 상징이라고 상

상한다면 즐거움이 공감을 얻는다.

조선 숙종 때 화양면을 곡화라 하고 말을 사육하는 목관이 주재하였다. 화양면 일대는 물론 화정면, 백야도, 개도, 제도, 낭도까지 말을 사육하여 목관에 제공하여 왔다고 한다.

목마장 이돌수의 외동 딸 복녀는 말들을 지극정성으로 돌보았다. 그런데 어느 날 짐박이 백마가 다리를 다쳐 페마시키려고 했다. 이때 복녀는 아버지에게 간청을 해 말을 지극정성으로 보살피 완쾌되자 백마는 복녀를 따랐다. 이 때 감목관이 장군이 탈 말을 백마로 선발해서 전쟁터로 나갔다. 말과 이별하자마자 복녀는 앓아누웠다. 5개월 후 백마는 상처투성이로 목장에 나타났고, 아버지가 말 먹이용 꼴을 채취하러 간 사이 복녀와 백마는 죽어 있었다. 마을 사람들과 이돌수는 빈터에 나란히 장사를 치루고 느티나무를 한 그루 심었는데, 이것을 마녀목이라 한다.

울촌 삼산 말 바위에는 재미있는 전설이 전해 내려온다.¹⁰⁵⁾ 이 전설은 전국적으로 가장 많은 지역에 분포된 대표적인 광포전설로서, 마을 주변에 존재하는 바위와 결부된 유래담 형식으로 전승되고 있다. 이본 중 대표적인 전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사봉 중턱에 용미암이란 바위가 있고 그 밑에 장군바위가 있다. 그 사이에 또 하나의 바위가 있는데 이를 '말바위'라 한다. 조선시대는 승유억불 정책으로 많은 승려들이 고통을 당하였다.

어느 날 스님이 이 마을에서 제일가는 부잣집을 찾아가 시주를 부탁하였다. 그러나 욕심 많고 인정 없는 주인 영감에게 함지박을 빼앗기고 물벼락을 맞는 등 심지어는 머슴들에게도 몰매까지 얻어맞았다. 스님은 혼자말로 부처님께 공양미 한 섬만 시주하고 뒷산에 있는 바위를 부서 버리면 자자손손 정승이 날 텐데 하고 혼자 중얼거렸다. 이때 욕심 많은 영감이 그 소리를 듣고 다음날 석수를 데리고 뒷산바위를 깨뜨리기 시작했다.

그러기를 닷새째 되던 날 석수가 망치를 들고 내려치는 순간 '뿡' 하는 소리와 함께 바위가 깨지며 석수와 영감이 그 자리에서 숨졌다. 그날 밤 뒷산에서 슬피 우는 말 울음소리가 들려 다음날 마을 사람들이 올라가 보니 그 곳에는 하늘을 향해 울부짖는 듯한 말 형상을 한 바위가 우뚝 서 있었다 한다. 그것이 바로 지금의 '말바위'이다.

그 후부터 이 마을에 재앙이 많았고, 마을은 점점 쇠락해져 갔으나 마을 사람들이 다시 인심을 후하게 쓰자 차츰 나아졌다고 한다.

105) 삼산 마을 말 바위에 관한 이야기는 이본이 존재한다. 두 이야기의 공통점은 마을 사람이나 주인 영감이 칠과 스님을 박대해서 받게 되는 마을의 쇠락이다. 또 다른 이본의 내용은 스님을 심하게 구박하지 않아 주인 영감은 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석수장이란 죽음을 당하고, 바위를 깨뜨렸을 때 백이 2마리가 하늘로 치솟았다고 한다.

5) 산호초와 뱃사공

화정면 조발도 남단 해저에는 상달 섬까지 아름다운 산호가 깔려 있었다. 평소에 홍 선장은 주낙에 산호초나 거북이가 걸려도 살려주었다. 이런 홍 선장이 어느 날 배가 난파 되어 의식을 잃고 산호초 위로 쓰러졌다. 살아 남은 선원들은 밤낮으로 홍 선장을 찾았으나 해안가에는 홍선장의 옷가지나 신발 한 짝의 자취도 찾을 수 없었다.



▲ 조발도

이 때 홍 선장은 의식을 찾고 보니 용궁입구의 산호 꽃밭이었다. 그런데 그 순간 큰 거북이가 자기를 보고 쓴살같이 와서 등에다 태우고 물으로 나왔다. 산호초 위에 누워 있을 때 무엇인가가 다가와 홍선장의 목에 구슬을 걸어 주었다. 홍 선장은 목에 걸린 진주 구슬을 팔아 선원들과 똑같이 나누었다는 말이 전해오고 있다.

6) 여우

과거 우리나라 전설이나 설화에서 여우의 존재는 항상 사악한 존재이며, 인간 생활과 대결 구조로 되어 있다. 여수 지역에서 여우와 관련된 전설이 남아 있는 지역은 화양면 용주리 여수마을과 소라면 봉두리 금대마을 여우굴 두 곳이 있다.

여수마을은 여우가 많이 살면서 온갖 가축들을 다 잡아먹자 숲을 다 벌채하고 난 후에는 여우가 사라졌다고 전하며, 금대(金帶)마을의 여우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한다.

금대마을에 박진사가 예쁜 딸 반야를 데리고 살았다. 시집 갈 나이인 열여섯 살이 되자 청혼하러 온 남정네들이 다 죽는 괴변이 일어났다. 그러던 어느 해 박진사의 허락을 받은 김공이 하룻밤을 유숙하게 된다. 살포시 잠이 들었을 때, 선녀같이 아리따운 여인과 밤을 즐기다가 그녀가 꼬리가 여섯 개나 달

린 수천 년 묵은 불여우라는 사실을 알고는 잠이 깬다. 불여우는 다름 아닌 박진사의 딸이었다. 그녀를 죽여 후환을 없애려 하자, 그녀는 원래 여우였으나 박진사의 도움을 받아 그를 사모하게 되었는데, 자신을 시집 보내려 하니 일을 저질렀노라며 용서를 빌었다. 김공은 산으로 올라가 굴 속에 처넣고 큰 돌로 굴의 입구를 막아버려 여우굴이라고 했다.

7) 나무

나무는 새와 마찬가지로 천상과 지상을 연결시켜주는 매개체와 같은 역할을 했다. 따라서 토템이나 무속의 세계에서 나무는 길흉화복을 예견하는 역할과 치성의 장소여서 신목으로 역할을 했고,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에는 신체로 숭상하기도



▲ 경도 당산나무

했다. 우리 고장도 대다수의 마을에 신목이 있어 터줏대감처럼 마을을 지키고 있었다. 이러한 신목은 동물 전설이 가진 인간과의 관계와는 다른, 주민들의 생활과 관련이 깊다.

경도에는 천년 세월의 비정을 간직하고 있는 신목이 있다. 이 신목은 경도를 지키는 수호신과 같은 역할을 한다. 이 신목은 서쪽의 기운이 약한 것을 보완하기 위해 조산을 만들고 나무를 심었다. 이 나무들 중 대표적으로 남아 있는 것이 현재의 당산나무다. 약 500년 전 자손이 없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살고 있었다. 이들은 자손이 없는 적적함을 달래기 위해 소나무 두 그루를 심고 매일같이 자식처럼 키웠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돌아가시면서 소나무에게 '마을을 지키는 이정표가 되라.'고 당부했다.

그 후 마을 사람들은 위쪽 소나무를 할아버지 나무로, 아래쪽 소나무를 할머니 나무라고 믿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나무를 당산나무로 지정하여 매년 음력 선달 그믐날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영혼을 달래기 위해 당산제와 풍어제를 지내기 시작했다.

화정면 백야리에는 제를 지내기 위해 신목(神木)이 필요하여 느티나무를

심었다. 신목의 신령스러움은 멀리 남원까지도 알려지게 되었다. 남원 땅에 살고 있는 김씨는 효성이 지극했다. 온갖 산야초로 정성을 다했지만 어머니의 병은 도무지 차도가 없었다. 김씨는 잠깐 선잠이 들었다. 백발 할아버지가 나타나 “남해 바다에 어느 섬에 흰 산이 있는데, 이 산 밑 정자나무 아래 큰 바위를 일으키면 지네가 있을 것이다.”란 말을 하고 사라졌다.

김씨는 백방으로 수소문하여 백야도에 찾아와서 느티나무 아래서 지네를 잡아 병환을 낫게 했다. 이런 효행에 감동하여 사람들은 이 느티나무를 효자정 지네목(지네바위)라고 불렀다.

돌산을 올림리 백포마을 뒤편 골짜기를 성주동이라 한다. 예전에 이곳에 밤나무가 많이 자생하였으며, 누구든 여기 있는 밤나무를 베면 병이 나므로 아무도 손을 대지 못하였다 한다. 그러나 문묘(文廟)의 건축용 자재로 이곳의 밤나무를 베어 사용하면서부터 별 탈이 없어졌다고 한다. 그래서 이곳을 성주동(聖主洞)이라 하였다 한다.

오림동 대로변에 수령 500년이 넘는 느티나무 두 그루가 정답게 서 있다. 옛날 이 곳에 젊은 부부가 삼간 토막집을 짓고 살았다. 부인은 남편의 글공부 뒷바라지를 위해 떡장수로 곤궁한 생활을 꾸려갔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은 병을 얻어 죽으면서 ‘이생에서 못 다한 인연을 저 세상에서 다시 만나 이루어 봅시다.’라는 말을 마친 후 숨을 거두었다. 밤마다 죽은 남편의 가냘픈 울음 소리가 문밖에서 항상 들려 왔다. 이와 같은 일이 계속되자 부인은 목을 매어 자살을 기도하는 순간 길을 가던 노승에게 목격된다.

자초지종을 알게 된 스님은 부인에게 남편 영혼을 위해 만인 공덕을 쌓아야 한다고 말한다. 부인은 남편의 극락왕생을 위하여 무엇으로 만인 공덕을 할까 생각 끝에 느티나무 한 쌍을 심어 두 사람의 미진했던 사랑을 나무를 통해 이루고,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만인 공덕을 쌓게 한다. 두 그루의 느티나무를 심었다고 해서 후세 사람들은 이 나무를 톡(독)모정 느티나무라고 부른다.

울촌은 밤나무가 많아 밤촌(栗村)이라 했다. 이 곳 주민들은 밤나무가 많은 탓으로 순천부와 좌수영에 밤을 납세해야 했다. 흉작이 되어도 배당량이 줄지 않아 괴로움을 당하기 일쑤였다.

이봉징이 순천부사로 있던 1687년 좌수영에서는 수영에 내어 놓게 된 밤이 오지 않는다고 순천부에 독촉을 해오자 이부사는 밤나무가 유죄라며 모조리 베어 버리게 하고 밤나무가 없어 수영에 보낼 밤이 없다고 전갈했다. 이후 주민들은 수영의 압력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하며 그가 떠나자 비를 세

워 그의 공덕을 기렸다 한다.

선원동 도원마을은 좌우로 복숭아나무가 많다고 해서 도원이다. 약 500년 전에 나주시 남평에서 남평문씨 중시조인 왕죽이 학문을 익혀 초시와 진사에 합격하고 그 후 과거 시험에 합격하여 고향에 귀가하던 중이었다.

잠시 주막에 들려 잠을 자노라니 꿈에 백발노인이 “당신은 고향에 오래 머무르면 모략과 중상으로 국가에 역적으로 몰리게 되어 가문이 죽음의 길에 들어서니 즉시 고향을 떠나시오.”라고 말해 주었다. 그래서 곧장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남쪽으로 계속 내려왔다.

울촌면 거북 바위에 걸터앉아 동남쪽을 바라보니 은빛 찬란한 불빛이 한 줄로 비치었다. 곧장 달려가 보니 백발노인들이 흥겨운 춤과 향락을 즐기면서 왕죽이 도착하자 “선비님 당신을 오래 기다렸다.”라고 하면서 반갑게 맞아 주었다.

그 후 왕죽은 신선과 친구가 되어 이곳에서 계속 머물면서 바둑과 춤, 노래 등을 즐겼다. 신선들은 옥황상제의 부름을 받고 떠나고, 왕죽은 산 중턱의 토굴에서 생활하였다. 현재, 남평 문씨 후손들이 문왕죽에 제사를 올리고 있다.

8) 기타 동물과 식물

이 밖에도 학, 매, 고양이, 지네 등도 전설에 등장한다. 학동은 학이 많이 살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소라 관기 매봉산의 유래가 있다. 김선달이 사냥 나갔다가 실수로 낭떠러지에 떨어졌다.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구해 줄 사람이 없었다. 이 광경을 본 매가 개에게 알리자 개는 곧바로 동네 사람들의 옷자락을 물고가 김선달을 구조했다는 매봉산 전설이 있다.

고양이와 관련한 이야기로 남면 화태도 끝에 고양이 머리와 같은 모양이라 하여 묘두(貓頭)가 있으며, 묘도는 섬의 일부가 마치 고양이 같다 해서 괴섬이라 불렀고, 그 앞에 쥐섬도 있다.

묘도의 온동마을은 고양이의 꼬리 부분에 해당하고, 창촌은 머리 부분에 해당하는데, 묘도의 모양은 마치 고양이가 쥐를 잡아먹으려는 형태를 하고 있다. 그래서 옛날부터 서씨가 묘도에는 살지 못하며, 일제강점기에도 일본 사람은 묘도에는 얼씬도 하지 못했다고 한다.

지네와 관련된 이야기로 오동도 남쪽 암석 동굴에는 500년 묵은 지네가 살고 있었다. 어느 날, 처음으로 이 섬에 해조를 채취하러 왔던 여인이 이를 모

르고 그 동굴 가까이 접근했다가 그 지네를 보고 실신하였다. 이 소식을 듣고 남자들이 배를 타고 몰려가 여인을 구하고, 그 동굴 앞에서 사흘 밤낮으로 불을 피워 연기를 흘려보내 지네를 잡아버렸다.

그 후부터는 오동도에는 지네가 살지 않는다고 한다. 또 백야도 백호산 효자정 지네목은 남원 땅 효자가 숫지네로 특효약을 구해 어머니의 병환을 낫게 했다는 이야기가 있다.

제2절 민담

민담은 설화의 한 갈래로 '흥미 위주로 전승되는 옛날이야기'이다. 민담은 전설처럼 사실 여부에 구애받지 않고 상상력을 마음껏 동원하여 흥미진진하게 스토리를 엮어나가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람이 모이는 마을 회관 같은 곳에서 쉽게 들을 수 있다.

민담의 특징은 사적이고 일상적인 이야기로, 표현에서 이야기의 맛을 살림으로써 흥미와 공감을 불러일으킨다. 서사적 형상에서는 상상의 이야기로 비현실적이면서도 낙관적인 세계관을 보여준다. 그래서 민담을 꽃 중에 꽃이라고 한다.

민담의 주체는 주로 민중들로 민중의 삶에서 우러나온 욕구와 감정을 폭넓게 반영하면서 전승된다. 따라서 민중의 세계관이 솔직하고 다채롭게 드러나고 인간 내면의 모든 감정들이 자유분방한 모습으로 실현된다. 이는 일정한 이념이나 사회규범에 의해 규제되거나 왜곡된 식자계층의 관념과는 다르게 생활의 질박한 숨결이 흐른다.

여수지역의 민담 자료로는 순천대학교 남도문화연구소(1996)의 『여수 구비문학 발간 및 무형문화재 발굴에 따른 자료조사 학술용역 결과 보고서』가 유일하다.

이 결과보고서에는 28편의 민담이 채록되어 있다. 채록되어 있는 내용들은 환상적 민담과 희극적 민담으로 우리지역 사람들의 질박한 모습을 대략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그러나 자료가 빈약할 뿐만 아니라 채록된 지역이 특정지역에 치우쳐 있고(광무동: 4개, 봉강동: 5개, 수정동: 8개,

덕충동 : 1개, 만흥동 : 10개, 덕충동 : 1개), 채록된 내용 또한 일반적이어서 여수지역의 전체적인 민담 내용을 파악하기는 어렵다.

특히, 21세기 문명권에서 상대적으로 떨어져 옛 것이 살아 있는 도서지역의 민담이 채록되지 못한 것은 아쉬움이 남고, 하루 빨리 도서지역 민담을 채록해 우리지역 유산으로 남겼으면 한다.

필자는 위의 28편 가운데 가장 빈번하게 구술되고 있는 '소금장사 이야기(5개)'와 '약물을 구해와 부친을 구한 바리데기(3개)', '방구쟁이 며느리(3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 세 작품은 우리지역 뿐만 아니라 어느 지역에서나 구술되고 있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다.

소금장사 이야기는 생산지를 감안할 때, 바다와 관련되어 있다. 산업화가 전개되기 전 삼일면 지역은 염전이 있었고, 이곳에서 소금 생산이 이루어졌다.

우리 지역의 소금장사 이야기에서는 주인공의 숙박지에서 타 지역과 차별성을 갖는다. 타 지역의 경우 소금장사의 숙박지가 느티나무나 고갯마루였다. 그러나 우리지역은 소금장사가 묘지에서 숙박을 한다. 소금 장사가 하루의 고된 노동을 마치고 갈 곳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에서 임시 거처에서 하룻밤을 머무르게 되는데, 그곳은 다름 아닌 외빈인 것이다.

소금장사 이야기에 외빈이란 장소가 드러난 경우는 타 지역에서 찾기가 힘들다. 스토리 구조 자체는 보편성을 가지고 있지만 기법과 장치면에서 외빈이라는 지역성과 관련을 갖고 있다. 왜냐하면 외빈(106)은 죽은 자의 무덤을 지칭하는 우리 지역 방언이기 때문이다. 외빈을 다른 말로 초분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초분의 장례풍습은 남해안 지역에서 행해지고 있는 복장제 장례 풍습이다.

따라서 소금장사 이야기는 외빈이란 독특한 구조로 환상적 민담 구조의 가장 중요한 장치로 작용하고 있다. 소금장사 이야기의 구술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소금장사가 소금을 팔러간다. 소금 장사는 소금을 팔러가는 도중에 날이 저물어 숙박할 곳을 찾다가 외빈을 발견하고 그곳에서 하룻밤을 묵게 된다. 살포시 잠이 들려고 하는데, 옆 산 혼령이 제삿날을 맞아 외빈의 혼령에게 동행을 청한다. 그러나 외빈의 혼령은 자기 집에 손님이 왔음으로 동행하지 못한다고 말한다.

제삿집에 갔다가 돌아온 혼령은 평소 때와 마찬가지로 "뗏밥이라는게 구더

106) 초분은 1900년대 초까지만 해도 도서 지방은 물론 육지에서도 많이 행해졌다. 일제강점기 때, 위생법이 제정되고 화장이 권장되면서부터는 남해와 서해의 일부 도서에서만 초분 풍습이 행해졌다. 1970년대 새마을운동이 시작된 뒤에는 법적으로 금지되기도 하였다. 예전에 초분 풍습이 행해지는 지역으로는 전라남도 완도군·청산면의 청산도(靑山島), 여수시 금오도(金鰲島)·안도(安島)·개도(葛島), 고흥군 나로도(羅老島), 신안군 증도(曾島)·도초도(都草島)·비금도(飛禽島), 영광군 송이도(松耳島), 전라북도 군산시 무내도(無女島), 부안군 개희도(界火島) 등이 있다.

기가 있고, 밥에는 머 거시랑 돛뽕이 들고 이래서 내가 아무 것도 못 먹고 그냥 너희들 빌어먹어라.”고 하면서 제찬에 불만을 터트린 혼령들의 이야기를 듣는다.

소금장수는 혼령들의 이야기를 듣고 난 후 날이 밝자 마을로 내려간다. 마을로 내려가 사람들이 북적거리는 제삿집에 들러 술 한 잔을 하고 어젯밤에 있었던 이야기를 제주에게 들려준다. 제주는 소금장수의 이야기를 듣고 난 후 불효를 자책하고 외빈 혼령 제삿날에 자기 집의 제찬과 제수를 정성껏 마련해 제사를 지냈다는 이야기다.

소금장수 이야기는 환상적 민담으로 현실과 비현실이 한데 어우러져 있다. 소금장수는 현실적 존재이지만 혼령은 초월적 존재다. 소금장수는 외빈에서 혼령과 무언의 대화를 나눈다. 소금장수가 외빈의 날개에서 잠시 하룻밤을 쉬려고 할 때 혼령은 자신의 집에 손님이 와 있다고 옆산 혼령에게 말을 한다. 소금장수를 알아보는 혼령도 신기하지만 혼령들끼리 주고 받는 말을 알아 듣는 소금장수도 기이한 일이다.

이러한 비현실적인 공간과 현실의 세계가 서로 넘나드는 현상은 우리 문학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이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반드시 현실세계의 모순이나 부조리를 징벌하는 것으로 귀결된다. 소금장수 이야기에서도 혼령들은 제주의 마음가짐과 정성의 부족을 꾸짖으며 효의 실천을 강조하고 있다.

이본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혼령들이 현실세계로 귀환하는 시기는 제삿날과 출산날이다. 제삿날에 혼령들이 현실세계로 귀환해서 꾸짖는 주된 내용은 ‘제주의 부주의로 멧밭에 구더기나 거시랑 돛뽕이, 머리카락이 나타날 때’이다. 제주의 정성부족과 무성의를 징벌하는 것이다. 출산날은 미역국을 끓였는데 ‘통시의 날개로 첫국밥을 지어’ 주어서 혼령들은 ‘즈그 압씨나 붙어 묵어라.’는 말로 징벌을 한다.

무속에서 사람이 태어남은 삼신이 주관하지만 칠성신은 인간의 수명과 복을 관장하는 신이다. 따라서 출산날 혼령들에게 미역국을 진설하는데 통시 날개로 미역국을 끓여 혼령들은 정성의 부족을 질책한다. 그리고 혼령들의 대화를 들은 소금장수는 집으로 돌아와 갓 태어난 딸을 시퍼렇게 날이 선 대밭 밑둥위로 내던져 버린다. 그러나 오이디푸스 신화와 같은 질긴 운명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소금장수가 장돌뱅이가 되어 하룻밤 주막에서 머무르게 되는데, 그 곳에서 자신의 딸과 운우지정의 대상으로 조우하게 되고 만다.

107) 순천대학교 남도문화연구원
 1996, 102쪽.

소금장사가 소금 장사를 땡기다가 초분 밑에 가서 자는디, “어 친구!” 저 건네 사람 보고, “어 친구! 아무개 집에 애기 낳는다네, 가세.” 그런께, “어이 오늘 저녁에 나 손님이 와서…” 소금장사가 초분 밑에와 잔께, “오늘 저녁에 나가 친구가 와서 못 가겠네. 자네 혼자 가소.” 그런께, 갔다가 와서, “나 갔다 왔네.” 그런께, “그러면 뭐라고 하고 왔는가?” 그런께, “지그 아버지는 붙어 묵고 니미 혈 놉아!” 그리고 왔네. [청중 : 에이 한자리 더 들어가야 돼.] 가만히 있어봐”. “맛을 때서 밥을 허드냐?” 그런께, “통시에 가서 날개를 떼다 밥을 허대. 그래서 니 에미를 붙어먹어라. 니 애비를 붙어 먹어라.” 그랬네.¹⁰⁷⁾

‘방귀쟁이 며느리’는 희극적 민담이다. 방귀쟁이 며느리의 스토리 구조는 간단하다. 며느리가 시댁에서 인간의 생리적인 욕구를 자연스럽게 해결하지 못해서 일어난 일을 해학적으로 표출한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해학 속에 비장미가 숨어 있다.

그 비장미는 시집살이의 고단함이다. 무엇을 먹어도 얼굴이나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시집살이의 힘겨움. 이러한 힘겨움은 하루하루 가슴에 쌓여 한으로 축적된다. 분출구를 찾지 못한 한은 마지막에 웃음과 함께 고된 삶에 탈출구를 분출한다.

그것은 방귀로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를 한방에 날려 보낸다. 이본 가운데 결말부분이 변이된 부분이 있지만 기둥에 시아버지를 붙들어서 매고 방귀를 뀌어서 시아버지가 집과 함께 날아가거나 집이 날아간다는 이야기는 동일하다. 이본 가운데 대표적인 내용을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옛적에 두 영감 할멈이 살다가 만득으로 자식을 하나 낳았어요. 그래 가고 키워갖고 장가를 보냈는디, 며느리가 왔어. 며느리를 델다 놓고 산디, 아 며느리가 멀 굶지 않고 먹는디, 얼굴이 안나요. 못 먹어서 톱 그런 것처럼 얼굴이 안나아서 한번은 시아버지가

“야야, 니가 그대로 굶지 않고 먹는디, 어째서 사철 그 야위냐?” 그런께, “예 내가 죄송헌 말씀인디 정말로 옛적 끼는 방구를 못껴서 내가 이렇게 야위요”

“어 그래. 그랬으면 뒤편에 가서 방구 끼고 오니라” 그런께, “아 이 방구가 어떻게 큰 방구가 났던가, 뒤편에 가서 방구를 끼니 집이 그냥 앞으로 넘어가, 얼른 와서 집앞에 와서 방구를 끼니까 집이 곳곳허니 섰다요. 허허. 그런 사람이 있어요.”¹⁰⁸⁾

108) 임의 책 84쪽.

바리공주는 무속에서 구연되는 것으로 우리의 전통적인 망자 천도굿인 지노귀굿과 오구굿에서 구송되어온 이야기다. 따라서 무속의 세계가 남아 있는 당굿에서 볼 수 있다. 당굿은 다른 절에서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간략하게 살펴해보도록 하겠다.

샤먼들의 어머니이기도 한 바리공주는 씻김을 통해 죽은 자의 원혼을 보듬고 또한 산 자의 상처를 보듬는다. 바리공주의 공통적인 서사구조는 딸이 많은 집에 태어난 딸이 부모로부터 버려지지만 훗날 죽을 병에 걸린 부모를 살리기 위해 약수를 구해온다는 것이다. 남성 중심적인 지배 이데올로기에서 단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버림 받은 것이다. 이 버림 받은 여인이 효 이데올로기를 실천함으로써 상처 입은 것들의 어머니로 다시 태어난다는 이야기다.

우리 지역에서 전해 내려온 '약물을 구해와 부친 구한 바리데기' 민담도 서사구조 측면에서 다른 지역과 공통적인 면을 보인다. 그러나 우리 지역의 민담에서는 바리데기가 버려지는 과정보다는 버림 받은 딸이 불사약을 구해와 부친을 살린다는 내용만 남아 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서사 구조는 호남지역의 특징과도 관련되어 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의 '약물을 구해와 부친 구한 바리데기' 민담은 구술자가 출처를 무곳으로 밝히고, 불사약의 위치, 버림받은 과정 등에서 뚜렷하게 차이를 나타낸다.

해안 지역은 무속의 세계가 비교적 잘 남아 있다. 따라서 당골들의 무가인 오구굿, 씻김굿을 통해 바리데기를 접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그 내용에 있어서도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바리데기가 버림을 받았을 때의 상황이다. 일반적으로 바리데기는 강이나 바다에 버려진다. 그런데 우리지역에서는 뒷동산에 '까막 간치 밥모시허라.'고 버린다. 또 버려진 바리데기는 바리공덕 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 구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지역에서는 '학이 내려와서 한 자락(날개)으로 덮어 주고 한 자락으로 깎아준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바리데기의 신성성을 엿볼 수 있다. 바리데기가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 구해야 할 약이 있는 곳의 정확한 지명이 일본 대판(오사카)으로 나타나는 것은 지리적 특성과도 연관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강동학 외, 『한국구비문학의 이해』, 월인, 2000.
- 김계유, 『여수여천발전사』, 1998.
- 김준옥, 『여수 지방의 구비 전승에 관한 연구』, 『국어문학 35집』, 1998.
- 김준옥, 『여수 아으 동동다리』, 민속원, 2004.
- 순천대민속학 연구회, 『여천시의 민속과 축제』, 1995.
- 순천대박물관, 『전남 동부지역의 문화유적과 유물』, 1994.
- 순천대학교 남도문화연구소, 『구비문학 발간 및 무형문화재 발굴에 따른 자료 조사 학술용역 결과 보고서』, 1996.
- 여수·여천향토지편찬위원회, 『여수·여천향토지』, 1982.
- 여수문화원, 『여수향토사』, 1992.
- 여수시, 『내고장 여수』, 1995.
- 여수시, 『여수시의 문화유적』, 디자인아트, 2000.
- 여천군 문화원, 『여천군 문화총람』, 1998.
- 여천군, 『마을유래지』, 1991.
- 여천군, 『지명유래지』, 1993.
- 전라남도교육청, 『남도문화』, 1998.
- 정상훈, 『임란전설연구』, 석사학위논문,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2000.
- 조선대국사연구소, 『여천군의 문화유적』, 1988.

제 5 장

방 언

한 경 호 (여천고등학교 교사)



제1절 머리말

외국을 여행하다 우연히 한국말을 쓰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이 전라도 사람이든 경상도 사람이든 너무나 반갑다. 서울에 볼 일을 보러 갔다가 식당에서 전라도 사람의 말소리만 들어도 다시 한 번 쳐다봐지게 된다. 경상도 사투리를 쓰는 로버트 할리씨보다 전라도 사투리를 쓰는 미즈노 교수에게 더 정이 가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렇게 나와 같은 언어(방언)를 쓴다는 것은 '우리는 하나'라는 동료의식, 그 이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안 '방언'은 세련되지 못하고 우리말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낮은 수준의 언어로 취급되어 배척의 대상으로 삼아왔다. 사실 언어학에서 '방언'이라고 할 때는 한 언어를 형성하고 있는 하위단위로서의 언어체계 전반을 가리키는 것이지, 표준어보다 열등한 개념을 의미하는 것은

109) 이석선 『방언학』, 1984, 11~12쪽

110) 이성계의 역성혁명에 불복하였다 하여 여수현을 역항(逆항)으로 규정하여 순천부에 귀속시킨 후 '여수라는 이름을 되찾기 위해 500여 년을 노력한 결과 경무 왕년(1987년)에 여수군이 설립 되기 에 이른다.

111) 2003년 광양 옥룡면 은평리와 진상면 성거리에서 방언조사를 할 때, 많은 부분에서 여수말과 닮은 점을 느꼈다.

아니다.

가령 한국어를 예로 들면 한국어를 이루고 있는 각 지역의 말 하나하나를, 즉 그 지역의 언어체계 전부를 '방언'이라 한다. 그리고 나머지 지역의 방언들은 표준어가 아니기 때문에, 또는 표준어보다 못한 언어이기 때문에 방언인 것이 아니라 한국어라는 한 언어의 하위류(下位類)들이기 때문에 방언인 것이다.¹⁰⁹⁾ 이런 점에서 여수말도 하위단위인 한국어의 한 변종(變種)이라고 할 수 있다.

여수시는 우리나라 남해안 중앙의 여수반도 남단에 위치하고 있으며, 다도해의 크고 작은 섬들을 끼고 있다. 지리적으로 순천시와 인접해 있지만 역사적 이유 때문인지 몰라도 순천말과는 확실히 구별되고,¹¹⁰⁾ 오히려 뱃길이 열려있던 광양의 언어와는 더 가깝게 느껴진다.¹¹¹⁾

또 여수의 화자들은 화양면말, 삼일면말, 쌍봉말, 돌산말 등이 조금씩 다르다고 느끼고 있으며, 필자가 최근 3년 동안 근무했던 금오도의 말도 조금씩 다름을 느낀다. 교통이 발달하지 못해 사람들의 왕래가 쉽지 않았을 때를 생각하면 읍·면마다 다른 언어의 특성을 보이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럽다.

하지만 여수말도 1980년대 이후 급격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여수 국가 산업단지에 유입되는 산업인구의 대부분이 표준어를 구사하는 젊은 식자층이기 때문이다.

이 글의 목적은 이렇게 변화의 중심에 서있는 여수 방언의 모습을 음운(音韻), 문법(文法), 어휘(語彙)로 나누어 간단히 살펴보는 데에 있다. 음운의 특성은 사회적 요인(세대차이)을 고려하였고, 문법은 『국어방언문법』의 도움을 받았으며, 어휘 부분은 『전남방언사전』과 『방언사전(여수편)』을 자료로 사용하여 5권으로 첨부하였다.

제2절 음운상의 특성

1. 음운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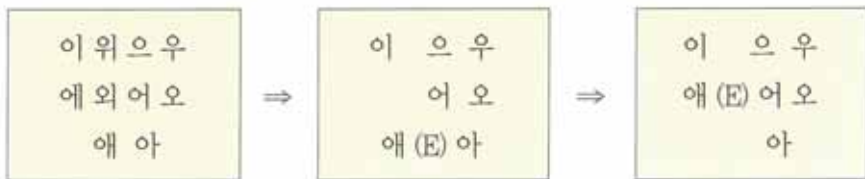
전남방언의 모음 체계는 동부와 서부지역이 각각 다른 모습을 보인다. 즉

동부 지역은 ‘ㅣ, ㅓ, ㅕ, ㅗ, ㅛ, ㅜ, ㅝ, ㅟ, ㅠ, ㅡ’의 10모음 체계를 보이는 반면, 서부 지역은 ‘ㅓ’와 ‘ㅕ’가 합류되어 9모음 체계를 가진다고 말한다.¹¹²⁾

이러한 주장에 이끌리어 여수방언의 모음체계를 간단히 10모음 체계라고 말하기도 한다. 하지만 여수방언의 단모음 체계를 쉽게 10모음 체계라고만 말할 수 없을 것 같다. 사회적 요인 등에 의해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기세관(1997)은 여수방언의 모음 음소는 역사적으로 10모음 체계에서 9모음 체계를 거쳐 7모음 체계로 변화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즉, 여수방언에서는 역사적으로 전설모음 /e/와 /ɛ/가 합류된 뒤에 /E/로 자리 잡았으며 최근에 들어와 젊은층에서는 /ü/와 /ö/가 음소의 자격을 상실하여 음소 체계의 재구조화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한경호(1996)에서도 사회적 요인을 고려하여 여수 지역의 노년층과 중년층에서는 ‘ㅣ, ㅓ(‘에:애’가 중화된 ‘E’), ㅕ, ㅗ, ㅛ, ㅜ, ㅝ, ㅟ, ㅠ’의 9모음 체계를, 젊은 청소년층에서는 ‘ㅣ, ㅓ(‘에:애’가 중화된 ‘E’), ㅜ, ㅝ, ㅟ, ㅠ’의 7모음 체계를 설정한 바 있다. 따라서 여수지역의 세대별 모음체계 변화도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현대에 선행하는 단계¹¹³⁾〉

〈중년층〉

〈청소년층〉

여수방언의 활음은 중앙어와 마찬가지로 ‘j, w’의 두 종류가 있으며, 자음 목록도 표준어와 다름없이 /b/, /ɸ/, /p/, /d/, /t/, /ɸ/, /g/, /k/, /k/, /s/, /ɸ/, /z/, /ʃ/, /ɸ/, /h/, /o/, /ɸ/, /i/, /r/의 19개이다.

운소(韻素)와 관련하여 음장은 전남방언에서 변별적 기능을 가지며 존재하는데, 지역에 따라 단어들의 음장이 달리 나타나는 수가 있다. 일반적으로 전남의 북부 지역인 담양·장성 등에서는 전북과 인접한 관계로 모음의 길이가 길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영어(英語), 여시(狐), 모자, 고무, 모래, 나무’ 등도 북부 지역은 길게 발음되지만, 남부 지역에서는 짧게 발음되어 지역적 차이를 드러낸다.¹¹⁴⁾

112) 이동주(1978)는 /E/를 /e/와 /ɛ/의 합류음으로 설정하여 전남 방언의 음운론적 특징이라 하였으나, 이승재(1980), 이거갑(1986) 등에서는 서부 전남에서만 이러한 모음체계를 가질 뿐, 구례, 광양 등의 동부 전남에서는 이 두 모음의 구분이 가능하다고 말한다.

113) 조형규, 1996. 92~95쪽. 전남 지역에서 ‘에:애’의 중화는 19세기 말엽에서 20세기 초엽 경에 완성된 것으로 추정한다.

114) 방언학 사전, 2000, 71쪽

한편 여수지역의 경우 아래의 <표1>처럼 노년층은 음장이 의미 변별력이 강하여 대체로 잘 구별되는 편이나, 젊은층 화자는 장음과 단음을 혼동하거나 특히 2음절 한자어에서는 단음조차 장음으로 실현시키는 등 극도의 혼란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음장이 여수지역에서 음운론적 기능을 상실해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표1> 노년층과 젊은층의 음장 실현 양상

노년층		젊은층	
장음	단음	장음	단음
ma:i(言)	ma:l(馬)	ma:i(言)	ma:l(馬)
nu:n(雪)	nun(眼)	nu:n(雪)	nun(眼)
pa:l(簾)	pal(足)	pa:l(簾, 足)	pal(足, 簾)
u:l(鍺)	tʃul(線)	tʃu:l(鍺, 線)	tʃul(線, 鍺)
pə:l(蜂)	pəl(罰)	pə:l(蜂)	pəl(罰)
pa:m(栗)	pam(夜)	pa:m(栗)	pam(夜)
ka:nda(耕)	kanda(行)	ka:nda(耕)	kanda(行)
tæ:da(硬)	tæda(化, 爲)	tæ:da(硬)	tæda(化, 爲)
sə:nhEŋ(善行)	sənhEŋ(先行)	sə:nhEŋ (善行, 先行)	sənhEŋ (先行, 善行)
si:dʒo(始祖)	sidʒo(時調)	si:dʒo (始祖, 時調)	sidʒo (時調, 始祖)
mu:yoŋ(舞踊)	muyot(無用)	mu:yoŋ (舞踊, 無用)	muyot (無用, 舞踊)

2. 움라우트현상의 퇴화

국어의 움라우트는 후행하는 모음 i나 y의 영향으로 후설모음이 전설모음으로 바뀌는 일종의 역행동화 현상이다. 이 현상은 거의 모든 방언에서 관찰되는 일반적인 현상이나, 그 실현양상에서 지역 간의 차이를 보이는데 대체로 동남방언(경상도)이나 서남방언(전라도)에서 강하게 나타나며 북쪽으로 갈수록 약하게 실현된다고 한다.

여수방언의 움라우트 현상과 관련하여 기세관(1996) 13쪽은 “(머리)를 감기다 꺽기다, 두드러기 푸드레기, 두꺼비 뚜게비, 당기다 땡기다, 부스러기 뿌시레기, 사립문 새립문, 소나기 쏘내기, 호랑이 호랭이, 고기 괴기~개기, 호망이 호맹이, 버리다 베리다, 학교 핵교, 이름이 이림이 등에서처럼 여수방언에서는 움라우트가 자연스럽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처럼 여수지역에서 움라우트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그렇다고 여수방언만이 갖는 특징적인 움라우트 현상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움라우트와 관련하여 같은 어휘항목이라도 연령층에 따라 그리고 화자들에 따라 그 실현에 차이를 보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회적 요인을 고려한 접근 방법도 의미 있을 것 같다.

여수방언에서 움라우트는 노년층에서는 매우 활발하게 실현되는데 비해 청소년층에서는 제한적으로 나타난다. 이처럼 세대 간의 차이를 보여주는 움라우트 현상이 어느 시점에서부터 그리고 어떤 조건에서 공시적인 움라우트 규칙을 상실해 가는지, 또한 얼마만큼의 속도로 변화해 가는지에 대해 살펴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되어 세대별 움라우트 실현 양상을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17개의 어휘 항목을 통해 살펴보았다.

<표2> 움라우트의 세대별 실현율(%)¹¹⁶⁾

구 분	어 휘 항 목		세 대 별			
	표 준 형	움라우트형	G1	G2	G3	G4
단일형태소 내에서의 움라우트	지팡이	지땡이	100	85	48	0
	가랑이	가랭이	100	89	67	12
	아비	애비	90	22	0	0
	고기	괴기	90	25	3	0
	당기-	땡기	100	78	67	50
	삼키	생키	100	81	48	20
	우기-	위기-/이기-	100	88	52	0
	가리-	개리-	100	85	56	4
	다리-	대리-	100	89	71	40
형태소 경계에서의 움라우트	밥이	뵤이	90	38	0	0
	목숨이	목썸이	90	27	0	0
	막히-	맥히-	90	62	38	16
	속이-	궤이-	90	38	3	0
	먹이	멕이	90	12	0	0
	다듬이	다디미	100	61	28	8
	똑똑히	뚝뚝히	90	46	12	0
	넉넉히	녕넉히	90	50	14	0

116) 여기에서 G1은 언어 습득기를 일제강점기에 보낸 세대로 전통방언 연구에서 말하는 진정한 여수방언의 소유자이고, G2는 광복이후 한국전쟁을 겪은 세대이며, G3가 5·16 이후 비교적 교육을 받고 자란 세대라면, G4는 이른바 신세대로 불리는 세대를 뜻한다.

위의 <표2>를 통해서 이 지역의 음라우트 현상은 G1 세대에서는 활발하게 실현되지만 G2 세대에 이르러 동요를 보이기 시작하여 G3 세대에 이르러 급감하며, G4 세대에서는 제한적으로만 실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청소년층의 제보자들은 17개의 조사대상 어휘항목 중 일상생활에서 친숙한 7개의 어휘에 대해서만 음라우트를 실현하고 있는데, 이는 어휘형태소 내부에서의 음라우트가 통시적 현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동시에, 언어 내적인 요인에 의해서도 언어가 변화하지만 언어 외적인 요인에 의해 상당히 제한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즉 여수지역의 청소년층 세대가 교육의 혜택을 많이 받아 방언형인 음라우트를 표준어형으로 대체시킨 결과 음라우트의 실현비율이 현저하게 낮아지고 있음을 반영한다.

3. 어두경음화 현상의 강화

어두경음화란 어두에 위치하는 /k, t, p, s, / 등에 [+tense] 또는 [+glottal]이 가해져 /k', t', p', s', /로 실현되는 통시적 음운 변화 현상으로, 동남방언과 서남방언을 포함한 남부방언에서 특히 두드러지며 한자어보다 고유어에서, 연령적으로는 젊은층으로 올수록 활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전남지역 중에서 특히 동부 도서 및 해안지방이 내륙지방에 비하여 어두경음화 현상이 뚜렷하다는 이돈주(1978) 202~203쪽의 지적대로 여수방언에서 어두경음화 현상은 폭넓게 실현되고 있다.

다음 <표3>은 여수방언의 어두경음화 현상의 세대별 실현율을 19개의 어휘항목을 통해 살펴보았다.

<표3> 어두경음화 현상의 세대별 실현율

어휘 구분	연령		G1	G2	G3	G4
	표준형	경음화 실현				
/k/계	갈치	꺄치	90	86	79	50
	개미	꺄미	80	78	69	4
	게으르다	꺄우르다	90	80	48	8
	강냉이	꺄냉이	40	48	62	82
	고추	꺄치	90	85	78	46

/k/계	곰보	곰보	90	92	69	86
	곱사	곱새	90	88	86	92
/t/계	두부	뚜부	80	82	68	8
	두드러기	뚜드래기	100	89	85	70
	당기다	땡기다	90	92	83	22
/p/계	반짝반짝	뽀짝뽀짝	80	82	86	82
	비둘기	삐둘구	90	48	38	0
	병아리	뽕아리	90	62	42	0
/s/계	상놈	쌍놈	60	70	76	96
	소나기	쏘내기	100	95	90	88
	사납다	싸납다	100	90	96	88
/tʃ/계	장어	짱어, 짱애	80	84	68	8
	족집게	쪽집개	90	100	100	100
	질기다	찢기다	70	66	68	70

위의 <표3>을 통해 여수방언의 세대별 어두경음화가 대체로 G1, G2, G3 세대에서는 모든 조사대상 어휘에 대하여 고르고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G4 세대에서는 '개미, 게으르다, 두부, 당기다, 비둘기, 병아리, 장어' 등의 어휘에 대해서는 경음화가 매우 약화되어서 소멸하기 직전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나, '강냉이, 곰보, 곱사, 반짝반짝, 상놈, 사납다, 소나기, 족집게, 질기다' 등의 어휘에서는 여전히 높은 실현율을 보이거나 오히려 경음화 실현비율이 높아지기까지 하였다.

즉 여수방언에서의 세대별 어두경음화 실현 양상에서 특이한 점은 G4 세대는 모든 어휘에 대해 경음화를 실현하기보다는 어떤 어휘는 표준어 교육의 영향으로 거의 경음화를 실현시키지 않고 표준어로 대체시키거나, 특정 어휘들에 대해서는 더욱 뚜렷하게 경음화를 실현시키고 있다.

이는 자기주장이 뚜렷하고 개성이 강한 여수지역의 청소년들이 자기들의 의사를 분명히 표현하고 의사전달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특정 어휘들에 대해서 어두경음화를 강하게 실현시키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표3>을 통해서 몇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 '장어 /tʃ'aŋE/, 갈치/k'altʃi/'는 G1~G3 세대에서는 높은 경음화 실현율을 보이는데 이는 여수지역이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다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며, G4 세대에서 갑자기 실현율이 낮아지고 있는 것은 산업화, 도시화된 여수지역의 사회상을 반영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상놈/s'aŋnom/, 곱사/k'opsE/' 등의 어휘들은 G1~G3 세대에서

는 경음으로 발음할 경우 비속하다고 느껴서인지 경음화 실현비율이 낮지만, 조금은 공격적이고 도전적인 G4 세대에서는 실현비율이 높아짐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족집게/tʰoktʰipkʰɛ/, 반짝반짝/pʰantʰakpʰantʰak/ 등의 어휘는 경음화가 일어남으로써 의미의 강조가 배가 되어 무엇인가 강하고 자극적인 것을 좋아하는 G4 세대의 의사를 반영하고 있는 느낌이다.

4. ‘ㄱ’, ‘ㅎ’ 구개음화

“충청도 사투리(방언)가 위기를 맞고 있다. 급격한 도시화와 함께 고유의 사투리가 빠르게 사라지고 있으나 지자체의 대책은 전무한 상태다. (중략) 충청도 사투리를 대표하는 음운현상 중 ‘ㄱ’이 ‘ㄷ’으로, ‘ㅎ’이 ‘ㅅ’으로 변하는 구개음화 현상도 빠른 속도로 사라지고 있다. 신세대들은 ‘길’이 ‘질’로, ‘힘’이 ‘심’으로 변하는 등의 구개음화현상을 촌스러운 언어생활로 보고 사용을 꺼리고 있다(경향신문 2008년 10월 9일).”라는 신문 기사를 읽은 적이 있다.

위의 신문기사의 내용처럼 우리 여수지역에서도 다음과 같이 ‘ㄱ’과 ‘ㅎ’ 구개음화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1) ‘ㄱ’ 구개음화

‘ㄱ’ 구개음화는 낱말의 첫 음절에서 일어나는 것이 일반적인데, 한자어 가운데 ‘계’를 갖는 여러 낱말들은 아직까지 구개음화를 겪지 않고 있다(경험/*정험(經驗), 경치/*정치(景致), 경상도/정상도(慶尙道)). 이 낱말들은 구개음화보다 단모음화가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있는데, 이것은 국어에서 한자어 어원과 순수 국어가 음운 변화를 달리 겪고 있음을 보여주는 예인 셈이다.¹¹⁷⁾

여수 방언에서도 ‘ㄱ’ 구개음화의 변화를 겪은 예는 다음과 같이 많은 편이다.

표 준 형	방 언	표 준 형	방 언
(안개)끼다	찌다	기름	지름
겨누다	전주다	기와	지와
겨드랑	저트랑	기왕	지왕
겪다	저끄다	기울다	지울다
견디다	전디다	긴다	진다
결리다	절리다	길	질
겹사돈	점사돈	길다	질다
겹치다	점치다	김(수증기)	짐
결	절	감(잡초)	지심
계집	지집	깊다	지푸다
기다리다	지다리다	꺼입다	쩌입다
기둥	지둥	끼우다	찌구다
기르다	지루다	끼웃끼웃	찌웃찌웃

2) 'ㅎ' 구개음화

여수방언에서 'ㅎ' 구개음화의 예는 'ㄱ' 구개음화처럼 많은 편은 아니지만 다음과 같은 예들을 찾아볼 수 있다.

표 준 형	방 언	표 준 형	방 언
헤아리다	시알리다	효자	소자
헤엄	시엄	홍내	송내
혀	쌌	홍터	송테
형	성	홍하다	송하다
형님	성님	힘	심
형수	성수	힘껏	심껏
형제	성제	힘줄	심줄

'ㄱ', 'ㅎ' 구개음화와 관련하여 여수지역의 젊은층들도 위의 신문기사 내용과 마찬가지로 학교 교육을 통한 표준어의 습득으로 구개음화된 어휘의 사용을 꺼리고 있어 언젠가는 이 지역에서도 사라질 것으로 생각된다.

제3절 문법상의 특성

1. 조사

1) 상대높임 표현의 '이다'

중양어의 높임의 조사 '요'는 오늘날 교육의 영향으로 대부분의 방언에서 쓰이고 있지만, 각 방언에서는 '요'에 대응하는 고유한 표현이 있다. 예를 들어 서울말에서는 '요'와 함께 수의적으로 '여'(이쪽에는 서대문 우체국 있어 여.)를 쓰고, 충청도 사람들은 '유'(보내야지유.), 경상도 사람들은 '예'(우 짤꼬예?)를 쓴다.¹¹⁸⁾

전남방언에서는 주로 '이라우/라우'(멋이라우? 차말로 좋아라우.)가 많이 쓰이는데, 여수를 포함한 전라남도 동부 일부 지역에서는 독특하게 '이다'를 사용한다. 여수지역에서 사용하는 예를 살펴보자.

- (가) (이 일을) 할까요-허까이다 (집으로) 갈까요-가까이다
 (아버지) 그런데요-근디이다 (선생님) 있잖아요-있지이다
 (나) (사과가) 싫어요-싫어이다 (그 사람이) 미워요-미워이다
 (학교로) 갔어요-갔어이다 (잠을) 잤어요-잤어이다

위의 예문에 쓰이는 '이다'는 여수방언에서 주로 쓰이는 상대높임 표현의 조사로 (가)에는 물음의 뜻이 (나)에는 대답의 뜻이 들어있음을 알 수 있다.

2) 문장뒤에 붙이는 조사 '잉'과 '웨'

전남방언에서는 조사 '이'는 상대에 대한 다정한 느낌과 은근함을 표현하는 조사인데, 우리 지역에서는 대체로 콧소리가 없혀진 '잉'으로 표현된다.

- (가) 피기를 많이도 잡았네잉.
 내 새끼 얼릉 오소잉.
 많이 묵소잉.

(나) *어디 가냐잉?

위의 예문 (가)에서처럼 조사 '잉'은 말할이의 감정을 담고 있는 관계로 문

장 내의 서술, 명령, 청유 등 대부분의 성분에 결합될 수 있는 자유로운 분포를 가지지만 (나)에서처럼 물음법에는 불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위의 '잉' 외에도 상대에 대한 다정한 다짐을 나타낼 때 쓰이는 조사로 '와', '웨'가 있다.

- (다) 조심해서 가그라와.
- (라) 내 새끼 얼릉 오소웨.
 많이 목소웨.

(다)에서처럼 '와'는 언제나 아주낮춤의 명령이나 청유법 씨끝 '-어라'와 '-자' 등에 결합하는데, 주로 할머니와 같은 나이 많은 어른들이 어린 손자들을 대상으로 당부하는 말로 많이 쓰인다. (라)의 '웨'도 '와'와 마찬가지로 다정한 감정으로 당부하는 말로 쓰이는데, 명령과 청유의 씨끝 '-소'와 '-세' 등에 쓰인다는 점이 다르다.

2. 어미

1) 연결어미 '-응께'

중양어 '-으니'와 '-으니까'에 대응하는 전남 지역의 변이형으로는 '-으니께(께)', '-응께', '-응께'가 나타나는데¹¹⁹⁾ 여수지역에서는 다음과 같이 '-응께'가 일반적이다.

- (가) 그러니까-그렇게 / 긍께
 가보니까-가봉께
 있으니까-있응께
 주니까-중께
 먹으니까-먹응께
- (나) 한다니까-현당께
 본다니까-본당께
 그렇다니까-근당께
 온다니까-온당께

'-으니까'는 '-으니'에 '까'가 결합되어 생겨난 것인데, 이 '까'가 전남 지역에서는 '-으니께(께)'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응께'는 '-으니께'에서

¹¹⁹⁾ 국어방언문법(2003) 381~395쪽 참조

120) 국어방언문법(2003)
348~361쪽 참조

/l/가 탈락되어 나타난 형태로 보인다. (가)는 어미 ‘-으니까’에 대해서 (나)는 ‘-다니까’에 대해서 ‘-으께’로 실현되는 여수지역의 독특한 어미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2) 연결어미 ‘-음시렁’

동시성과 함께 후행절 상황이 시작되는 기점을 표현하는 중앙어의 연결어미 ‘-으면서’에 대한 전남 지역의 변이형으로는 ‘-음서’, ‘-음성’, ‘-음스로’, ‘-음시로’, ‘-음시렁’, ‘-음시렁’ 등이 있는데,¹²⁰⁾ 여수 지역에서 는 다음과 같이 ‘-음시렁’과 ‘-음성’이 일반적이다.

- (가) 먹으면서-묵음시렁 ~ 먹음성
 줄면서-좁시렁/자음시렁 ~ 좁성/자음성
 그러면서-그림시렁 ~ 그림성
 했으면서-했음시렁 ~ 했음성
 크면서-큼시렁 ~ 큼성

‘-으면서’는 동시적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연결어미 ‘-으며’에 조사 ‘서’가 첨가된 이후 /L/이 덧붙여 생겨난 어형(-으며) -으며서) -으면서)으로 현대에 와서는 ‘-으며’의 자리를 거의 대체하고 있다. 위의 예문 (가)를 보면 여수지역에서는 ‘-음시렁’과 ‘-음성’이 함께 쓰이고 있으나 ‘-음성’에 비해 ‘-음시렁’을 더 많이 쓰고 있다.

3. 의존용언

1) 의존동사 ‘버들다’

아래 문장에서 ‘버리-’ 동사는 자립동사(가)와 의존동사(나) 두 가지로 기능하는 것으로 본다.

- (가) 철수는 옷을 버렸다.
 (나) 철수는 벌써 학교에 가 버렸다.
 (다) *아름다워 버렸다.

즉 (가)는 ‘버리다(捨)’의 본래적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나)는 원래의 의미

에서 벗어나 ‘어떤 행위를 해치움’ 또는 ‘행위의 완료’ 등을 나타낸다. 그러나 (다)처럼 본용언이 동사가 아닌 형용사가 오면 비문이 되어버리는 통사적 제약이 따른다.

한편 전라도 방언에서는 의존동사 ‘버리-’의 사용빈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편인데, (라)처럼 심지어는 형용사에도 이 의존동사를 하기도 한다. 여수지역도 ‘버리-’의 사용이 아래 (마), (바)처럼 매우 활발하다.

(라) (날씨가) 추와 불다.

(마) 가버리다-가불다

내버리다 -내불다/달라불다

치워저리다-치 : 불다

가뒤편리다-가다불다

뺏어버리다-뺏아불다

(바) 가버릴까 보다-가불라

내버릴까 보다-달라불라

일러버릴까 보다-일러불라

해버릴까 보다-해불라

2) 의존형용사 ‘갑다’

의존형용사 ‘보-’는 아래 문장 (가)에서처럼 ‘추정과 의도’를 나타낸다. 그리고 ‘틀렸나 보다’, ‘올까 보다’, ‘들었는가 보다’처럼 ‘-나, -을까, -는가’와 같은 어미 다음에 쓰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전남방언에서는 ‘-나 보-’의 형식은 쓰이지 못하고 ‘은가 보-’의 형식만이 쓰이는 점이 특징이다. 이에 대한 여수지역의 방언형은 (나)의 예문처럼 ‘-(으)갑다’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가) 그 사람 안 오려나 보다.(중양어)

(그 사람) 안 올랑갑다.(여수)

(나) (꽃이) 피었는가 보다-피능갑다

(날씨가) 추운가 보다-추움갑다

(그 사람) 살았는가 보다-살았능갑다

(거리가) 먼가 보다-명 : 갑다

(누가) 밀었는가 보다-밀었능갑다

- (다) (누가) 있는가 봐-있능개비
- (내가) 싫은가 봐-실응개비
- (방이) 깨끗한가 봐-캐칼형개비
- (돼지를) 죽이는가 봐-직이능개비

한편, (다)처럼 ‘-(응)개비’의 형태도 G1 세대의 화자들에게서는 조금씩 발견할 수 있으나 지금은 거의 쓰이지 않고 있다.

제4절 맺음말

우리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정감 넘치고 아름다운 우리말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 우리말들을 지켜보려고 애써보지만 그 어느 시기보다 더 빠른 언어 변화의 급물살에 휩쓸려 우리의 영혼을 담은 우리말들이 사라지고 있다. 여수말도 예외는 아니다.

여수말의 미래를 생각하며 이 글을 마무리 하고자 한다. 여수말의 미래를 예측해보기 위해 60명의 고등학생(남35, 여25)들에게 ‘여수말의 미래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하였다. ‘사투리지만 고향 말이니까 잘 지켜나가야 한다.’가 28명(47%)이었으며, ‘사투리니까 표준어로 고쳐 가야한다.’가 3명(5%), ‘별 관심 없다.’가 29명(48%)으로 나타나 여수말에 대한 자부심이나 애착심이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수말의 미래는 지역어를 사용하는 화자들의 태도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방언의 존재를 부인하면서 한국어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은 모순이다. 한국어는 각 지역 방언의 집합이기 때문이다. 여수말도 한국어의 부분집합이기에 아름답게 가꾸고 지켜나가야 할 책임과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 기세관 외 4인, 『전남방언사전』, 태학사, 1998.
- 기세관, 「여수방언 개관」, 『남도문화연구』 6, 순천대, 1997.
- 방언연구회, 『방언학 사전』, 태학사, 2001.
- 여수여천향토지편찬위원회, 『여수·여천 향토지』, 여수: 동광인쇄공사, 1982.
- 이기갑, 『국어방언문법』, 태학사, 2003.
- 이기갑, 『전라남도의 언어지리』, 국어학총서 11, 탑출판사, 1986.
- 이돈주, 「전남방언」 『어문총서』 206, 형설출판사, 1978.
- 이승재, 「구례지역어의 음운체계」, 『국어연구』 45, 서울대, 1980.
- 이익섭, 『방언학』, 민음사, 1984.
- 이희순, 『방언사전(여수편)』, 어드북스, 2004.
- 조창규, 「18세기 중엽 이후 전남방언의 모음상승과 모음중화」, 『국어국문학』 116, 국어국문학회, 1996.
- 한경호, 「여수 지역어의 음운현상에 대한 사회언어학적 연구」, 석사학위논문(순천대학교육대학원), 1996.

